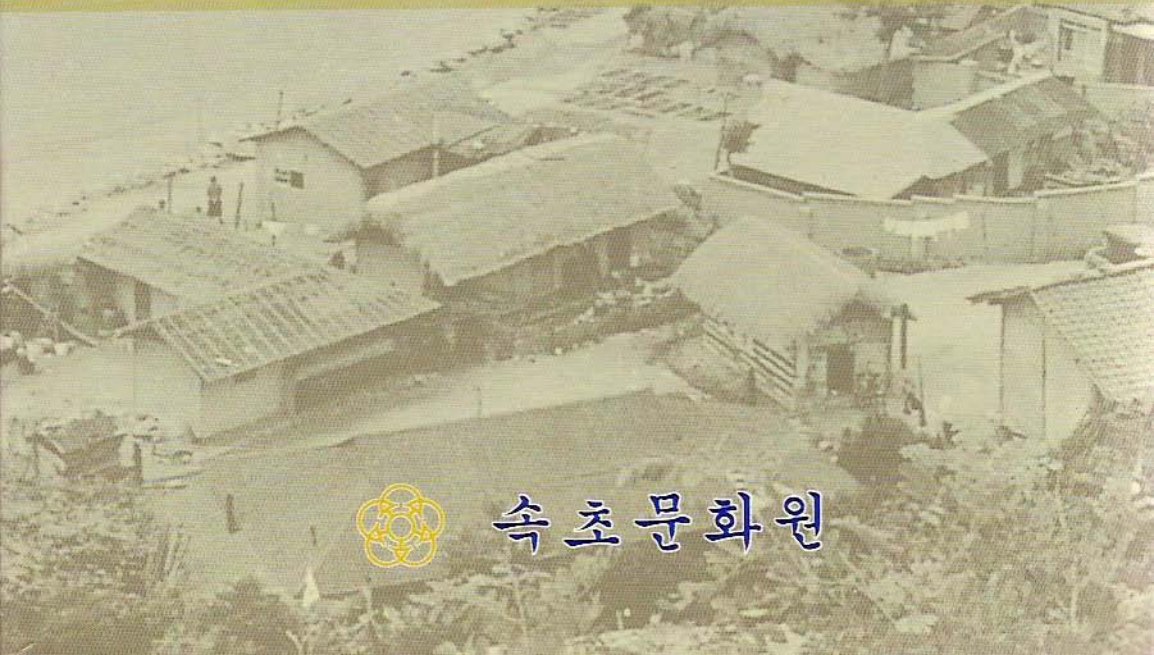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의 근·현대사

목 차

발간사 / 최용문(속초문화원장)	3
총 론	5
제1장 속초의 연혁	9
1. 고려 이전	9
2. 조선 시대	10
3. 일제 시대	11
4. 해방 이후	12
제2장 속초 지역의 형성	15
1. 지형적 여건	15
2. 사회·경제적 여건	18
3. 촌락의 형성과정	21
제3장 개항 이후	27
1. 개화기의 정세	27
2. 인구 및 사회	29
3. 경제	32
4. 문화	34
제4장 일제시대	47
1. 행정구역의 변화	47

2. 일제 시대의 땅이름	49
3. 인구의 변동	56
4. 사회	59
5. 일제시대의 경제적 상황	73
6. 문화	83
제5장 한국전쟁과 피난민의 정착	91
1. 해방과 한국전쟁 사이의 강원도	91
2. 해방 이후의 속초	95
3. 속초 피난민의 이주 과정	99
4. 한국전쟁과 속초지역의 사회변동	111
5.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113
6. 속초 피난민의 문화	124
제6장 속초시의 발전	143
1. 속초시의 승격	143
2. 행정	145
3. 사회의 변화	161
4. 남북 통일과 북방교역	164
5. 경제 및 산업	167
6. 교육	177
7. 문화 예술	180
제7장 연표	199

발 간 사



속초문화원장 **최 용 문**

속초문화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일반시민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료조사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속초의 근·현대사』 작업이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향토사연구소는 1980년대 발족한 이래 지역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속초의 옛 지명』, 『속초의 향토민속』, 『옛 문헌속의 속초』 등 20여 책의 자료집과 연구성과물을 간행·보급하여 지역 향토사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속초의 역사 성과물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 모든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적 사료 조사·수집을 비롯한 사료정보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향토적 이미지를 정립하고 21C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 조사·수집으로 향토정보화 도입체계로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지역의 지식기반 사회 강원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문화여건의 변화에 발맞춘 민족문화 계승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현이라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총 문

총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은 타 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자기 지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속초시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 부단히 변화의 길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속초는 주지하다시피 생산기반 시설이 없어 생활터전을 바다나 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는 관광지로의 개발이 최대 화두였고, 그 관심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되어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매년 천만 명의 관광객이 속초를 방문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관광산업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매년 30억불 이상의 관광수입을 올리는 런던도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추구하고 있다. 즉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를 볼거리 외에 즐길 거리로 제공함으로써 문화관광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런던이나 파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속초도 자연적인 관광자원 외에 문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더 이상 관광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화란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속초는 어느 도시 못지 않은 다양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즉, 농촌문화, 어촌문화, 산촌문화, 피난민 문화 등 어느 곳보다도 독특하고 복합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지역

과의 차별성을 찾지 못했고, 관심 부족으로 인해 문화적 기반을 통한 상품을 만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제는 속초의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고 널리 홍보하는 작업이 급선무한 일이다. 따라서 속초 발전의 최대 과제는 속초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통해 종합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매진하는 일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 『속초의 근현대사』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연구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속초의 근현대사 정리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 속초 지역은 고대사도 그렇지만 근현대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속초가 오랫동안 양양군에 속해 있었고, 일부는 간성군에 편입되어 있어서 그 지역들 속의 일부분으로 통계가 잡혀있고 사료가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파악할 수 있는 사료마저도 미비하여 몇몇 문헌과 증언 또는 당시의 신문기사에 주로 의존해야 한다.

향토사 연구팀은 이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하여 지난 5년 간 흠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였다. 규장각, 서울대학교 도서관, 국회 도서관, 중앙 도서관 등을 찾아 자료조사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직도 근현대사 부분의 자료는 상당히 미약하다. 다행히 일본인들이 남긴 자료와 증언해 주실 분들이 아직 생존해 있어서 처음으로 근현대만을 주제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이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연구위원들은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가급적 쉬운 말로 고쳤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쉽고 재미있게 읽는 것이 속초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룬 내용들은 속초 지역의 변천 과정 중에 행정 구역의 변화과정, 인구의 변천 과정, 피난민 거주 현황, 산업

의 발전 과정 그리고 속초의 근·현대 인물과 사건 등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으면서도 역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이다.

철저한 역사 인식은 자기의 역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근래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구려를 자신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명백한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되어 역사 문화 식민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바른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뿌리는 향토사 바로 알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사에 대한 연구와 인식은 향토애를 통하여 국가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이 책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했던 속초의 근현대사를 나름대로 정리한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집필 목적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속초에 대한 새로운 점들을 발견하길 기대하며,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학도 들에게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

속초의 연혁

제1장 속초의 연혁

1. 고려 이전

현재까지 밝혀진 속초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인근 양양이나 고성에서 선사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초 지역은 당시 사람들의 이동로였기 때문에 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국가들의 태동 이후에는 군장 국가였던 동예에 속하였다.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고구려의 영토로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 하였고,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익령(翼嶺)이라 불리었다. 고려 시대로 접어들면 양양에 현령이 파견되면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襄州)라고 불렀다.

1) 조양동 선사 유적지(기원전 9~8세기 경)는 구릉에 위치한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 집자리이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산 142번지로 1992년 10월 6일 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었다.

2. 조선 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속초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속초는 외적의 침범이 심한 동해안에 위치한 까닭으로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²⁾이 설치됨으로 인해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의 2면으로 되어 있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가 속해 있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현재 지명인 속초는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라는 작은 동네였던 것이다. 영조 41년(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보면 ‘속초리는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호수는 86호이고,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속초리는 인구 272명인 아주 작은 동네였다.

2) 조선 시대 무관직의 하나. 만호·천호·백호 등은 본래 그 관령(管領)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차차 민호의 수와는 상관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육군보다는 수군에 이 명칭이 남아 있으며, 조선 초기에도 만호·부만호·천호·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되었다.

3. 일제 시대

일제 시대에 들어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로 지방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 도천면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로 구성하여 면사무소를 대포리에 두었다. 1937년 7월 1일 속초리로 면사무소를 이동함과 동시에 도천면을 속초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 104호로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속초읍은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 리로 편성되었다.

4. 해방 이후

해방 이후 38선 이북에 속하였던 속초는 공산 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전쟁 때인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진주함에 따라 탈환되었으나 1·4 후퇴로 다시 빼앗겼다가 1951년 2월 11일 재탈환하여 8월 18일 수복지구로 군정 하에 들어갔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 350호로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 11월 17일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16개 리로 구성되었다.

가. 시제 실시

속초는 1962년 11월 21일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었다. 당시의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³⁾에 22개 마을과 312개의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10,864가구에 인구는 55,619명이었다.

나. 동제 실시

1966년 1월 1일 속초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 95호)의 공포로 리를 동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하여, 시 승격 3년 만에 비로소 속초시는 동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속초리 1구, 2구 지역을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으로 속초리 3구, 4구 지역을 금호동으로, 속초리 6구를 청학동, 교동으로 변경하였고,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지역

3) 속초리,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외옹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

을 노학동으로,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및 부월리를 조양동으로, 속초리 5구 부월리 2구를 청호동으로, 외웅치리, 내물치리를 대포동으로,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리를 도문동으로, 장항리 일원을 설악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속초시는 총 12개 동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다. 동 신설 및 경계 조정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대통령령 제 6542호)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흡수되어 장사동으로 개칭되었고 13개 동으로 1개 동이 증가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027호로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13개 동, 행정동 13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1998년 속초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 대포, 도문,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장사동과 영랑동이 영랑동으로, 동명동, 조양동, 청호동은 그대로 동을 유지 행정 8개 동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장

속초 지역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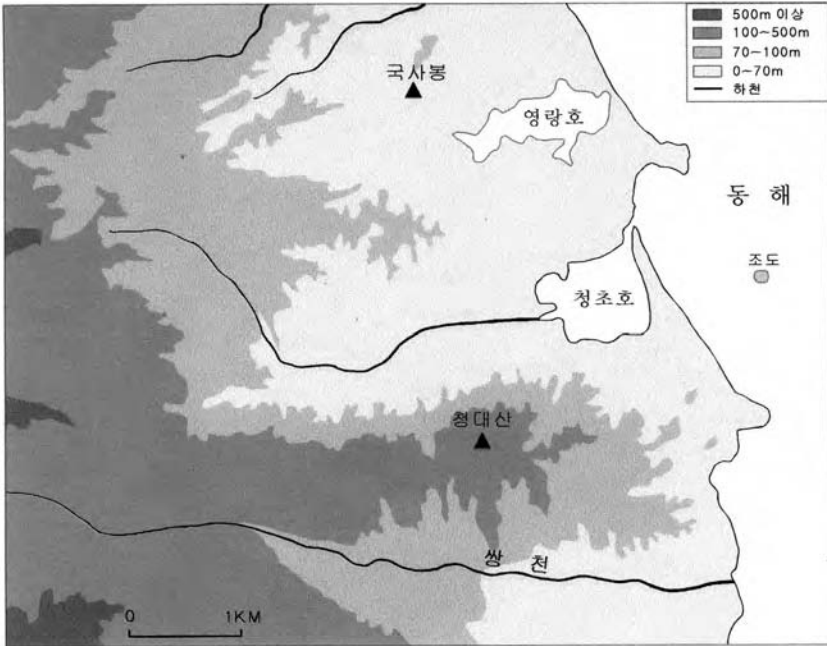
제2장 속초 지역의 형성

1. 지형적 여건

속초는 행정구역상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태백산맥의 주요한 산인 설악산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세 하천에 의하여 3분된다.

제일 북쪽에 있는 장천천이 영랑호로, 그 중간에 청초천이 청초호로, 제일 남쪽에 있는 쌍천이 동해로 유입된다. 이들 동서방향의 하천은 각각 작은 유역 분지를 이루게 되고, 산지에서 많은 흙과 모래를 운반하여 하구에 퇴적시켜 흙과 모래의 일부가 동해의 연안류를 따라 흘러가다가 하구 입구를 메워 영랑호와 청초호 등의 자연 호수를 이루었다.

동서로 발달한 이들 하천은 동서방향의 인구 이동에는 유리하지만 남북간의 이동에는 별로 유리하지 않았다. 남북간의 이동은 육로로 이들 유역분지를 넘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해안의 연안류에 의하여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였다. 따라서 속초지역은 농업 지역의 확대와 함께 동서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 속초 부근의 지리적 특성 >

또한 하천의 근원지인 설악산은 태백산맥 줄기 중 최고봉인 대청봉(1,708m)이 남서 경계에 위치하고, 마등령·화채봉·칠성봉 등 높이 1,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이 서부와 남부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설악산은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 계곡의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 및 숲, 그리고 신흥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사철 경관이 뛰어나 관광지로서 이름이 높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기반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속초 문화를 규정짓는데 있어 지형적 여건은 그 어느 것보다도 먼

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은 농경문화와 어촌문화, 산촌문화를 생산해 내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2. 사회 · 경제적 여건

조선 후기에 속초는 양양군의 일개 마을로 도로도 없을뿐더러 주교리를 통하는 길조차도 물을 건너야 했다. 고지도를 살펴보면 조선시대까지의 양양과 간성의 주도로는 상운, 연창, 강현, 원암, 청간을 잇는 것이었다. 이는 속초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한 작은 지역임을 말해 준다.

실제로 18세기 중반 제작된 『여지도서』의 인구 조사표에 의하면 당시 속초는 1,26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 기술의 발전과 인구 변동에 의하여 20세기 초에는 속초 부근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20년경 속초의 모습을 보면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대포리, 내물치리, 노리,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외옹치리 등이 보인다. 이는 이전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몇 개 마을이 통합, 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도문면 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가 합쳐져 장항리가 되고, 도문리에서 중도문리가, 물치리에서 내물치리가 분화되고, 옹진리는 외옹치리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마을 이름의 변화는 농업 지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설악산을 배경으로 살고 있던 화전민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중도문리나 내물치리 등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인구가 늘어난 결과이다. 또한 청초호 유역 일대의 노리는 18세기 이후 새로 나타난 취락으로서 산간 개척의 전진기지였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속초리가 커지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속초항이 일제 시대에 들어와 정기 기선의 기항지로 등장하게 되

었다는 점이다. 일제 시대 당시 대포항과 속초항은 항구로서의 조건이 비슷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항에 정기 기선의 기항지가 들어서게 된 것은 대포항은 어선의 포구로서, 속초항은 항구로서의 기능이 각각 분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속초항은 양양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나아가 쌍천 유역의 대포리와 중도문리를 누르고, 양양 읍치소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

1937년 7월 1일에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는 속초리·속진리가 실질적인 지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속초지역의 농토가 어느 정도 개발된 현대에 들어와서는 바다를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속초가 시로 승격될 당시 속초는 풍부한 해산물로 인해 파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속초의 환경변화에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한국전쟁에 의한 북한주민의 월남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의 피난민들은 처음부터 속초로 피난 온 것이 아니라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고향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속초의 구성원으로서 속초의 피난민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1980년 통계를 보면 피난민들은 속초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월남이주민의 정착은 언어가 쉬이고, 음식이 다양화 되었으며,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함경도의 문화가 새로이 등장하면서 지역의 토착문화화 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속초는 한국 관광 1번지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 한해 방문객이 1,000만이 될 정도로 관광산업의 규모가 커져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대도시의 문화와 소비패턴

속초의 근현대사

이 침투하면서 빠른 속도로 탈농촌화 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기존의 토착화된 문화가 파괴 내지는 변질되어 가는 역기능도 있다.

3. 촌락의 형성과정

일제 강점기 초의 마을 이름을 기초로 하여 취락 발달을 살펴 보면, 속초는 4개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달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즉 내물치리-하도문리-중도문리-상도문리를 잇는 선, 부월리-논산리-노리를 잇는 선, 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를 잇는 선, 속진-속초를 잇는 선이 그것이다. 내물치리축은 쌍천을, 부월리축과 속초축은 청초호를, 장항리축은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다. 속초리와 속진리는 다른 생활환경을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청초호로 연결된 해안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 전통안정축(내물치리-하도문리-중도문리-상도문리)

일제강점기 초 인구의 증가는 쌍천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쌍천은 조선시대까지 도문천으로 불려졌는데, 풍부한 용수를 공급할뿐만 아니라 도문버덩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예로부터 상도문리와 하도문리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1914년 지방제도의 개혁 내용을 보면 중도문리, 노리, 장항리가 새로 신설되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중도문리에 인구가 유입되어 새로운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전통축이 확대된 것으로 기존 마을에는 더 이상 인구 유입 요인이 없어져 다른 지역으로 생활권이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도문면의 인구는 기록을 보면 중도문리 생성을 빼고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이는 도문면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문면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농지와 땃감, 용수도 풍부한 곳으로 속초 이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었다. 쌍천 축은 인구 증

가로 인해 물치항이 지역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물자와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졌다.

나. 전통불안정축(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

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를 잇는 축은 설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정고리는 신흥사 사찰 마을이었는데, 지금도 절 주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 듯이 옛날에도 그러했다. 또한 산천 유람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마등령으로 넘어 다니는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했으며, 기본적으로 화전도 했을 것이다.

토왕성리는 전통적인 화전민촌이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화전이나 심마니 생활 외에는 다른 수입원을 찾기가 어렵다. 1914년 장항리가 신설되는데 이는 화전민촌의 확대라기보다는 상도문리 위쪽 남아있는 땅의 개간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장항리의 신설은 전통안정축의 확대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산간 지방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화전민의 생활은 한계성이 있게 마련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920년경 도문면 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가 합해져 장항리가 된다. 이것은 화전민촌의 축소이며,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토왕성리, 정고리에서 좀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축은 발전 한계성을 가졌다.

다. 농업발전축(부월리-논산리-노리)

부월리축은 전통안정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미 개발된 곳이

많아 인구의 유입요소가 없어 인구 유입이 미미하였다. 하지만 노리쪽은 달랐다.

노리는 현재 노학동 지역으로 과거에 습지대였던 곳이 개발됨에 따라 평야지대로 변하였다. 노리는 산악지대 개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고, 이 곳을 시작으로 유입된 인구는 농토를 만들어가면서 취락이 농토를 따라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제 후기에는 노리(蘆里)에서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가 분리되었다. 이는 산악개발의 전진기지였던 노리를 시작으로 점차 서쪽으로 농토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 척산 지역의 취락 형성(1970년) >
농토를 따라 취락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마을인 부월리는 인구 증가는 더디지만 자체에서 늘어나는 인구와 외부로부터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청초호를 막아주는 긴 사주가 새로운 주거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곳은 일제시대 주도로가 나있는 상황이었지만 일제의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취락의 형성이 늦었는데, 1945년 이후의 월남민과 한국전쟁 중 남하한 피난민은 귀향하기에 쉬운 사주일대에 피난민촌을 건설하여 오늘날 속초시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 해방후의 청호동 모습 >

라. 항구발전축

속진리와 속초리는 전통적으로 반농반어 마을이었다. 속진리는 영금정에서 수복담에 이르는 항구로서 작은 어촌이었고, 속초리는 속진리와 연이은 갯배나루 왼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속초리는 청초호 자체를 바탕으로 삼았고, 속진리는 청초호의 입구를 배경

으로 삶을 이어갔다.

이들 지역은 반농반어의 생활을 영위하였다고는 하나 농업으로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시내 한가운데까지 낮은 산지였기 때문에 개발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산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자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산림지역이 농토로 변해갔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에 들어와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면서 1937년 면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업인구뿐만 아니라 어업인구도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유입된 인구로 인해 1942년 속초읍의 승격을 가져오고, 속초리는 1구에서 4구로 나뉘질 정도로 확대되어 오늘날 속초의 모태가 되었다.

제3장

개항 이후

제3장 개항 이후

1. 개화기의 정세

19세기 중엽 조선의 전통 사회는 커다란 변화와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폐단이 극에 달하여 무능한 양반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부산, 원산, 인천 등 세 항구의 개항과 함께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개항 이후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화파 인물을 등용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았다. 조선의 전통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유생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여 반외세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속초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 사정상 근대 사상의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보수적 유림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사회 주도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영월, 정선 지방의 동학군이 영동으로 몰려왔을 때 이 지역에서는 반동학군을 형성하여 진압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강원도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는 반동학군의 대표적인 인물은 중도문리의 이국범과 이석범⁴⁾이었다. 이렇게 반동학군이 조직될 수 있는 지역적 기반

은 속초사회에 거주한 유학자들의 영향력이었다.

이것은 속초지역이 새로운 정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이며, 경제적인 여건상 외지로의 유학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용하던 양양과 속초도 1906년 남궁 역⁵⁾이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현산학교(峴山學校)를 설립하고 신교육을 실시하면서 개화 자강 운동이 소수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사상 교육은 양양감리교회를 비롯한 감리교회가 주축이 되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양양지역에서 시작된 신교육은 이후 전개된 3·1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할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
- 4) 원래 양양은 유학의 고장이다. 당시 이석범은 양양의 가장 대표적인 문중 중의 하나인 임천리 함평 이씨로서 도천면 중도문리에 살며, 그곳에서 쌍천학교를 설립하였다. 대중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3·1운동 직전까지 도천면의 면장을 역임했으며 후에 신간회 양양지회의 회장으로 피선된 인물이다.
 - 5) 남궁 역(南宮憶/1863~1939)선생은 독립운동가·교육자·언론인이다. 1898년 독립협회 관계로 투옥되었다가 풀려 나와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하였고, 1906년 양양군수로 재직시 현산학교를 설립하여 신사상을 고취시켰다.

2. 인구 및 사회

속초의 인구는 1871년 편찬된 『관동읍지』를 보면 도문면에 538명, 소천면에 668명으로 총1,206명이었다. 이들은 속초의 전통 사회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가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였다.

당시 도문면에는 상도문리를 비롯하여 6개의 마을이 있었고 그 중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는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논농사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된 상태이고 양반 지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요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관동읍지』보다 약 100년 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기록된 635명보다도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소천면은 논산리를 비롯하여 4개의 촌락이 있었다. 소천면의 논산리, 부월리 등은 잘 발달된 평야지대를 끼고 있었다. 하지만 속초리 쪽의 대부분은 미개척지였고, 속진리는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므로 인구의 증가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포리가 속초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기에도 중심지가 점차 속초리 쪽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도문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천면은 인구의 증가라고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38명이 증가하였다. 100여 년 동안 38명의 증가는 전통사회 속에서 소천면이 안정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당 인구수는 속초리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2.5~3.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3, 4명의 식구뿐이 없었다는 기록이 흥미롭다.

조선말기 속초 인구의 변화

면	년도	편호	인구	증감
도문면	영조41(1765) 여지도서	205	635	▼97
	고종8(1871) 관동읍지	185	538	
소천면	영조41(1765) 여지도서	182	630	▲38
	고종8(1871) 관동읍지	188	668	

자료 : 『여지도서』, 1765. 『관동읍지』, 1871

1871년 속초의 인구현황

면	리	편호	인구(명)		소계	호당 인구(명)	계(명)
			남	여			
도문면	상도문리	61	95	145	150	2.5	538
	하도문리	24	33	58	91	3.8	
	물치리	21	25	41	66	3.1	
	대포리	23	24	42	66	2.9	
	용진리	35	53	74	127	3.6	
	신흥사	21	38		38		
소천면	논산리	38	51	54	105	2.8	668
	부월리	52	72	105	177	3.4	
	속초리	47	99	111	210	4.5	
	속진리	51	70	106	176	3.5	

자료 : 『관동읍지』, 1871

속초는 동학농민운동 때 반동학군이 조직될 정도로 보수적인 고장이며, 유학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었다. 속초는 향교는 없었지만 양양읍 내에 향교가 있었고, 도문리를 중심으로 유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속초의 유학 지도자 이석범은 중도 문리에 쌍천학교를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조선 후기에 가면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신분제가 타파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석범이 3·1운동과 신간회의 지도자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속초는 양반 지도층의 지도력에 변함이 없었다.

『현산지』를 비롯한 많은 문헌을 보면 이 지역은 학문을 숭상하였으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고 적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그렇듯 속초지역도 장례시 온 마을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잔치를 열어 놀기를 좋아했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다른 곳보다 많은 무속신앙이 발달하였다.

3. 경제

전통적으로 농업 사회였던 조선 말기의 속초는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다. 농업은 일제시대와 다르지 않아 벼농사를 주로 하였다. 고종 8년(1871)에 성책된 『관동읍지』를 보면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가 있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논산리, 부월리 등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업으로 하는 지역이며, 대포리, 웅진리, 속초리, 속진리 등은 반농반어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다.

속초가 속한 양양지역은 강원도내에서 화전민의 수가 많은 곳 중에 하나이다. 양양지역에서도 특히 산간 지방의 경우는 주민의 80%가 화전을 하며 살았다. 화전민의 대부분은 양양 서쪽 갈천, 미천, 서림, 오색등에 거주하였지만 설악산에도 일부 존재했다.

속초리는 화전지대는 아니지만 미개척지로 남아 있어 산림이 무성하였다. 하도문리에 있는 나무고개라는 고개 이름이 속초리로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넘었다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속초리 쪽에 울창한 산림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산지』에 보면 당시의 산물은 다양하였는데 산에 사는 짐승의 가죽부터 바다에서 나는 고기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 일부 품목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동물가죽-호랑이가죽·곰가죽·노루가죽·담비가죽·담
비털·돼지털·너구리가죽·산돼지가죽

동물 - 해달·수달·해양·해돈

수산물-게·홍합·해삼·생전복·대구어·방어·가어(加
魚)·광어·문어·사어(沙魚)·홍어·송어·연
어·황어·도루묵·농어·잉어·미역·소금

농작물 및 약초 -차·닥나무·대나무·순채·배·밤·감
·살구·복숭아·은행·복숭아·호도·목과·개암
나무·대추·연밥·잣·오미자·오가피·지초·
홍화(잇꽃)·마·송이버섯·만이·석이

4. 문화

가. 민요

민요는 어떤 민족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과정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 민족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과정이 노래의 형태로 나타나 정착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요에는 민중이나 생활 공동체의 미적 심성과 정서가 담겨있기 마련이고 자연발생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일정한 규범이나 악보가 없이 전승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모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노동요는 일의 지루함을 잊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으로 흔히 ‘작업요’ 또는 ‘일노래’라고 한다.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온 민요만을 노동요라고 한다. 노동요는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을 가진 민요로서 의식요(儀式謠)·유희요(遊戱謠)와 함께 기능요(機能謠)에 속한다.

속초 지역에도 많은 노동요가 전승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농업 노동요인 ‘도문메나리’와 어업 노동요인 ‘배내리는 소리’, ‘노젓는 노래’가 있다.

(1) 도문메나리 농요

‘도문 메나리’ 농요는 도문동 상도문리에서 아직까지 전승되어 온다. 도문면은 속초에서 사람들이 가장 빠른 시기에 정착한 곳 중 하나이며, 마을 형성시기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오래 전부터 노동요가 불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문메나리’는 농민들이 3, 4명씩 짝을 지어 논김을 매면서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부르던 농요로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다.⁶⁾

도문메나리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나주오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뒀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속에속잎 절여두고 속에속잎 나를주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6) 도문메나리 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인데, 일곱마당으로 서낭굿, 논삶는 소리, 모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 질 먹기, 벼베는 소리, 황덕굿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문메나리 시연모습 >

(2) 어업노동요

속초에 전승되는 어업요는 노를 저으면서 제창하는 ‘지어소리’, 그물 당기면서 제창하는 ‘다리어소리’, 고기를 베끼는 ‘베끼노래’, 고기를 퍼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 등이 있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푸면서 부르는 소리를 ‘산자소리’라고도 하고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는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주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를 매기는 선후창으로 불리기도 한다.

베끼노래는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낄 때 부르는 소리로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도 가장 신명나는 소리다. 교창 형식은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그 외에 배를 만들어 진수하면서 부르는 ‘든대질소리’ 일명 ‘배 내리는소리’도 있다.

(3) 대포동 뱃소리⁷⁾

속초는 해안선을 따라 어촌지역이 발달했는데 그 중 대포동은 자연적으로 취락이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대포동 어민들은 생활 터전이 바다이므로 자연히 바다에 대한 신앙과 조업에 대한 풍속들이 깊게 뿌리박고 있다. 고기잡이 할 때 그물을 당기며 고기를 산대에 담거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끼면서 어민들이 불렀던 뱃소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뱃소리에는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방마다 뱃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동해안에는 크게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으로 분류된다. 강원도식 뱃소리는 짜임새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고, 함경도식 뱃소리는 잡담(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뱃소리의 구성은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형태가 없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조, 고사(故事), 판소리, 패설 등을 사실로 삽입한 것이며 사실내용은 어부들의 희비애락(喜悲哀樂)을 노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대포동 뱃소리에서 제1과장은 출어장면으로 노 젓는 ‘비아다리’ 소리를 한다. 제2과장은 조업 장면으로 사공의 지시에 따라 쳐진

7) 대포동 뱃소리는 대포동에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동요로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것을 속초 문화원에서 발굴하여 제15회 강원도 민속 예술경연대회 속초시 출연작품으로 소개하면서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약 100년 전의 출어모습과 소리를 재연했다.

그물을 일제히 당기며 ‘다리어’ 소리를 한다. 제3과장은 산대질로 사공의 선창에 맞추어 가래(산대)로 고기를 퍼담으며 ‘산대소리’를 한다. 제4과장은 선상 작업으로 끌어올린 그물의 고기를 빼끼면서 ‘빼끼소리’를 하며 만선임을 확인하고 만선기를 올린다. 제5과장은 귀항으로 만선기를 달고 돌아오면서 흥겨운 ‘지어소리’를 하면서 돛을 내린다.

(4) 지정다지기

속초리 1구(영랑동) 마을은 조선 말기부터 농악과 함께 이루어지는 지정다지기가 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질 여건이 견고하지 못한 관계로 마을의 집터를 굳게 다지기 위한 지정다지기 놀이가 계승되어 왔다.

지정다지기는 주로 낮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녁부터 자정까지 횃불을 켜들고 집터를 다지기 시작한다.

집사가 “오늘 저녁에는 영랑동 ○○○ 씨가 집을 짓기 위해 마을 이웃 모두 모여 지정다지기를 하겠다”고 고하고 각종 제물을 차려놓고 축문을 읽는다. 이것은 토지신에 대한 제사이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와 집주인이 음복을 하고 집주인이 지정다지러 온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술을 권한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지정다지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서서 집사의 소리에 맞추어 집터를 다진다.

노래를 하며 다지다가 집사가 쉬었다가 할 것을 지시하면 마을 사람들은 “어어차 어이차 어이차”합성을 지르며 지정석을 동시에 높이 쳐들어 신호를 하고 휴식에 들어가며 술과 안주로 피로를

푼다. 이때에 농악대가 나와 흥겹게 논다. 어느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지정다지기를 하여 날이 어두워지면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횃불을 들고 집터를 밝힌다.

지정다지기가 끝나면 집주인은 지정을 아주 잘 다져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준비한 음식을 제공한다. 영랑동 지정다지기는 동작의 통일을 강조한 노동요가 첨가되고 서로 협력하는 협동정신이 주축이 된 노동유희요라 할 수 있다.

나. 민속

(1) 도리원 농악⁸⁾

도리원은 노학동의 작은 마을로 주업은 농업이었으며, 예로부터 농악이 발달하였다. 이 마을은 1900년대 이전부터 농악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농사가 끝난 후 마을 행사로 농악놀이를 전승하고 있다.

도리원의 초기 농악은 대체로 영동 지역 여타 농악과 비슷하였다. 하지만 1910년대 경기도 출신 이설기가 도리원에 정착하게 되면서 도리원 농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설기가 도리원 농악에 가담하게 되면서 경기 웃다리 농악이 가미된 “속초도리원 연희 농악”으로 변하게 되었다.

도리원 농악은 1930년대와 40년대 말까지 대포동 별신제 등에

8) 도리원농악은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과 39회 설악문화제 개막식 공연을 하였으며, 제15회와 제19회, 제21회 강원민속예술 축제에 출연하여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서 성대하게 공연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초에 들어와 전쟁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의하여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도리원 농악은 남부지역(삼척), 서부지역(경기도 수원 등)까지 연희지역을 확대하고 초청공연까지 다니면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농현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전승 및 발전이 점점 어려워졌고, 현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되었다.

도리원 농악의 판놀음은 고증자들의 구술과 시연에 의해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농사풀이 부분이 가미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농사풀이로 씨뿌리기와 모심기 등을 하였다고 하나 1960년대 말부터 타지역에서 하던 것을 모방한 것이므로, 도리원 고유의 농악을 재현하기 위해 1950년대 이전의 고증에 따라 개인놀이와 동고리놀이를 보강하여 전수하였다.

도리원 농악의 놀음은 인사굿, 달팽이굿(황덕굿), 십자진(십자진과 건풍놀이), 글자놀이(도리원), 개인놀이(무동, 소고, 벽구, 열두발상모놀이),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 놀이), 황덕굿(인사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리원 농악대 공연(1950년대 말) >

(2) 용갈이

용갈이는 한자어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호동 주민들은 청초호가 얼면 그것을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친다. 청초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호수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북편만 갈면 이듬해 풍년이고,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아놓으면 평년작이라고 점을 친다.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숫룡과 암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하고 용선놀이가 전한다.

(3)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만천동은 교동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는 옛 지명으로 이곳의 나룻배 싸움놀이는 제2회 강원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 선보였다. 구비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 숫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는 암룡이 살아서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다. 그런데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 나서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숫룡이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별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의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행했다고 한다. 이 나룻배 싸움놀이에서 진 마을은 술과 음

식을 대접하고 이긴 마을은 풍어와 대풍년을 거둔다고 믿으며,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가무를 하며 놀았다고 한다.

동네 청년들은 용신제를 올려 풍년과 풍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에게 인사를 한 후 함께 음복을 한다. 서로간의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와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과 술을 나누며 흥을 돋운 다음 서로 힘 겨루기를 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지게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거나 막대로 서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게 되면 풍어를 약속 받는다고 믿는다. 나룻배 싸움놀이의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나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 청년들이 어울려 놀이마당을 벌인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받지 않고 푸짐한 대우를 해주게 되므로 힘껏 싸움놀이를 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결혼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에서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하는데 이를 ‘혼례 나룻배싸움’이라고 한다. ‘혼례 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도 하며, 육지의 가마싸움놀이와 비슷한 형태이다. 만천동은 동군, 청대리는 서군으로 나누어 편싸움 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민속놀이는 줄다리기와 같은 풍요제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나룻배에 아들을 많이 낳아 기르는 장정들을 뽑아서 태우는 것도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이 결국 하나로 화

합되기 위한 절차이며 두 마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는 용선희(龍船戲)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양민속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4) 도문 봇물 싸움놀이

도문보(洑)는 도문동과 양양군 강현면 경계에 흐르는 쌍천변에 위치한 사람인(人)자 보로서 조선 중엽부터 근 300년 간 5, 6월에 한해(旱害)가 들면 강현면과 도문동의 농가에서 나와 물싸움을 벌인 곳이다.

이 봇물싸움에는 100여명 이상이 동원되는 영동 제일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석전(石戰)이 쌍방간에 벌어지는가 하면 밧줄로 보를 파는 주민들을 밀어내는 패싸움이 있기도 하였다. 쌍방간에 싸움이 커지면 대포주재소에서 나와 양 대표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강현면 지구는 60% 도문지구는 40%로 나누어 물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도 이후 새마을사업 등으로 관개수로가 원활해져서 두 마을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이 봇물싸움을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켜 놀이화하고 있다.

(5)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물치는 행정구역상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마을로서 예전에는 속초의 중심지역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어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았으며, 이곳에서 행해지는 풍어제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

타난다. 풍어제는 3년에 한번씩 올려지며, 3일 동안 12마당 굿을 펼치며 벌어진다.

용떡놀이는 용왕굿의 한 과정으로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각기 제사상을 하나씩 용신에게 바친다. 이 제사상마다 풍어를 기원하는 용떡과 오방기가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무녀들과 주민들은 이를 중심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속초의 어촌에서는 3년 또는 5년마다 용왕굿을 지내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마을제와는 달리 별신제로서 풍어굿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포동 물치 용왕굿은 3년마다 어촌계와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며, 음력 9월 9일 제사가 끝난 당일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예전에는 사흘 밤낮 굿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용왕굿은 부정굿, 성황굿 등 12거리가 행해지는데 마지막 거리인 뱃놀이 굿이 끝나면 축항에 나가 물굿(용왕굿)을 지낸다. 이 때 선주들도 각자 작은 제사상을 준비하여 축항에 놓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고, 용왕신에게 바쳐진 용떡을 머리에 이고 춤을 추며 놀던 축제이다.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의 구성은 제례, 용왕굿, 액막이, 용떡놀이, 오방기놀이, 뒷풀이로 구성되어 있다.

(6) 논뫼호⁹⁾ 불꽃놀이

청초호의 옛 이름은 ‘논뫼호’로 옛 문헌에는 쌍성호(雙成湖)라

9) 논뫼란 논산리를 뜻하고 논뫼호는 논산리 앞의 호수 즉 청초호를 지칭한다. 청초호는 호수둘레가 수십리로 경치가 영랑호보다 좋다고 하고 이곳에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시켰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기록하고 있다.

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조선 시대부터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불꽃놀이를 한자로는 ‘낙화유’(落花遊, 落火遊)라고 하며 청초호에서는 조선 숙종 때부터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피호에 꽃배를 띄우고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며 3일 동안 밤을 새우며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때 널판지에다 숯불을 피워서 호수에 띄웠고, 주민들은 호수 주위에 초롱불을 밝혀 수령을 기쁘게 하였으며, 불꽃놀이를 구경나온 주민들도 함께 흥겨워하고 독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이러한 축하연은 선정을 바라는 지방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새로 부임한 수령에게 민관일치의 우의와 환영의 뜻을 보여준 것이다.

청초호 불꽃놀이가 중단된 것은 조선시대 말엽으로 불꽃놀이 중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어 그 뒤로부터 위험하다고 폐지했다고 한다.

(7) 만천광대놀이

만천 마을은 나룻배 싸움놀이 외에 해마다 한가위를 맞아 일년 동안 농사의 풍년을 감사하고 다음해에도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광대놀이를 행하고 있다. 놀이방식은 집집마다 쌀과 돈을 조금씩 거두어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농악소리에 맞춰 달맞이 놀이를 하면 액운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는 풍습에 따라 집집을 순회하면서 마당놀이를 한다.

물치 마을에서도 정월 대보름날 탈을 쓰고 노는 잡색놀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천동 광대놀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일제시대

제4장 일제시대

1. 행정구역의 변화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다.

이 때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에 의하면 면장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도문 연합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5년경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용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리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와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후기에 와서 청초호가 정기기선의 기항지로 개발되면서 청초호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일에는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 때부터 속초는 면 이름이자 동리 이름이 된 것이다. 이어서 1942년

속초의 근현대사

10월 1일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속초읍은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 리로 편성되었다.

2. 일제 시대의 땅이름

일제시대에 사용된 땅이름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당시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당시에 사용하던 땅이름 중에서 오늘날 지형의 변화와 함께 사라진 것도 있고 지형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를 위해 1910년 이전부터 지명과 지도 작업을 벌여 나갔다. 속초는 양양에 속한 지역이므로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1914년 도천면이 탄생하기 전 조사된 자료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일부나마 짐작할 수가 있다.¹⁰⁾

일제 시대(1914년 이전)의 지명

종별	지명	언문	위치	비고
寺刹名	神興寺	신흥사	도문면 토왕성리	
渡津名	靑草湖	속시기목	소천면 속초리	
浦口名	束津	속시	소천면 속초리	
城堡名	權金城	권금성	도문면 토왕성리	
	土旺城	토왕성	도문면 토왕성리	
嶺峙峴名	馬騰峴	늘목영	도문면 토왕성리	
	天吼峙	흐물지	"	
	牧牛峙	먹우지	도문면 상도문리	
	沙泥峙	싸리지	"	
	德峙	씩고기	도문면 중도문리	
	長嗎峙	장명고기	도문면 하도문리	

10) 『조선지리지자료』 (양양군편 참조).

속초의 근·현대사

종별	지명	언문	위치	비고
嶺峙峴名	南蕪峙	나무고기	도문면 하도문리	
山谷名	靑岱山	청디산	소천면 청대리	
	天吼山	훈우지	도문면 토왕성리	
	達摩山	달마산	도문면 토왕성리	
	中旺山	중왕산	도문면 상도문리	
	靑岱山	청디산	도문면 중도문리	
里洞名	論山里	론미	소천면 논산리	논뢰의 현지말음
	蘆洞	갈골	소천면 로동	
	束草里	속 시	소천면 속초리	
	扶月里	비달리	소천면 부월리	
	外瓮津里	싸독지	소천면 외옹진리	
	丁庫里	정고리	도문면 정고리	
	土旺城里	토왕성리	도문면 토왕성리	
	獐項里	로루목이	도문면 장항리	
	上道門里	붓도문	도문면 상도문리	웃도문?
	中道門里	중도문	도문면 중도문리	
	下道門里	하도문	도문면 하도문리	
	內物溜里	안물치	도문면 내물치리	
	大浦里	큰독지	도문면 대포리	
面名	所川面	소천면	양양군소천면	
	道門面	도문면	양양군도문면	
野坪名	所也坪	왓들우	소천면 논산리	
	何須遠坪	하수원드루	도문면	
	三城坪	삼생이드루	도문면 상도문리	
	함정평	함정드루	도문면 중도문리	

종별	지명	언문	위치	비고
	철坪	쇠판이드루	도문면 대포리	
강천계간명	노동천	갈골니	소천면 노동	
	상산천	상산니	도문면 상도문리	
	쌍천	쌍천	도문면 중도문리	
酒幕명	반부평주막	반부득주막	소천면 반부평리	
토산명	麻布	베	소천면	
	마포	베	도문면	
	백지	종우	도문면	
	土器	질그릇	도문면	
제언보명	대포리 후제언	너더리방축	도문면	
	상보	옷보	소천면	
	중보	중보	소천면	
	말보	쓰보	소천면	
	신보	시보	소천면	
고적명소	비선대	비선디	도문면 신흥사지내	
	와선대	와선디	"	
	계조굴	계조굴	"	
고비명	유물재비		도문면내 물치리	
	신흥사 사적비	비석	도문면	신흥사사적을 건립한 비

위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사라진 땅이름이 많다.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작은 골짜기나 마을 이름도 개발과 함께 사라지

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시대 초기와 달라진 땅이름

일제시대 지명	현재 지명	위치	설명
옹진→외옹치	외옹치	외옹치	
속진	동명향	동명향	영금정과 수복탑 일대
갈골내(노동천)	청초천	청초천	일제시대 최초의 기록임
비선대(秘仙臺)	영금정	솔 산	솔산 일대를 모두 비선대라고 함
솔산	-	영금정 방파제 옆산	지금은 바위만 남음
반부득 (반부평, 半扶坪)	-	청호동	부월리 앞의 뜰
도문천→쌍천	쌍천		일제시대부터 쌍천이라함
소천면	-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소야 (所也→所野)	소야		부월리, 논산리 앞의 뜰
토왕성 (土王城→土旺城)	토왕성	1926년 이후	일제가 땅이름 ‘王’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
쇠평골 (철평,鐵坪)	회평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배다리(주교)	청호동	청호동 갯배나무	주도로가 청호동을 관통함, 지금 갯배통로는 배로 건넌
나무고개	나무고개	대포동	속초자동차학원에서 농공단지 뒷길
바깥독재	외옹치	대포동	
안독재	대포	대포동	

1912년 지도 재구성





1940년 지도의 재구성



3. 인구의 변동

문헌을 통해 인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대정 14년(1926)에 발간한 『면세일반』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조선국세조사보고』가 있다. 이 두 자료를 보면 1925년 이후 20년 동안 속초의 인구는 배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25년 조사된 두 자료가 인구 총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¹¹⁾

일제시대 속초의 인구변화

년도	세대수	인구총수	남	녀	인구증감	1세대당 평균인원	성비	
① 1925	1,120	6,222				5.55		
②	1925	1,263	6,979	3,765	3,214		5.5	117.1
	1930	1,365	7,264	3,802	3,462	▲285	5.32	109.8
	1935	1,750	8,967	4,584	4,383	▲1,703	5.11	104.6
	1945	2,440	12,450	6,214	6,236	▲3,483	5.1	99.7

자료 : ① 『면세일반』, 1926. ② 『조선국세조사보고』

①의 자료는 현재까지 속초시의 귀중한 인구 자료로 활용되었고, ②의 자료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비교가 가능한 ②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조선국세조사보고』에서는 일시부재자를 빼고 일시현재자를 현재인구로 통계를 잡았으나, 『면세일반』은 일시현재자와 일시부재자를 제외한 것 같다.

첫째, 20년 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45년이 되면 20년 전보다 인구가 배가되며, 특히 1930년 이후 인구의 유입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둘째, 세대당 평균 가족수가 줄어들고 있다.

셋째,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인 성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징병, 징용, 학도병 징집에 의한 결과이다.

넷째, 속초의 인구가 10,000명을 통과하는 선은 1943년이다.

『조선국세조사보고』를 보면 1926년에서 1930년의 5년간 285명이 증가하고 있고,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매년 340~350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1930년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5년 동안 285명이 증가한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속초리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제말 속초항이 개발되었다는 점과 양양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속초에 개발되지 않은 농토가 많음으로 인해 외부의 유입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대지주로 등장하는 시기에 양양군내의 소작농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 도천면민 출생지별 인구

인구총수	도내생		타도생	외국에서 출생
	도천면생	타면생		
7,264	4,345	2,253	559	107

자료 : 『조선국세조사보고』

이러한 이유로 유입된 인구는 1930년의 총인구 7,264명중에서 2,919명이나 되었다. 이는 당시 인구의 40%가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주민이 자연증가보다도 훨씬 많았음을 말해준다.

1940년대 초반까지 유입인구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하였다. 수산업에 종사한 인구는 1925년에는 전체인구의 19%, 1930년의 경우 직업이 있는 인구의 16%에 해당된다. 이러한 통계치는 수산업이 인구의 유입원인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인구의 유입 원인은 농업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으로의 이동이었다. 이에 따라 유입인구에 의해 노리의 습지가 개발되고, 그 뒤쪽에 있는 산악지대도 차차 개발되어 마을을 형성한다.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양양 관내에서의 수평이동으로 전체 이주민의 약77%를 차지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온 식구가 이주한 것보다는 가족의 일부가 옮겨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인구와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1세대당 가족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토착민의 가족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주민이 이주할 때부터 작은 가족수를 유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931년 이후 1945년까지의 인구 유입은 매년 340~350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수를 계산해보면 1943년 드디어 속초의 10,000명 시대를 맞이한다. 10,000명은 도시로서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숫자인데, 만일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징병, 징용, 학도병 징집이 없었다면 더 일찍 10,000명 선을 돌파했을 것이다.

4. 사회

가. 3·1운동(1919년)

(1) 3·1운동의 계획

속초가 속한 양양군의 3·1운동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당시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4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되었다. 일제측 기록만 보더라도 7개면 132동리 중 6개면 82동리에서 4,600여명(실제 6,000명이상)이 참가한 대규모의 만세시위운동이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참가 인원 대부분이 농민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못자리 설치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군단위 규모의 만세시위운동으로서 전국 어느 지방의 운동보다도 대규모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유학계의 거사 계획은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의 이석범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석범은 보수 유학계의 지도자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석범은 고종 황제의 인산에 참례하고 돌아오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과 함께 도천면에는 김영경, 강현면에는 장세환 등 쌍천학교 졸업생들을 시켜서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하였다.

또 한편의 계획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개성 호수돈 여학교를 다니던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와 양양 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인계하여 거사 준비를 하던 중 유림 세력과 연결되어 추진하였다.

(2) 3·1운동의 전개

4월 4일

이석범의 지휘와 양양 감리교회의 계획이 합쳐져서 4월 4일 장날에 양양면·서면·손양면민 등 4천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손양면 가평리의 함흥기는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가 피살되고 경찰의 야간 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과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가 피살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5일

이 날의 시위는 도천면과 강현면, 그리고 손양면의 군중이 담당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에 모였다. 중도문리의 김영경(金英經), 부월리의 이종순(李種純),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 등은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몰려왔다.

도천면민은 오전부터 대포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오후에는 강현면 사무소와 물치 장터에 모여 시위하던 강현면민이 이곳에 와서 합세하였다. 이에 일제는 경찰 이외의 일본인을 새벽부터 배를 띄어 바다에 머물게 하는 등 두려움에 떨었다. 당시 강원도 장관의 4월 6일자 전신보고를 보면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5백

명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했고, 오후 대포리에 모였을 때를 8백 명이라 했는데 1천 명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대포 주재소 수석은 石田三郎(이시다 산로)이었는데, 이미 그들의 가족과 경찰이 아닌 일본인은 모두 배에 태워 바다에 피신시켰다. 시위대는 날이 저물자 “일본 경찰은 물러가겠다.”는 회유 설명을 듣고, 다음 날은 양양면으로 가서 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하고 해산하였다.

4월 6일

이 날의 만세운동은 세군데서 발생하였다. 하나는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이 양양면에서 시위한 것이고, 양양보통학교 4학년 학생 30명이 현산에서 만세를 불렀고, 또 하나는 김학구의 장례식을 계기로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도천면과 강현면의 시위 군중은 장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우선 그 때의 일을 강원도장관이 4월 7일 보고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

“양양군 대포리를 습(襲)하려 한 팔백 명의 군중 작육일(昨六日)에 지(至)하여 천 이삼백 명에 달하여 읍내를 습하였으나 병력을 공(恐)하여 폭행을 불위(不爲) 주모자 칠 명을 인치(引致)함에 차(此)에 인치건(引致件)을 경찰서장에게 청원하였으므로 간유 퇴산(懇諭 退散)케 한다. 당 동군 현북 현남의 양면민심 동요 불온(不穩)의 조잇음”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II, 714쪽.

위의 보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천면과 강현면 시위 군중은 전날 물치시장과 대포 항구에서 만세 시위를 하였는데, 이 날도 역시 전날의 주동자가 앞장서서 양양읍으로 몰려갔다. 삼베 주머니에 도시락을 넣어서 어떤 이는 독립을 위하여, 어떤 이는 독립이 된 줄 알고 일본 사람을 자기 나라로 쫓기 위하여 몰려갔다. 전날에 대포 주재소로 시위 군중이 갔을 때 그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미 배를 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세는 더욱 올라 있었다. 경찰들은 만세 군중들에게 “우리는 돌아 갈 테니 조용히 만세만 불러 달라”고 간청했다. 일반 대중은 일본인의 말과 태도를 보고 독립을 눈앞에 둔 것 같은 흥겨운 기세로 양양읍까지 행진하였다.

그런데 양양읍의 사정은 달라졌다. 4월 5일 일본군의 6개 대대가 3·1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 본국에서 증강하여 진주하게 되니, 양양읍에도 주둔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천면과 강현면의 시위 군중 특히 김원식 등이 이끄는 강현면 군중이 양양읍 입구 연창(連昌)에 다다랐을 때, 수비대의 군인들은 새끼줄로 길을 가로막고 일반인의 통과를 막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 군중들은 그곳에서 한참 대치하다가, 수비대의 포진에도 불구하고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양양읍으로 들어갔다. 양양읍에 들어간 시위대는 경찰서 주변으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이능렬(李能烈)과 김원식(金元植)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군중의 대표로서 서장과 군수를 ‘양양에서 떠나라’고 요구했고, 밖에서는 만세 군중이 특히 이동혁 군수를 욕하며 소리쳤다. 이 날 일본 경찰은 군중의 대표와 군중에 대하여 자기들 일본 사람은 돌아 갈테니 군중도 돌아가라고 회유하였다. 이리하여 만세 군중은 오후 늦어서 3, 40리 떨어진 도천면과 강현면으로 돌아왔다.

4월 7일

이 날은 현북면의 서당 생도가 중심이 된 만세운동과 서면 면사무소 습격 사건이 있었으며, 양양면에서는 천도교도들에 의한 만세운동이 있었다.

4월 8일

도천면 논산리에서 약간의 시위가 있었다. 4월 4일부터 계속 만세 시위가 일어나 논산리에서도 시위에 대한 대의명분론(大義名分論)이 일어났다. 원래 이 마을에는 중심 인물이 될만한 김주혁(金周赫)이 당시에 강원도청 주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는 없었지만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 천지가 만세 시위에 참가하는 형편이어서 당시의 구장 金周哲(김주혁의 종형)은 고광화(高光華), 황명찬(黃明燦), 박명원(朴明元), 고을주(高乙柱) 등과 함께 주동하여 집집이 한 사람씩 동원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있던 대포리를 목적하여 큰 길로 나아갔다. 큰길을 따라 부월리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도천면 사무소 회계서기 김우규(金宇圭)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우규의 강력한 만류로 대포리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해산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김주철, 고광화, 황명찬, 박명원, 고을주 등은 검거되어 양양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은 후 함흥 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김주철을 제외한 4명이 90대의 태형을 겪었다.¹³⁾ 태형을 겪은 4명은 이틀 동안을 가마에 엮드려 돌아왔고

13) 김주철은 당시 구장이었기에 다른 예로 보아 징역을 살터인데 다른 4명이 김주철은 관계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강릉지청에서 태형도 받지 않고 석방되어 이 마을의 미담으로 전해오고 있다.

집에서는 그 해 연중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하였다고 한다.

4월 9일

양양 만세 운동의 마지막 날로서 가장 심한 참상인 소위 기사문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이 날 현북면의 군중은 장날을 이용하여 양양 읍내로 가려고 하였지만 양양읍에 수비대가 주둔하여 인명피해가 많을 것을 예상한 김익제의 만류로 기사문리 경찰 주재소를 공격하기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하광정리에서 기사문리로 올라가는 길에 일본 군정은 시위 군중을 향하여 총격을 가했다. 이날 총격으로 9명이 피살되고 20여명이 부상하였다. 현북 면민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던 고개는 오늘날 만세고개로 불리어 온다.

(3) 3·1운동의 의의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4월 4일부터 6일간에 걸쳐 주민 6,000명이 참가한 전국민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장기간 전개되었다. 4월 5일과 6일의 시위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생하게 된 사람도 많았지만 잡혀가서 태형을 받은 이가 특히 많았다. 시위 후에 도망하였다고 해도 경찰이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농사철인 관계로 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은 이도 적지 않았다. 중도문리 이종인, 이정렬(李貞烈), 이재환(李載煥)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 자유형에 해당)의 태형을 받았으며 당초부터 잡혀가 태형을 받은 이는 손꼽을 수 없다.

5일과 6일의 시위의 주동급으로 감옥살이를 한사람은 다음과 같은데 이들은 모두 원산감옥에서 지냈다.

도천면

이능렬(도문리), 이종국(李鍾國, 도문리), 이춘재(李春在, 도문리), 김영경(金英經, 도문리), 김정식(金鼎式, 도문리), 이동렬(李東烈, 도문리), 이종순(李鍾純, 부월리), 박사집(朴士集, 대포리)

타 지역의 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초기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제 군경의 무차별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력 시위운동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나.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청년 운동

3·1 운동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후 양양 지역의 사회운동은 점점 쇠퇴하여 갔다. 이러한 가운데 1923년 오룡영, 김대봉 등에 의해 물치 노농동맹이 조직되었다. 물치 노농동맹은 양양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으로 당시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운동사에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운동에 큰 변화를 주었다. 즉 지식인 및 소부르주아지 중심의 민족운동이 피지배층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전면에는 청년층이 있었는데 양양에서도 농민운동의 시작과 함께 청년운동이 시작되었다. 청년운동은 오룡영이 주도가 되어 1925년 1월 11일 양양신청년동맹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양신청년동맹은 창립 이후 지역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양양의 다른 청년 조직인 호산청년회, 양양신청년회, 일혁청년회 등과 연합하였다. 새로이 조직된 양양청년동맹은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하여 전국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다. 농민조합운동

양양 지역의 농민운동은 1923년 물치노농동맹이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합법 활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양 지역은 지주 경영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급 자족적인 영세 소농 경영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지주 투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야학의 설립과 외지 유학생들에 의한 신문화 유입, 원산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 등은 농민운동에 점차 활기를 불어넣었다. 따라서 각 리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분회적 농민조합을 1927년 12월 군농조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의장으로 도천면 출신의 김병환, 부의장으로 오일영을 선출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20년대 후반부터 허울 좋은 문화정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노농운동 집회를 금지하고 운동가들을 구속하는 등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양양농민조합은 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하여 1931년 비합법적인 조직인 '혁명적 농조'로 전환하였다.

일제는 사회단체들을 엄중히 감시하면서 해산 구실을 찾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32년 3월경 야학생 격문 사건이 일어나자,¹⁴⁾ 도내의 21개 경찰서에서 무장 경관대를 차출하여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쳤다. 그리하여 3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 안에 검거되었는데 이 중 공판에 회부된 인원은 김병환 등 36명으로 이들은 4년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농민조합운동이 1931년 이후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민조합에 참여한 것은 현실생활의 타개, 토지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조합운동은 일제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라. 신간회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의 일환으로 1927년 2월에 조직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우파의 연합단체이다. 신간회의 설립 목적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으로서 양양지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될 정도로 군민의 기대가 컸다.

설립 후 신간회는 계몽운동의 전개와 생활·생존권 수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반일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이 날의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반일 감정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일제는 신간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포공진소년회 매욕 사건¹⁵⁾인데 결

14) 야학생 격문이 면사무소, 농민조합 본부와 지부에 게시된 사건.

국 이 문제는 양양 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가 관여하게 되어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립은 결국 일제의 방해로 심화시켰고, 신간회의 활동도 비공식적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1927년 말에서 1928년 초에 드러난 신간회의 조직상 결함으로 인해 창립 1주년이 되는 시기에도 구체적인 활동 방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연히 신간회의 활동 역시 이전의 사회단체들이 전개하여 왔던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29년에 이르면 조직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에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신간회는 중앙에서부터 합법적 단체 성격의 한계와 여러 차례 주요 간부가 검거되면서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양양에서는 1930년 4월 25일 제4회 정기대회를 열고 신간회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나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농민조합으로 넘기게 된다.

신간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성장해 온 민중운동을 규합하여 조직하고, 민족단일 전선을 이루었다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마. 우편소의 설치

『강원도지』에 보면 속초지역의 우편소는 대포우편소와 물치우편소가 도천면에 있었다. 우편의 전달시간은 서울과 양양간 2일내지 3일이었다. 우편소는 체신국의 허가를 받아 군청소재지에

15) 대포공립 보통학교의 교장이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학생 24명에게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설치하였고 이어 주요 면에까지 설치되어 우편·전신·전화·송금·저금·보험 등의 업무를 실시하였다. 『면세일반』에 우편저금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일제강점기 초기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도천면 우편소 >

현재 시청옆 중앙동 468-3번지에 건립한 일본식 2층 목조건물 청사로 1938년 12월 1일 준공하였다.

바. 교통

도로로는 원산·양양선과 인제·대포선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도로는 1등에서 4등까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원산·양양선은 2등 도로, 인제·대포선은 3등 도로였다. 2등, 3등 도로라야 자동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짐수레 8대, 소달구지 11대, 자전거 56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동해안을 따라 버스가 통행되었다. 원산·양양선은 청호동의 갯배 도선장을 통과했다. 현 도로인 청초호 서편 우회도로는 1939년 착공하여 1940년 준공되었다. 인제·대포선은 미시령을 통과했고 당시는 현재와는 달리 부월리에서 원산·양양선과 연결되었다.

철도인 동해북부선은 1937년 12월 1일 안변에서 양양까지 개통되어 운행되었다. 기차역은 부월리와 동명동에 있었다.

해운에 있어서는 일본 큐슈(九州) 모지항에서 출발하여 함경북도 웅기까지 가는 우편 선박이 매달 대포를 거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 속초역사(束草驛舍) >

동명동 450-195번지에 있었던 동해북부선 12개 역사 중 가장 오래까지 남아 있던 역사였다. 1941년 프랑스식 고깔형 집으로 건립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북진할 때는 화장장으로, 미군 항만사령부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고, 1956년 4월에는 명신고등공민학교가 들어서 불우학생의 배움터가 되었다. 1957년부터는 벽돌공장인 고려산업사가 입주하였다가 1978년 4월 10일 37년간의 애환을 간직한 채 철거되었다.

사. 종교 및 사회단체

『면세일반』에는 당시 종교로 불교, 천주교, 감리교가 기록되어 있다. 불교는 사찰 4개소에 남자승 34명, 여승 6명, 합계 40명이며 천주교는 포교소 1개소에 신도 145명, 기독교는 1925년 당시는 감리교회만 4곳에 신도 14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회개량단체로는 흥봉회(興鳳會), 산업장려회, 단주회(斷酒會),

속초의 근현대사

영농계, 양림계(養林契), 보상계, 번영회 등이 있었다.

보건 위생으로는 의사 1명, 약종상 1명, 적십자사 정사원 10명, 애국부인회 통상회원 1명, 공동변소 1곳, 공동 묘지 8곳이 기록되어 있다.

5. 일제시대의 경제적 상황

가. 토지의 약탈

일제의 경제 침략 기본 정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농토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한국을 자기들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양곡만을 약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토지도 빼앗아 갔다.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일본인의 손에 넘어갔으며 일본인 대지주를 양산시켰다.

총독부의 경우 광대한 국유지의 지주로서 군림하였는데,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소유한 토지와 임야의 면적이 880만 정보로 전국토의 40%에 해당하였다. 여기에 1920년대에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은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제 시대 속초 지역민의 생활도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5%나 되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층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다.¹⁶⁾

나. 도천면의 직업 분포

일제시대 도천면의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유입요인을 수산업이

16) 양양지방의 조개, 갈치, 미천, 서림 등 화전민부락은 초근목피로 연명한다는 당시 신문 보도가 있는가 하면, 소작농의 66%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당시 농업 인구는 1925년 유업자의 67%, 1930년의 경우 유업자의 62%를 차지한다.

조선후기 읍지(邑誌)에는 현재의 노학동 지역에는 마을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행정 구역으로 노리가 신설되어 습지대의 개발과 버dings의 개척으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되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될 때 노리는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의 4동리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노리 쪽의 불모지가 농토로 개발되어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인구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이때 수산업인구는 11~14%, 공업인구는 4%, 상업인구는 7~8%로 수산업인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농업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외지에서 살기 위해 이주한 농민들에 의한 것이며, 일제말 속초항의 개발과 함께 대포보다는 속초를 이주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도천면 직업별 인구 현황

년도		① 1925		② 1930			
총계		5,862		7,264			
		①	②			①	②
유업자	남	5,862	2,126	교통업	남		23
	여		508		여		1
농업	남	3,941	1,346	공무, 자유업	남	107	59
	여		293		여		9
수산업	남	1,112	270	가사 사용인	남		24
	여		44		여		22
공업	남		88	기타	남	251	171
	여		24		여		26
상업	남	434	145	무업	남	17	1,676
	여		89		여		2,954

자료 : ①은 『面勢一班』, ②는 『조선국세조사보고』

다. 일본인의 직업분포

도천면의 일본인들은 상당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시대 초기 양양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양양면에서 많이 거주하였으나 후기로 올수록 속초 쪽을 선호하게 된다. 1935년의 통계를 보면 도천면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양양군 전체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43%까지 증가하고 있다.

일제시대 도천면의 외국인 수

년도	일본인	중국인	기타
① 1925	100		6
②	1930	124 (387)	27 (98)
	1935	244 (557)	4 (36)

()안은 양양군 전체 인원
 자료 : ①은 『面勢一斑』, ②는 『조선국세조사보고』

일본인들의 도천면 거주는 인구의 증가와 비례해서 1930~1935년의 5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속초가 양양군 보다는 재산 형성에 유리한 요인이 있었고, 대포항과 일제 말기의 속초항 개발이 일본과의 교통편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 이주한 일본인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1925년 도천면에 거주한 일본인 20호 가운데 공무원·자유업은 4호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인 14가구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자국 내에서의 물건수송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1925년 도천면의 일본인 직업별 인구

직업 \ 호구	일본인	
	호 수	인 구
농업	2	8
어업, 제염업, 광공업	4	15
공무원, 자유업		
상업	14	55
계	20	78

자료 : 『面勢一斑』

당시 신문 기사에서 “외국인의 상점 외에는 볼만한 것이 극히 희소”하다고 한 것을 보면 양양군 내에 거주하는 소수 일본인은 상당한 경제력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업 등을 통하여 축적된 일본인의 자본은 토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일본인 지주를 양산해 내는 요인이 된다.

라. 상업과 금융

(1) 금융조합

대포 항구가 속초와 같은 역할을 하던 일제 초기에는 대포와 이웃하고 있는 물치 시장이 근방의 상업 중심지로 상당히 번성하였다. 그러다가 후기에 오면서 속초장이 속초면에 생겨 삼일과 칠일에 시장을 열었다. 물품거래는 주로 생활 필수품이었는데 부족한 물품은 외지에서 들여오기도 하였다. 『면세일반』에 의하면 좁쌀은 만주와 북간도에서, 밀가루, 맥주, 과일, 간장, 성냥, 철물, 물감, 석유는 일본에서 수입하였고, 면포, 청주는 부산, 원산에서, 소금은 부산에서 메밀은 인제에서 들어왔다.

지역생산품이 다른 곳으로 팔리는 것도 있었다. 누에고치는 양양읍으로, 어비는 부산, 원산으로 해조류는 인제로, 생선, 목재는 포항, 원산으로, 절인 생선, 한지, 우피는 원산으로, 소는 홍천으로 팔려 나갔다.

1927년 경 인구의 증가와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포에 금융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오늘날 농협을 전신인 금융조합이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어업조합도 생겼다. 1937년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바뀔 때에는 속초면에 새로이 금융조합이 생기고 어업조합은 수

산조합으로 명칭을 바꿔 옮겨왔다.

속초면의 금융기관으로는 수산조합속초지부, 속초어업조합, 농촌진흥회부인회, 대포금융조합이 있었다.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의 부의 정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조선총독부의 지원 하에 짧은 시간에 대자본을 형성하여 갔다. 그들은 초기에는 상업을 통하여 재산을 형성하다가,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진 후에는 대토지를 소유한 개인지주로 변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농업과 상업에서 조선인을 압도하였으며, 이런 모습은 저축액의 급격한 증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도천면의 저축 현황

구분	① 1925년(도천면)		② 1927년			
	우편저금		대포금융조합		양양금융조합	
국적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불입액	5,090원36전	912원50전	26,677원	15,510원	38,938원	102,817원

자료 : ①은 『면세일반』, ②는 동아일보, 1927. 9. 4일자.

1925년에서 1927년까지 3년간의 금융현황을 보면 조선인의 저축액은 5배 정도 증가한데 반해, 일본인의 불입액은 무려 17배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기관이 다른 곳이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일본인들은 이주 초기보다 경제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 토지소유 형태별 소작인수의 통계를 보면 상업에 종사하던 일본인 다수가 땅을 소유하여 개인 지주가 135명이고 일본인 회사가 경영하던 농장이 1곳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 일본인이

상당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마. 산업

(1) 농업

속초의 인구 중 65%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유일한 『면세일반』을 보면 주요농작물로 벼, 콩, 조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다.

1925년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종류	경작면적 [단위-묘]	수확고 [단위-두(斗)]	종류	경작면적 [단위-묘]	수확고 [단위-두(斗)]
벼	52,972	45,859	녹두	55	103
조	12,560	5,676.7	기장	19	617
콩	10,064	22,791	수수	233	477
찰벼	1,125	699	옥수수	13	124
보리	386	4,979.3	메밀	1,563	7,944
밀	147	1,382.9			

자료 : 『면세일반』

1925년은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쌀의 증산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쌀은 생산량 증가에 가장 힘쓰는 품목이었는데 이런 모습이 『면세일반』에도 보인다.

『면세일반』에는 개량농작물이라고 하여 따로 기록된 부분이 있다. 개량농작물의 생산량은 재래종보다 수확량이 많았다. 따라

17) 조선총독부, 『조선의 소작관행』 (하) 속편, 76-88쪽 참조.

서 농민들은 히노데라는 품종을 집중적으로 재배하였는데, 이런 현상은 일제가 얼마나 쌀수탈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일제의 미곡 수탈은 국내의 식량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밀, 콩, 감자 등도 개량농산물을 보급하였다.

1925년 개량농작물 생산현황

종류		경작면적 [단위-묘]	수확고 [단위-두(斗)]	종류		경작면적 [단위-묘]	수확고 [단위-두(斗)]
벼	히노데	22,800	24,899	밀	카리테 루니아	4,048	19,508
	오카야마	2,395	2,045	콩	금강태	285	176
	이세짱코	3,085	3,617	감자	금강산	91	3,266
	계	28,280	30,561				

자료 : 『면세일반』

또한 채소로는 무, 배추, 오이가 재배되었으며, 축산은 단연 소가 중심이었다. 소는 776마리로 농가 호수 640호보다 많은 짐이 눈에 띈다. 산술적 계산으로 한 집당 1마리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열악한 생산력과 소농이 대부분인 농촌상황을 고려해보면 한 집에 소 한 마리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인 농장이나 개인지주들 다수가 어떤 형태로든 축산업을 겸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외 닭과 돼지가 있었고 말 노새 나귀가 합쳐 7마리가 있어 짐을 운반하는데 사용되었다.

(2) 어업

일찍부터 일본은 한국 해안에 침투하여 우리보다 5배의 어획고를 올렸다. 일제는 1910년 이후 일본 어민을 이주시켜 많은 자본과 총독부의 후원 하에 황금 어장을 독점하였다. 그리하여 빼앗긴 어업권의 회복과 그 수호를 위한 어민의 어업 분쟁이 전국 어장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전체 유업자에서 수산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14%였다. 어획고에서 가장 많은 것은 명태와 목장어였다.

1925년 어업현황

어 선 수	어 획 고	주요어획고(圓)							
		정어리	청어	명태	어화 (魚花)	미역	어양 (魚養)	魚束	目張魚
100	58,746	1,485	2,115	29,389	150	2,128	70	12,325	29,689

자료 : 『면세일반』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부터 정어리와 청어가 많이 잡혀 해안 곳곳에 정어리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정어리 기름 짜는 공장도 생겼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정어리가 줄어들어 일본인 자신들도 일본이 패전할 징조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37년부터는 청초호 안에서 굴양식도 하였는데, 해방 때까지 지속하다가 인공 때 없어졌다고 한다. 또 말기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수산물 통조림 공장도 있었다.

다케나가(竹中) 통조림 공장

1944년경 장전에 있던 다케나가(竹中)라는 일본인이 부월리에 있던 나가시마(中島) 공장을 사서 현재 시내 군부대가 있는 장소로 옮긴 것인데 콩치, 고등어 등 어물 통조림을 생산하여 군수품으로 일선에 보내졌다. 해방이 되자 모든 시설물들이 어디론가 실려 갔다.

무라다(村田)공장

부월리에 있었는데 콩치를 말려 케스리 부시(削節)를 만들어 부식품으로 군납했다.

하마다(濱田)공장

주로 어비(魚肥)와 어유(魚油)를 생산했다.

6. 문화

가. 학교의 설립

속초에서의 최초 공교육기관은 일제시대 1면 1교정책에 의해 1919년 설립된 대포공립학교가 그 효시이다.¹⁸⁾ 근대 교육기관으로 최초인 이 학교는 개교 당시 4년제 2학급과 강습소 1학급으로 편성되었다. 그 후 1923년에 6년제로 승격되었고, 1936년 대포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41년 국민학교령에 의해 ‘대포국민학교’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한편 도천면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지고 속초면으로 승격되는 등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집중이 되자 1937년 영랑공립심상소학교가 두 번째로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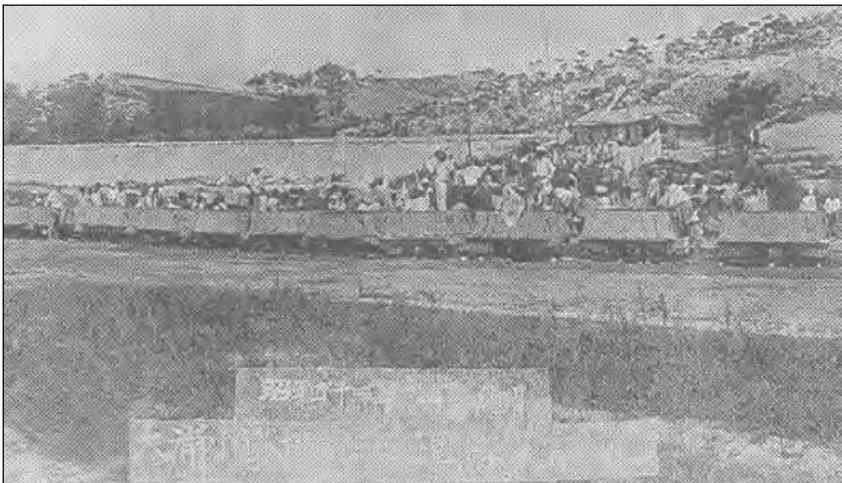
일제시대의 또 다른 학교로는 주봉국민학교가 있었다. 주봉국민학교는 1940년 4월 1일 대포초등학교 부설 주봉간이학교로 개설되어 1953년 주봉국민학교로 독립인가가 되었고, 1965년에 외설악국민학교로 개칭되어 도문동으로 이전하였다가 설악국민학교의 설립과 함께 흡수·통합되었다.

18) 총독부는 한국인 회유정책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1919년 3면 1교 정책을 추진하였고, 1929년에는 1면 1교 정책, 다시 1면 3교 정책을 추진하여 초등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일제 후기 속초지역 국민학교

학교명	수업연한	학급수	학생수	재학생국적
대포국민학교	6년	8	약 580명	한국인
영랑심상소학교	6년	7	약 500명	한국인
설악심상소학교	6년	3	50-60명	일본인
주봉 (대포국민학교 부설 야간학교)	2년	1	약 60명	한국인

일제후기에 오면 전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군수물자와 각종 물자의 생산에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학교는 ‘근로즉교육(勤勞卽教育)’이라는 표어 아래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각급 학교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일에 동원되었으며 학교는 병영화 되어갔다.



< 1938년 대포소학교 근로보급대 작업광경 >

공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전에는 양양군 지역의 교육 기관을 이용하거나 서당 등 개인 교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인구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학령 아동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별도의 교육 기관 설립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규보통교육기관인 대포공립학교가 세워진 후에도 한동안 서당 교육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속초에서의 최초 개량서숙은 청대리에 장성현(張聖軒)이 설립한 ‘청대서숙(靑垔書塾)’으로 설립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서숙은 대포 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도 4~4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였을 정도의 규모가 있었으며, 학생들은 기혼자에서부터 7~8세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연령 격차가 심했다고 한다. 청대서숙은 대포 학교의 영향으로 학생이 줄어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들의 집으로 전전하면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시대의 변천에 따라 폐쇄되었는데 이때 서숙의 명칭은 ‘청호서숙(靑湖書塾)’이었다.

해방 이전 이 고장의 서당 훈장들은 도리원 이교민(李敎民), 상도문리 오윤환(吳潤煥), 오각환(吳珏煥), 온정리 진동규(陳東奎), 장천리 엄내영(嚴乃泳), 엄주익(嚴柱益), 척산리 차명균(車明均), 논산리 장원섭(張元燮) 등이다.

서당은 조선교육령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가 엄금하고 있던 ‘조선역사’, ‘조선지리’를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항일 민족교육을 교수한 곳도 있었다. 서당이 민족교육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자, 일제는 1918년 서당규칙을 발표하여 서당에서 교수하던 『동몽선습』을 제외시켜 조선역사 교육을 금지하고 서당을 탄압하였다.

서당에도 갈 수 없는 서민들은 야학을 찾아갔다. 선구적 지식

인·노동단체들이 운영한 야학에서도 노동자, 농민, 상인 등 기층민과 그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우리 역사, 지리 등을 가르쳤다.

나. 일제시대의 문화재자료

일제시대 문화재자료로 새로 등록된 것은 없다. 다만 이미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속초리성지와 대포성지가 등록되어 있다.¹⁹⁾

속초리성지 도천면 속초리주위 약 삼백 칸, 토성, 불완전
대포성지 도천면 대포리주위 칠십 칸, 토성, 불완전

다. 민속

(1) 대포서낭제

대포서낭제는 연1회, 10월 초순에 길일을 택하여 제사를 올리며 3년마다 무당을 불러 풍어굿을 행하였다. 2개의 서낭당(할머니·할아버지 서낭당)이 있는 관계로 새벽의 제사 때에 시간을 똑같이 하기 위해 서로 햇불로서 신호를 보낸다.

제수(祭需)로는 반드시 소를 잡아 바치는데 이 때 쇠머리를 소라고 하지 않고 말이나 말머리로 칭한다. 이는 서낭님이 말을 타고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는 이의가 있다. 산신의 상징동물은 호랑이고 서낭신의 상징동물은 말이다. 말과

19)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1942).

서낭과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서낭제사에 말고기를 쓰는 것은 그 신격을 잡아 쓰는 말이다. 그래서 말머리는 말-마루-마루 곧 으뜸, 중요함의 뜻을 지닌 낱말이 말로 변천한 것이며, 여기에 머리가 첨가되었다고 보여진다. 머리도 ‘顛’보다 ‘ 으뜸(首)’의 뜻으로 쓰여져 첨어를 이룬 것 같다. 그러므로 말머리는 가장 의롭고 중요한 으뜸의 희생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무당굿 중심의 풍어제는 2~3일간 12거리가 베풀어지며 풍어제·풍년제·용왕제를 올린다. 이 때에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무당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축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지신을 올린다’고 한다.

각 서낭당에는 신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서낭신의 탕화가 걸려 있다. 할아버지서낭은 도포를 입고 갓을 썼으며 한 손에 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대감형의 모습이고 할머니서낭은 뒷머리를 틀어 올린 미인으로 의자 양옆에는 연꽃이 한 송이씩 솟아나 있다.

(2) 외용치서낭제

도내에서 전통적인 민속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의 전형이 외용치이다. 서낭당과 장승 및 무당이 있고 최근에는 30여 년간이나 세우지 않던 솟대를 다시 세운 이 마을은 70여 가구 390여 명의 주민이 반농반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시행하여 왔다는 서낭제는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서낭당에서 굿을 하며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드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춘추로 유교식의 당제를 올리고 풍어굿은 3~5년 단위로 가을제사 때에 올린다. 지난 해의 제주가 택일을 해오면 새 제주가 가려서 도가를 정한다. 도가는 금줄을 치고 목욕재계하며 쌀 3되

로 신주를 담가 서낭당 옆에 묻고 당에도 금줄을 친다.

별신제라 부르는 서낭굿을 할 때는 제주와 제관이 무당과 함께 ‘골미개서낭님’이라 부르는 암·수 장승에게 가서 굿을 하고 지신을 밟는다. 신간(神竿)에 강림한 골매기서낭신을 서낭당에 안치한다. 이어서 사흘간의 굿이 시작된다. 요즈음은 마을회관에서 굿을 한다. 부정굿-천왕굿(성황굿)-조상굿-칠성신굿-세존굿-군웅굿-성주굿-손님굿-계면굿-꽃굿-등놀이굿-뱃놀이굿 등의 순으로 12거리를 마치면 서낭제가 끝난다.

그리고 다음날 오시부터 축으로 나가 물굿(용왕굿)을 벌인다. 이어서 배가 있는 사람이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상을 차려 오면 소지를 올리고 복을 빌어준다.

이러한 용왕굿이 끝나면 바닷가에서 죽은 어부의 혼을 위로하는 오구굿을 한다. 무당은 물가에서 큰 원을 그리며 죽은 이의 혼을 부르면서 춤을 춘다. 그리고 흰 천으로 혼길을 낸다. 이때 왕무당이 손에 연꽃을 들고 천을 가르면서 혼을 위로하는 무가(巫歌)를 부른다. 초혼의 노래와 춤이 절정에 이르면 사자의 혼은 극락으로 인도된다. 그러면 당집에서 가져온 지화를 불사르고 박수무당인 화랭이가 거리굿에 해당하는 뒷풀이를 하는 것으로 완전히 끝이 난다.

용왕굿-오구굿-거리굿으로 이어지는 용신제는 마을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고풀이’이다. 이 명칭 그대로 외용치는 서낭제와 용신제를 작품화해서 1983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큰 굿을 할 때면 백여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해를 넘기는 경우가 생긴다. 더구나 가파른 산등성이를 의지하여 옹기종기 동해를 향하여 앉았던 마을이 1985년도 의장마로 사태를 만나 등성이 너머로 이주하였고, 축항에 가득하던

전마선도 보이지 않으니 외옹치 서낭곳의 맥이 끊어질 것 같다.

(3) 외옹치 장승제

외옹치마을은 동구에 남녀 장승이 서 있다. 이 마을에 사는 무녀(김옥순)가 ‘골매기서낭님’으로 지칭하는 장승은 ‘천하장군’(키 129cm, 둘레 99cm)과 ‘지하장군’(키 125cm, 둘레 94cm)으로 표기된 남녀 장승이다. 기교가 나타나 있지 않고 입체감도 별로 없으며 무서운 인상이라기보다는 놀란 듯한 모습이다. 예전에는 목수가 잘 깎아 세웠으나, 지금은 마을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깎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다. 나무장승이 썩으면 바꾸어 세운다. 새로 세우기로 결정하면 장정을 뽑아서 산으로 보내 알맞은 나무를 고르게 하고 그것을 도가로 옮긴다. 도가까지 나무를 옮겨올 때는 신가를 불러 잡귀를 쫓고 흥을 돋운다. 도가에서 암, 수 장승을 정성껏 조각하여 동제가 시작되기 전날 마을 어귀에다 세운다. 이 때에 제사를 드리고 치성한다. 별신굿(서낭굿)을 할 때는 동제가 시작되는 날 아침에 장승제를 올린다.

무관으로 차려입은 무녀들이 먼저 서낭당에 제물을 차려 놓고 고축을 한 후, 천왕대를 따라 춤추면서 장승이 있는 마을 어귀로 내려간다. 거기서 “좌별신 우별신 골매기 서낭님 액맥이 수맥이 -- 하우동참하옵소서”라고 고축을 하며 골매기청좌굿을 한다. 신간(神竿)에 골매기 남녀서낭(남녀장승)이 강신하면 목장승의 신이 안좌하신 것이 되어 장승제가 끝난다. 1985년도에 수해로 마을이 이전되어 장승을 다시 세웠는데 위치도 바뀌었다. 그 옆에는 새로이 솟대도 세웠다.

라. 문학

1906년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현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 하던 남궁억(南宮億)이 자유사회를 희구하는 시조를 발표하였다.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기초 다져 놓고
청초호 자유수를 영념어로 실어 넘겨
민주의 자유강산 이뤄놓고 보리라.

이 시조는 정치적 자유, 민족적 독립, 민주적 강산을 만들어 보 겠다는 소망을 시조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현대 시조의 모습을 띤 것이었으므로 신체시와 또 다른 신시조의 초기작품이 되었다. 남궁억은 시조작가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시조의 내용으로 담은 혁신을 가져왔다.

제5장

한국전쟁과 피난민의 정착

제5장 한국전쟁과 피난민의 정착

1. 해방과 한국전쟁 사이의 강원도

가. 분단과 한국전쟁

해방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했다. 38선은 양양군 현북면과 서면, 인제군 기린면과 남면, 그리고 춘천군 북산면과 신북면 및 사북면 등을 150 Km의 길이로 가로지르며 강원도를 거의 한 가운데서 양단했던 것이다. 이로써 강원도는 11개 군과 82개 읍·면을 가진 38선 이북과, 10개군과 91개 읍·면을 가진 38선 이남으로 나누어져 ‘두 개의 강원도’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리고 철원, 양구, 화천, 이천, 회양, 통천, 고성, 간성 등 8개 군은 완전히 북한지역으로 넘어갔다.

영북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말경 양양군 현북면에, 영서의 경우에는 9월 초 무렵 춘천군 추진리와 원평리에 소련군이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볼 때 소련군은 대체로 38선 이북에 머물렀으나 강원도에 미군이 진주하기 이전의 공백을 틈타 화천 주둔 소련군은 춘천 시내로, 양양 주둔 소련군은 주문진을 거쳐 강릉까지 남하하여 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강원도에 미군이 처음 등장한 것은 9월 20일 경 춘천이었고, 중대급 이상의 부대가 본격적으로 진주하기 시작한 것은 10월 말쯤, 미군정 체제가 확립된 것은 12월 초 이후였다. 그 동안은 일제 식민지의 영향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공권력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해방 이튿날

인 8월 16일, 강원도 도청 소재지 춘천에서는 강원도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어 서울에서 결성된 건준의 도단위 하부조직으로 편입되었다.

이 무렵 강원도는 38선을 경계로 도의 영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에 덧붙여 이념적으로 태백산맥을 기준하여 영동과 영서가 구분되기 시작했다. 춘천에 소재하던 건준 강원지부는 보수·우익계의 수중에 장악되어 미군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영동지방의 경우는 달랐다. 이 곳은 지리적으로도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시설도 나쁜 편에 속했다. 특히 강릉은 일제 말기에 인구이동이 많았고, 토지의 반 이상이 쌀농사 지역이라 소작농이 태반이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해방 직후 강릉을 위시한 영동지역은 좌익계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분출하여 미군 당국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삼척의 형편도 강릉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 삼척은 도내 유일한 산업지대로서 3만여 명의 노동자가 밀집하고 있었다. 이에 미군 당국은 춘천에 이어 삼척에 군대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영동과 삼척지역의 좌익계 정치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미군정의 증강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지만, 신탁통치 지지 선언에 따른 좌익계의 대중적 기반 약화 탓이기도 했다. 강원도내에서 미군정 체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병력이 도내 전역에 배치되자 대세는 미군정 혹은 미군정이 비호하는 우파세력으로 넘어갔다. 우파 정치 엘리트 가운데 특히 강원도에는 이승만이 주도하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가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이런 이유로 1946년 가을에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입의) 선거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헌국회 의원 선거에서 잇따른 압승을 거두게 되자 향후 강원도의 장래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민족분단이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찾아온 곳이 강원도였지만 막상 분단의 고착화 과정은 오히려 더디게 진행되었다. 38선이 강원도의 정치적 분단을 초래했지만 38선이 아직은 ‘국경’으로 공고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948년 정부수립 이후까지 남북한간의 주민왕래와 물물교환이 지속되었다. 춘천군 사북면, 인제군 남면, 그리고 동해안의 주문진 일대는 남북한간의 비공식적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때 쌀과 의약품, 광목, 고무제품이 38선 이북으로 많이 넘어갔고, 비료, 화공약품, 인삼 등이 이남으로 주로 내려왔다. 특히 춘천은 38선 이북으로부터 넘어오는 난민, 귀향자, 그리고 일본인들을 남하시키는 중계지(relay point)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질은 전운(戰雲)은 강원도를 먼저 찾아왔다. 분단이 불안정하였던 만큼 군사적으로도 불안정했던 것이다. 예컨대 1949년 5월 4일에는 춘천에 주둔하던 강원도 연고 국군 제8연대 소속의 두 개 대대가 집단 월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1946년 4월 국군의 모체가 된 국방경비대가 창설될 무렵 강원도에서는 지역을 연고로 한 제8연대가 창설되었는데, 1948년 10월에 발생한 이른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여파로 대대적인 숙군(肅軍) 작업이 진행되면서 제8연대 산하 두 개 연대가 이를 피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른바 ‘표무원(表武源)·강태무(姜太武) 소령 월북사건’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은 후일 북한군 남침에 선봉을 서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시작은 전라남도였지만 그 종결은 강원도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주모자들이 북한으로 패퇴하면서 오대산과

태백산 등지에서 무장 빨치산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 소재 유격대훈련소를 통해 대량의 게릴라를 이 지역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강원도 지역을 후방 교란을 위한 최적지로 인식한 것이다. 그 결과, 1949년 여름의 강원도는 사실상 한국전쟁의 전초전 양상을 드러냈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측의 북한 내 유격활동도 있었다. 이른바 ‘호림(虎林)부대 사건’으로 불려진 이 사건은 국군과 서북청년단이 유격대를 조직한 다음 1949년 6월 29일에 설악산 및 금강산 줄기를 타고 들어가 원산 남방 안변 지구까지 침투한 일이었다. 그리고 1949년 8월에는 춘천과 홍천, 그리고 인제 일대에서 남북한 정규군간의 전투가 무려 19일 동안이나 지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한 군대의 무력충돌은 1949년 가을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는 북한이 전면남침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몰두했기 때문이었다. 1949년 9월부터 38선 이북 강원도 인민위원회 주도로 남침을 위한 각종 도로와 교량의 신설 및 수리 작업이 착착 진행되었다. 또한 6월 14일에는 북한 인민군 제3사단이 철원에 도착하였고, 함흥에 주둔하던 제2사단 또한 춘천의 바로 코앞인 화천에 6월 17일까지 도착하여 전투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38선 이북 지역의 강원도 토박이 주민들은 대거 소개(疏開)되었다. 이렇듯 강원도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2. 해방 이후의 속초

가. 해방 이후 속초의 형성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된 후 속초읍은 6구로 나누어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모두 14개 리가 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여 피난민의 속초시 개척사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속초읍이 6구로 분화된 것은 속초항 건설과 청호동의 영향이 컸는데 1963년 속초 1구에서 6구까지의 인구가 평균 5천명 이상이 되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 속초읍의 인구는 총 50,703명이었고, 도리원 부근 2,531명, 청대 부근 2,095명, 대포 부근 2,450명, 중도문 부근 1,854명이 거주하였다.

속초의 동별 인구(1963) (단위:명)

리별	속초 1구	속초 2구	속초 3구	속초 4구	속초 5구	속초 6구	도리원 부근	청대 부근	부월 부근	대포 부근	중도문 부근	합계
인구	5,082	5,570	6,255	7,044	6,852	5,043	2,531	2,095	5,927	2,450	1,854	50,703

자료 : 『속초통계연보』, 1963.

이러한 비중과 함께 1963년 당시 동별 직업별 인구를 보면 전체 직업별 인구 23,579명중에서 어업인구는 7,197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다. 1963년의 속초통계연보에 의하면 속초리 1구 292명, 2구 647명, 3구 524명, 4구 996명, 5구 1,347명, 6구 1,098명 등이었다. 이들 어업인구는 속초5구, 6구, 부월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속초의 동별 직업별 인구(1963)

(단위:명)

구분 리별	총수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 사업	상업	운수업	서비 스업	기타
속초1구	2,320	58	292	2	76	91	33	394	28	121	1,225
속초2구	1,799	70	647	1	62	84	35	340	141	135	284
속초3구	2,035	9	524	11	73	268	15	778	33	239	85
속초4구	2,515	30	996	9	89	83	15	626	188	333	146
속초5구	4,272	91	1,347	38	130	167	26	925	48	339	1,161
속초6구	2,385	130	1,098	8	151	30	27	193	56	163	529
도리원	1,387	1,231	2			32	7	10		39	66
청대	1,244	801	208		4	3	3	55	8	66	96
부월	3,102		1,449		5	7		369	2	125	1,145
대포	1,388	358	634	2	5		1	71		39	278
중도문	1,132	882		1	54	25	1	55	3	26	82
계	23,579	3,660	7,197	72	649	790	163	3,816	510	1,625	5,097

자료 : 『속초통계연보』, 1963.

이러한 인구 분포와 직업별 분포는 2000년 8월 1일부터 2개월 간 속초시에서 조사된 호적부상 피난민 1세대들의 분포와 일치하게 된다. 그 세대수를 보면 호적부상 전체 1,654세대 중 직업별 분포는 총 617세대로 어업세대수를 보면 영랑동 8세대, 동명동 12세대, 금호동 16세대, 교동 32세대, 노학동 25세대, 조양동 2세대, 청호동 123세대, 대포동 6세대 등 총 224세대로 36.4%이다.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청호동, 교동 등은 속초 1~6구에 해당되어 이들 어업인구인 피난민들이 속초시 개척의 선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아바이 마을의 형성과 변화

한국전쟁 이후 속초읍에 유입된 월남민은 48,72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로 청호동에 거주하는 피난민을 출신지별 구분해 볼 때 92.9%가 함경남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호동 일대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거주 지역으로서 흔히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청호동 거주 피난민들의 월남직전 직업을 살펴보면 어업종사자가 70%로 조사되었고 그 이외의 다른 직업은 농업, 상업, 학생, 공무원 등이다. 청호동지역의 피난민집단은 함경남도 해안지역의 어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월남 당시 그들은 군트럭이나 도보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인 90%가 선박을 이용하였다. 이용한 선박은 본인 소유가 10%, 타인 소유가 38%, 군수송선이 7%로 소규모 민간인 소유선박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에 의해 형성된 청호동은 속초시가 시로 승격되고 중소도시로 성장하면서, 이질적인 문화와 도시적 생활양식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랫동안 초기와 유사한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1960년이래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도시화와 산업화정책에 따라 생활 기반이었던 수산업이 수산물 가공 등의 2차, 3차 산업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도 수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이 마을의 생활 기반이다.

청호동의 인구는 정착 초기인 전쟁 이후부터 1966년 중반까지는 속초시의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1966년에 1,301가구에 7,348명, 1976년에 1,262가구에 6,153명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속초의 근현대사

정착 초기 청호동의 인구는 1955년 속초인구의 9.2%를 차지하였으나, 1976년에는 8.5%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1991년에는 4.6%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부터 어업 부진 및 거주 이전, 1990년 대 후반 신수로의 신설 등으로 인해 현재는 5천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속초와 청호동의 인구조사

시/동 연도별	속 초 전 체			청 호 동		
	세대수	인구	세대당 평균인수	세대수	인구	세대당 평균인수
1955	5,350	11,350	2.12	454	1,046	2.30
1966	12,264	63,200	5.2	1,301	7,348	5.2
1976	14,801	72,042	4.9	1,262	6,153	4.87
1986	17,584	71,211	4.0	1,143	4,881	4.27
1991	21,012	74,905	3.6	1,155	3,437	2.98
1998	29,729	87,070	2.9	2,146	6,080	3.0

자 료 : 각 연도 속초 통계

3. 속초 피난민의 이주 과정

가. 이주 시기

속초에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이주해오는 시기는 대개 1951년 수복 이후부터 1960년대 초쯤이 된다. 특히 속초 정착촌 월남인의 경우 과반수는 속초가 수복되어 군정이 실시되던 시기에 이주하였다. 또한 1954년 11월 군정이 민정으로 이양되고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지역으로 소속되고 나서 1963년 1월 1일 당시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거의 모두가 유입되었다.

속초의 인구 변화 추세

(단위:명)

년도별	세대수	인구	세대당 평균인수
① 1925	1, 263	6,979	5.5
② 1949	2,321	11,406	4.91
③ 1953	3,661	16,213	4.43
② 1954	4,841	20,599	4.26
④ 1955	5,350	23,699	4.43
1966	12,785	67,079	5.2
1976	14,801	72,042	4.9
1986	17,584	71,211	4.5
1995	25,792	80,709	3.13
1998	29,729	87,070	2.9

자료: ① 『조선국세조사보고』 ② 『군세일반』
③ 『수복년감』 ④ 『읍세일람』



< 한국전쟁 피난민의 행렬 >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인 사회주의 북한 치하의 속초 인구는 약 1만 1천여 명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속초 원주민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1954년 양양군이 펴낸 『군세일반』이다.

군정 하에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지만,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원주 인구가 9,337명으로서 약 3년 사이에 2~3천여 명이 감소된 것으

로 나타나 있다.

또한 ‘철수민’으로 명명되어 있는 피난 월남인이 11,256명으로서 군정 당시 상당수가 속초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6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월남인들이 속초로 이주해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주 형태

정부는 속초에 피난민 정착촌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던 듯이 보

이는데, 결국은 추진되지 못하였다.²⁰⁾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속초에는 지속적으로 피난 월남인들이 이주해 들어왔다.

이주의 형태는 대개 개별적이지만 전혀 연고 없는 이동이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찾아오는 ‘연쇄 이동’²¹⁾이 많았다. 개별 이동은 혼자서 월남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동반 이동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연쇄이동에 의해 속초에는 이북 출신 중 함경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쇄이동의 형태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지역이 청호동으로서 이곳을 ‘아바이마을’로 오랫동안 불려왔다. 청호동 내에는 동향 출신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신포마을’, ‘자꼬치마을’, ‘영흥마을’ 등도 있었다.

다. 이주의 현실적 동기

속초 피난민 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고향에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으로 속초에 모여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이주의 시기에 따라 이주 동기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0) 동아일보 1954. 2. 23. 사회부는 강원도 춘천, 강릉, 양양 등지에 부동난민 20여만 명을 정착시킬 정착사업을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21) 연쇄 이동이란 일단 이동하여 정착한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동의 기회나 이점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실제로 이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을 제공받음으로써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을 의미한다.



< 1954년 건립된 수복기념탑 >

1950년대 민정 이양 후 속초는 어업 경기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62년경에는 어업인구가 농업인구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과거 어업에 종사하였던 월남인들로서는 강력한 유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1955년 이후 청호동으로 이주하는 월남인에게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점, 땅 값이 거의 필요 없고 집 값이 싸다는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보아 대다수 월남인의 공통된 이동 동기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착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월남 이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귀향의 열망을 안고 속초에 모여들었지만, 현실적으로 50년대 중반까지는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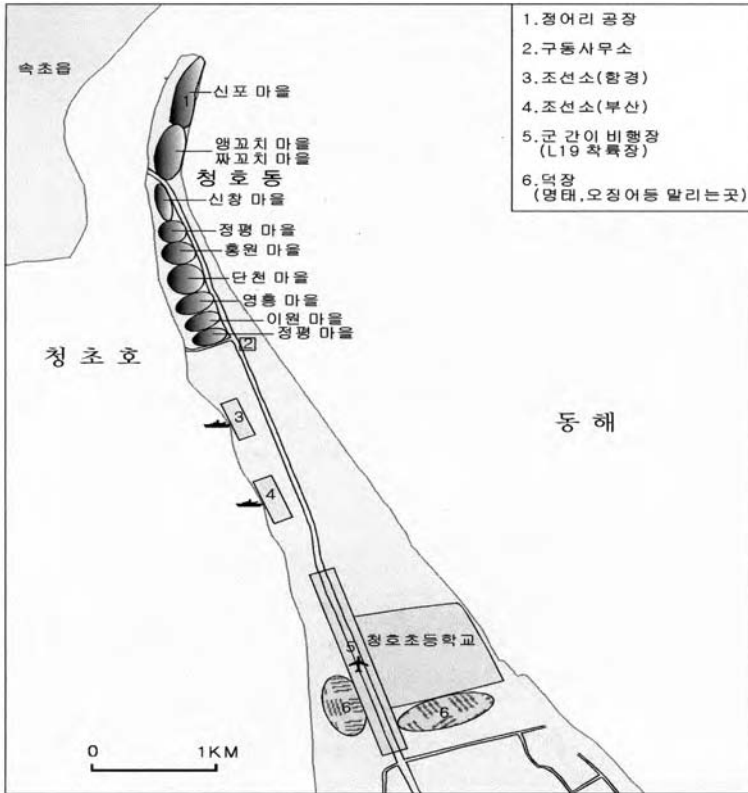
(軍) 계통의 일과 관련되어 이주하였고, 196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하였던 것이다. 또한 무연고 이주보다는 먼저 정착한 친인척이나 동향인들을 통해 속초가 ‘먹고 살기가 좋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이주한 것이다.

라. 개척에 의한 취락 형성 과정

일제시대 초에 청초호 유역 일대의 충적지 즉, 부월리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간이 상당히 진행되어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 만한 터가 없었다. 따라서 늘어나는 인구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는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때 청초호를 막아주는 긴 사주가 새로운 주거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곳에 서서히 취락이 형성되던 중 1945년 이후의 월남민과 1·4 후퇴 당시 남하한 피난민은 귀향하기에 쉬운 사주 일대의 바닷가에 피난민촌을 건설하였다.

일제시대에 반부평(반부득)으로 불리던 이곳은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지로서 청호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청호동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아바이마을’이라고도 한다.

한국 전쟁 때 이 곳에는 정어리 기름공장이 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흥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이 중에서 단천마을과 신포마을이 중심이었다.



< 한국전쟁 직후 청호동의 마을 형성 >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다른 38선 이북지방과 마찬가지로 이곳은 군정 당국의 소관이었는데, 군정은 이 지역에 피난민 정착촌 형성을 위해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다. 그래서 초기에 이 곳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현재의 청호동 1, 2, 3통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소규모 가건물, 판잣집 등을 불규칙하게 짓고 살았다. 재료의 대부분은 미 군용선에서 버린 것을 모아 사용하였다. 청호동 앞바다에

떠다니던 군용 목재나 목재소에서 나오는 죽더끼(피죽), 드럼통, 박스 등을 주워 재료로 활용하여 집을 짓기도 하였다.



< 현재 청호동에 남아 있는 전상수 가옥 >

군정 당시 청호동에는 식수원이 없어서 청초호 건너 중앙동에 있는 공동 우물을 이용해야만 했다. 군정 철수 후 정착민들은 군단이 개발한 지하 펌프가 있는 쪽으로 생활 터전을 확대하여 나가기도 하였다.



< 1950년대 읍사무소 앞에 있던 마을공동우물 >

피난민들은 청호동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대부분 속초항 부근으로 이주하였다. 청호동 일대는 초기 개척촌으로서는 유리하였지만, 이들 인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생업의 기반이 취약하였다. 부근에 함경조선소, 부산조선소, 군 간이 비행장, 명태덕장 등이 들어섰지만 이들이 피난민의 인구를 수용하기는 산업이 빈곤하였던 것이다.

속초리에서 청초호에 이르는 속초항 부근의 아주 좁은 해안평야와 그 뒤쪽의 낮은 구릉지에 해당되는 곳은 이후의 도시 개척

에 알맞았다. 하지만 피난민들이 내륙 산간 지역의 농지를 개간하여 자신의 터전을 개척하기에는 경작지가 너무나 협소하였고 가파른 산지 지형은 화전의 개간이 어려웠으며, 낮은 층적지는 이미 선주민이 점령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난민들은 속초항과 대포항을 중심으로 한 낮은 구릉지에 기대어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동명동 등대밑(삼호마을), 감리교회 밑(단천마을), 시내를 가로지른 구 철도부지와 동명, 중앙, 금호동의 산(언덕) 비탈에 피난촌이 형성되었으며, 1군단 공병단의 지원으로 웅덩이를 메워 중앙시장과 청학, 교동택지가 마련되어 피난민들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마. 이주민의 특징

속초 이주민의 특성은 속초의 성격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첫째, 산업 구성 면에서 농업 중심에서 어업 중심으로 바꾸었다. 둘째, 강원도 출신보다 함경도 및 이북 출신이 많은 곳으로 바뀌었다.

속초읍내 구역의 농어민 분포 (1955년 현재)

(단위: 호, 명)

속초 해정구역 농/어업별		속초1구	속초2구	속초3구	속초4구	속초5구	기타 지역	속초 전체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호동)		
호수 및 인구	호수	911	357	1,103	1,316	454	1,209	5,350
	남자	1,840	794	2,380	2,783	1,046	3,059	11,902
	여자	1,890	789	2,363	2,703	930	3,117	11,792
	계	3,730	1,579	4,743	5,486	1,976	6,176	23,699
농업	농가수	28	23	29	25	·	790	895
	농업 인구수	97	91	186	101	·	4,426	4,901
어 업	어가수	72	106	296	169	201	302	1,146
	어민수	126	292	653	644	529	519	2,763
	어민 가구원	288	530	1,480	845	1,005	1,518	5,666
	발동선	2	5	50	68	30	1	156
	범 선	10	27	42	34	33	120	211
	종 선	16	29	52	68	106	85	356

자료: 속초읍, 『읍세일람』, 1955, 14쪽.

1955년 직업별 인구를 보면 속초 전체 인구 가운데 농업인구가 4,901명(20.7%), 어업인구는 5,666명(23.9%)이었다. 이는 일제시대에 비해 어업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속초 시내에 해당하는 1~5구 지역은 전반적으로 어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현재의 청호동에 해당하는 5구는 농업인구는 전혀 없는 어업 중심 지역이다. 반면 1~5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하도문

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등은 대다수가 여전히 농업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

당시의 속초 지역과 직업분포로 볼 때, 월남 이주민들과 원주민들간에는 느슨하나마 지역과 직업 분포 상의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월남인들은 대개 속초에 들어온 후 주로 어업에 종사한 반면, 원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했다. 또한 월남인들은 주로 1~5구에 거주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이 바다에 가까워²²⁾ 어업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³⁾. 반면 원주민들은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농촌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함경도 출신 1세대 이주민과 그 후세들의 도시로 비취질 만큼 함경도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함남 영북지구 도민회, 함흥시민회, 원산시민회, 흥남시민회, 함주군민회, 정평군민회, 영흥군민회, 고원군민회, 문천군민회, 안변군민회, 흥원군민회, 북청군민회, 이원군민회, 단천군민회, 신흥군민회, 갑산군민회 등의 지회가 속초시내에 모여 있다. 또한 함경도민회 소속 읍·면민회도 적잖이 있고 서울의 이북5도청에 없는 리민회가 있기도 하다.

속초에는 함경도 월남 이주민 외에도 이북 출신이 적지 않다. 청호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신은 북강원도(휴전선 이북 강원도) 출신이다. 그 외 황해도, 평안도 등의 월남 이주민

22) 군정 당시 미군 부대나 군부대 관련 용역회사들도 대개 청초호를 끼고 동명동이나 중앙동에 있었다. 군부대에서 일한 노무자의 절대 다수가 월남인이었던 사정도 이주 초기부터 월남인들은 시내에 주로 모여 살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23) 월남인 가운데는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1~5구에 주로 거주했다.

도 소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속초는 원주민보다 월남 이주민(후세대를 포함)의 인구구성 비율이 더 높은 이주민의 도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 피난민의 정체성

속초 이주민의 특성, 즉 어민 출신이 많고, 함경도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속초의 성격을 바꾸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여기서 1950년대 초 속초가 형성되는 배경으로서 ‘바다’가 갖고 있던 군사적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부대에 의해 초기 많은 연관 산업들이 발생했고, 해양활동의 물적 토대도 마련되었다. 상당수의 군부대가 철수한 후에도 속초는 어업 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속초 피난민들은 자신을 ‘실향민’으로 인식하지만 속초 사람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주민 2세대는 부모의 인식과 희망에 긍정을 보내지만 자신은 남한 사람이며, 속초 사람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는 50년 가까이 월남 이주민과 원주민, 기타 지역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가운데 속초는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은 농촌 지역인 ‘면’단위 속초를 어업 기지의 ‘시’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 특히 청호동 이주민의 경우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창조하였다. 또한 이주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가운데 언어와 음식, 놀이 문화 등의 각종 문화에 있어서 강원도의 것과 함경도의 것이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로 빚어졌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전쟁과 속초지역의 사회변동

오늘날의 속초는 한국전쟁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초가 전쟁에 직접 휘말리게 되는 것은 1950년 10월, 전세가 역전되어 북진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말하자면 속초는 한국전쟁에 의해 수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1951년 초 1·4후퇴에 의해 속초는 다시 북한의 통치지역으로 넘어갔으나, 2월 11일에 재탈환되어 오늘날까지 휴전 체제 하에서 남한체제의 일부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속초의 운명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동안 속초는 한국전쟁을 매우 특이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태학적 성격마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는데, 그 첫째는 속초에 대해 약 3년 가까이 국지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38선 이북 출신 실향민들에 의해 속초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성장과 도시발전을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속초지역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실시한 세 번째의 군정이었다.²⁴⁾ 다시 말해 한국전쟁에 의해 수복된 속초에는 한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했고, 그 기간은 1953년 7월에 있었던 휴전협정 조인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미국이 속초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남북대치 하 군사·전략적 거점으로서 속초는 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군사적 질서와 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둘째는 과거 사

24) 첫째는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고, 둘째는 1950년 가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에 실시된 미군정이다.

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지역으로부터 적성(敵性)을 제거하고 순화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 기획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어쨌든 속초는 과거 이북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에 의해 남한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무려 3년 가까이 외국 군대의 군정을 경험했던 매우 이례적인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 역사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군정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던 속초지역은 이와 같은 미군정기를 보내면서 인구의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속초를 비롯한 38선 이북의 영동 여러 지역이 월남민들의 집합적 거주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속초 전체를 볼 때 월남민이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청호동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월남민 1세대와 그 후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1·4 후퇴때 피난민으로 월남하였다가 휴전선이 고착화되면서 ‘고향이 가까운 길목’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함경도 출신 주민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950년 12월 소위 흥남철수 때 유엔군을 따라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다가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올라오면서 고향 가까운 곳에 주저앉은 곳이 바로 속초였던 것이다.

5.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가. 산업구조의 변화

해방시기 월남 피난민 가운데는 경제난에 의해 남하하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1947년 당시 이북주민들의 주된 월남 동기 가운데 하나는 경제난이었다. 경제난의 주요한 이유로는 분단으로 인해 38선 이남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식량물량이 제한되어 북한의 식량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으며,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의 물자가 제대로 분배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일본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기계시설을 파괴하였고 해방군으로 들어온 소련군이 주요 공업 시설물들을 전리품으로 취급하여 본국으로 빼돌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져 실업자들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곧 이어진 전쟁으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식량난과 구직난이 심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하하였다.

실향민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월남하였으므로 그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다. 따라서 그들은 청호동에 모여 고기잡이를 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연고도 없고 땅도 없는 그들에게 자본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어업은 생계수단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1953년부터 1년 간 동해안과 경상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난민집단들이 속초 지역으로 많이 북상하였다. 이때부터 속초의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유입인구 역시 많은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속초는 1952년경만 해도 어업보다는 농업우위의 지역이었으나, 이들이 유입되면서

농업보다 어업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나.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산업구조

(1) 농업

속초지역은 해안에 접해 있는 구릉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한 지형을 구비하고 있다. 기후조건 상으로도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 온화한 해양성 기후 등은 농업 입지 여건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속초의 농지분포는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흐르는 쌍천 주위의 도문동 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평야지대를 지나는 청초천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피난민들이 초기 유입된 시기엔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속초읍내 구역의 농민 분포(1955년 현재)

(단위 : 호, 명)

구분	1구 (영랑동)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기타 지역	속초 전체
농가수	28	23	29	25	-	790	895
농업인구	97	91	186	101	-	4,426	4,901

자료 : 『읍세일람』, 1955.

속초리 1~4구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월남인이 모여들었지만 농토가 없던 5구, 즉 청호동에는 대부분 월남인들이 모여 살았다. 속초 인구 23,699명 가운데 농업인구는 4,901명이며 이중 속초의 1~5구의 농업 인구는 9.7%였고, 5구는 농업인구가 전혀 없었다.

(2) 어업

속초항의 근해에서는 대한해협으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와 오후츠크해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가 교차되므로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속초항은 원래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인해 어항으로 발전했으나 양양철광이 개발되어 철광석의 선적량이 늘어나면서부터 철광석을 운반하는 항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특히 1974년부터 철광석, 석탄, 시멘트, 유류, 선어, 양곡, 기타 해상 화물량이 증가하여 활기를 띠었다.

속초항은 속초시 수산업의 중심지로 1962년 4월 27일에 수산물 운송 지정항으로 되면서부터 동해안에서 중요 어항으로 손꼽히는 항구다. 현재 총702척의 배가 조업하고 있고, 중요 수산물로서는 오징어, 명태, 꽁치, 멸치, 노가리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요 어종이 시기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으며 더욱 최근에는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업에 대한 이직이 늘어가는 실정이다.

가) 어업의 실태

1) 어선의 종류

수복 이후 피난민들이 어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배는 피난 당시 타고 월남한 범선인 창이배와 강원도, 경상도 지방의 주된 범선인 오마리배가 주종이었으며, 몇 척의 기계선(동력선)이었다. 그러나 어업인구의 증가와 전문적인 직업화는 어선과 어구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50년대 중반에 들면서 범선이 동력선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주로 10~15톤급(소구엔진

10~12마력)의 소형 동력선이 만들어지고 60년대 들면서 20톤급으로 늘어났다.

2) 주어종과 조업실태

주어종은 명태, 오징어, 콩치, 양미리 등으로 명태잡이가 10~2월, 오징어와 콩치잡이가 5~9월, 양미리잡이가 10~12월에 이루어졌다. 기타 잡어로 가자미, 우러기, 이면수, 열갱이 등을 어획하였다.

가장 많은 어획량을 보인 어종은 명태였다. 범선으로 한 낚시 조업의 경우 이른 새벽에 출항하여 초저녁에 입항하는데, 강한 하늬바람(설악산내기)을 맞는 날에는 자정이 넘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동력선의 등장은 조업의 편리함은 물론 어획량도 훨씬 많아 1962년도의 어획량은 무려 30,000톤에 이르렀다. 이는 범선 조업이 대부분이었던 1955년의 7배나 되는 것이었다. 잡은 명태는 수협에서 위판이 되어 그날 밤으로 트럭에 실려 서울의 동대문 등 어시장에서 전국에 팔려나갔고 나머지는 덕장(德場)에서 말려져 건태(乾太)로 만들어졌다. 속초 변두리는 물론 거의 집집마다 덕장이 있었고 멀리는 진부령이나 대관령에서 황태(黃太)를 만들었다. 황태는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말려져 노랗게 변한 것이다. 이 같은 명태의 다량어획은 속초항을 북방어업전진기지로 만든 큰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1950년대 명태덕장 >

속초항은 겨울 명태잡이가 끝나면 어한기가 된다. 그러면 어민들은 소위 ‘남밭이’라고 했던 서해 조기잡이를 떠났다. 서해 조기잡이에서 돌아온 어민들은 푹치잡이를 하고 이어 오징어잡이를 하였다. 푹치는 생물 아니면 염장으로 처리되었다. 오징어잡이는 재래식인 한 가닥 조업이었으며, 집어등(集魚燈)은 카바이트 가스불을 쓰다가 동력선으로 바뀌면서 자체 발전한 전기등을 사용하여 어획이 몇 배로 늘어났다. 잡은 오징어는 건조가 위주였으나 장마철을 맞으면 건조가 어려워 염장법이 시작되었고 구공탄이 생기면서 연탄불 건조가 생겨났다. 푹치와 오징어잡이가 끝나면서 양미리와 함께 명태잡이가 시작된다. 그때의 양미리잡이 방법은 지금 같은 코걸이가 아닌 후리방식이였다. 두 척의 주선(主船)이 고기떼를 보고 그물을 빙 둘러친 후 종선(終船) 몇 척이 들을

던지면서 고기떼를 후리 안에 몰아 넣어 잡는 것이다. 잡은 양미리는 한두름(20마리)씩 벗집으로 엮어서 덕장과 집마당의 빨래줄 같은데서 말렸고 상당량은 염장을 하여 명태낚시 미끼로 사용하였다.

(3) 공업

속초지역의 공업은 어업의 호황으로 어선의 수요가 증가하여 조선소(造船所)가 생기면서 활성화되었다. 범선이 동력선으로 바뀌면서 선체(船體)와 기계의 제작 그리고 수리를 하는 공장이 하나 둘씩 생겨난 것이다. 물론 원자재인 나무판의 공급을 위한 목재소도 같이 생겨났다. 이때의 조선소는 영동, 원산, 제일, 삼화, 칠성, 공영, 함경, 원풍 등이며 기계 및 철물공장은 동방, 이성, 원일, 동아, 중석, 단천 등이 성업하였다. 목재소는 삼화, 함흥, 무림, 인제, 대성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계공장들은 60년대 들어 소구엔진이 디젤엔진으로 발전되면서 사양을 맞았다. 어선의 기계화에는 주물(鑄物)에 앞장 선 임정순의 역할이 컸다.

“속초에 온 것이 53년 3월이다. 광신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과자, 계란, 돼지고기 군납 등 안 해본 장사가 없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주둔 군부대의 철수로 장사가 시원치 않아 그만두고 어업은 대풍이었으나 어업방법은 대부분이 목선이어서 고기잡이는 힘들었고 조난사고도 빈번했다. 그래서 발동선 기계제작을 생각하고 손을 댔다. 동방기계제작소란 간판을 걸고 기술자의 힘을 빌어서 소구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10마력 짜

리에서 나중에는 80마력 기계까지 만들어 냈다. 선박의 소구엔진 제작 공장으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디젤엔진의 보급으로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었다.”²⁵⁾



< 1950년대 속초조선공업주식회사 >

속초시의 기업체 현황을 보면 1969년도부터 최근까지 매년 기업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속초의 기업체가 꾸준히 성장하지 못한 요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이고, 둘째 업종자체가 원료나 환경조건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며, 셋째 접적지역이라 심리적 투자기피현상과 군사작전지역상 지나친 제약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업종을 보면 시멘트 가공업이 가장 많고 다음이 식품가공업, 제재업, 조선업, 기계제작업 순이다. 특히 제

25) 임정순(함남 원산군)의 증언.

재업이나 조선업은 목선제조가 사양화되고 산림자원의 고갈과 함께 상당수가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던 것이다.

가장 발달한 공업 형태는 수산물 가공 공장이었다. 1930년대 속초항의 개발 이후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정어리떼를 따라 견착선이 몰려들어 청초항 내는 발동선이 호수를 메웠고 외항에도 거의 바다를 메우듯이 발동선이 모였다.

정어리 어항으로서 속초에는 정어리 가공공장이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 5개의 수산공장, 주복이공장, 오나까공장, 허준네공장, 금전수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업 주도형의 지역은 아니었지만 일제시대에 비하면 어업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는 농업 중심에서 반농반어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

1961년도 통계자료엔 연탄공장이 10곳, 도정업이 15곳, 조선소가 6곳, 어간유공장이 5곳, 주류공장이 5곳이었다. 1968년도엔 선박과 관련된 조선공장이 21곳 있었고, 연탄공장 10곳, 도정업, 제재소가 11곳, 어간유공장이 7곳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2년도 통계를 보면 부력기와 공장이 8개로 제일 많았고, 어선을 제작 수리하는 조선공장이 7곳, 어간유공장이 6곳, 연탄공장이 2곳이었다.

주요 기업체 현황

구분 \ 업종별	공장수	생산품목
1969	121	-
1970	84	-
1971	67	-
1972	51	-
시멘트가공	8	부력기와
조선공장	7	어선신조수리
어간유공장	6	어간유
연탄공장	2	연탄제조
기계제작업	6	선박기계수리
공예품제조공장	2	목각인형절구
제재업	3	목재
인쇄업	2	각종인쇄
제과업	3	과자

자료 : 『속초시통계연보』, 1973

(4) 상업

우리나라 상업은 전통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시장은 열리는 날짜에 따라 정기시장과 부정기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시장은 일정한 날짜 또는 기간 동안에 열리는 것으로 매 5일에 열리는 5일장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상시로 개설되는 상설시장이 포함된다. 반면에 부정기 시장은 당국이나 소비자, 생산자 등의 필요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어물시장, 채소시장, 야시장 등이 이에 속한다.

속초시장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속초는

수복 당시 영랑동이 중심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영랑동에 5일장이 서게 되었다. 피난민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국군과 미군부대가 계속 주둔하게 되자 상업경기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일상경제 생활의 수요를 5일장으로는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영랑동 5일 장터는 상설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영랑동 시장은 말이 상설시장이지 반듯한 점포 하나 없는 초라한 시장이었다. 피난민들 중에는 장사에 뜻을 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점상을 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상인들은 길 모퉁이의 판자집이나 초가집 추녀 밑에 좌판을 설치하고 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PX물품(양담배, 양주, 껌, 과자류 등)들을 진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귀향민과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수요가 급증하여 좌판이 20~30개로 늘고 쌀, 부식 등 생필품 거래도 시작되었다. 미곡상, 잡화상, 의류상, 부식품 가게 등이 속속 들어서 시장은 점점 번창해 갔다.



< 미제 초콜릿과 껌이 진열된 구멍가게 >

하지만 1953년 휴전에 이어 다음해 국군(1군단)과 미군부대가 이동하면서 영랑동 시장의 상경기는 빛을 잃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상인들은 수협 위판장이 있는 중앙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1956년도에는 중앙시장이 건립되었다. 이어 청학, 청호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중앙시장은 1990년도 구 상가건물을 정비하여 500여 개의 점포를 가진 현대식 건물로 변모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6. 속초 피난민의 문화

가. 문화의 양상

속초 피난민의 민속은 피난민의 정착과 삶이라는 남북분단사 내지 난민사와 일정한 연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해방이후 북한 공산치하를 탈출한 피난민과 한국전쟁 때 월남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바다를 통해 용이하게 이주가 가능한 함경남도 주민들이 속초로 몰려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월남하였고, 난민취락을 형성하면서 집단으로 생활하였다.

초기에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이질적인 언어관습과 행동양식, 생활풍습, 문화방식 등으로 토착주민들과 융합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며 토착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집단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은 공지나 해변가에 임시로 집을 짓고 살면서 토착민들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했으며, 곧 통일이 되어 공산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일념으로 생활해 나갔다.

이들은 청호동 일대와 동명동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특색이 강한 독자적인 ‘난민의 섬’(Refugee island)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초에 거주한 북한 피난민들은 나름대로 전통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 토착민과 일정한 민속문화적 교류를 가졌다. 그러한 예로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자놀음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정서적 갈등을 해결했으며, 도민회를 만들어 결집하면서 강인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고 주변 이웃과 공유하면서 원만한 적응을 이루었다. 또한 높은 교

육열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매진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조를 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속초 피난민과 그들의 민속은 지금까지 피난 1세대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으므로 시대적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는 복합적 민속문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나.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한 해 동안 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풍습으로 특정한 때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다. 이러한 세시(歲時)는 일상적인 무시(無時)와 달리 특정한 지역과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며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의 세시풍속은 날로 쇠퇴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은 민족적 전통의식의 결여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지지층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피난민들은 특수한 처지와 현실에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세시풍속을 전승함으로써 결속력을 다지는데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세시풍속이 속초의 세시풍속과 결합되어 또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도 주목된다.

속초지역 피난민의 세시풍속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의 지리적 특징과 피난민이라는 상황적 특수성 때문에 농촌 또는 산촌과 다르고 분단이전의 북한지역 특히 함경남도 세시풍속과 연관이 많다. 피난민의 세시풍속은 생업인 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례는 함경남도 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 피난민들은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등을 명절로 치고 추석은 남쪽의 명절로 인식하고 있다.

(1) 정초 세배

음력 정월 초하룻날 차례를 마친 후에는 피난민들은 단천, 함흥, 영흥 등 주로 고향 마을단위로 모여 살기 때문에 집단으로 세배를 다닌다. 아이들은 동네 어른을 찾아 세배를 다니는데 친척이 많지 않으므로 이북에 고향이 같은 동네 어른들은 주로 찾는다.

함경도 사람이 많은 청호동에서는 세배객이 찾아오면 북한식의 큼직한 찰떡, 가래떡, 인절미를 내놓고, 후배나 친구가 찾아오면 명란젓과 명태국, 별식으로 명태순대 등을 반주상으로 내놓는다. 북청사람들은 명절 때 명태순대를 ‘통심이’라고 해서 만들어 먹는다. 조상에게 올리는 차례상에는 직접 잡은 명태와 가재미를 찌서 반드시 올리며 어물로 만든 적과 말린 포를 제물로 쓴다.

(2) 정월 뱃고사

정월달이 되면 피난민 선주들은 뱃고사를 지낸다. 이들의 배안에는 성주를 모시고 있는데 한 해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한다. 정초에 택일하여 성황당에 먼저 가서 치성을 올리고 무녀를 데리고 가서 대신 빌기도 한다. 청호동 어부들은 ‘잘되면 북치고 안되면 가슴친다.’고 할 정도로 풍어를 기원한다. 뱃고사를 지낼 무렵에 상고가 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 마른 짚에 불을 붙여 이물에서 휘둘러 고물에다 버린다. 이것을 ‘부정쓸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바다에 나가서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

(3) 정월달 첫째 뱀날

정월달에 12띠로 처음 드는 뱀날을 상사일(上巳日)이라고 한다. 이 날을 ‘털없는 날’이라 하여 출어를 포기한다. 배가 출어하면 미끄러져 파선된다고 하여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고 출어하지 않는다. 대체로 털이 많은 짐승의 날인 유모일(有毛日)을 첫 출어날로 잡기도 하지만 요즘은 일기예보로 판단한다.

(4) 정월 대보름날 달점치기와 액막이

정월보름날이 되면 북청 출신 피난민들은 사자탈을 만들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한 해 동안 병도 없고 탈도 없다고 한다. 사자탈은 고인이 된 북청사자놀이 기능 보유자인 김수석이 만들어 보관해왔다.

대보름날 아침에는 부럼을 깨몰어 몸의 부스럼을 예방하고 약밥을 먹는다. 피난민들은 약밥을 찼 때 지누아리와 같은 식용 해초를 넣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과 명태젓갈을 반찬으로 먹는다. 저녁에는 성황당이 있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달을 보며 풍흉을 점친다. 청호동에서는 바다 축항에 나가서 망우리를 돌리다가 던진다. 삼재가 든 사람은 허재비를 만들어 부적을 붙여 버리거나 집안의 액막이로 약밥을 한지에 싸서 바다에 내던지면서 한 해 동안 평안하기를 빈다.

(5) 연날리기

정월 대보름날까지 연을 날리는데 주로 바다 쪽을 향한다. 참

나무 껍질로 손바닥만하게 배를 만들어 띄우고 거기에 연줄을 묶는다. 이렇게 참연이나 가오리연을 만들어 띄우다가 연 밑에 썩을 묶어서 불을 붙이면 줄이 끊겨 연이 하늘로 날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의 나쁜 액이 멀리 날아간다고 믿는다. 일부 주민들은 연에다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날리기도 한다.

(6) 한식날

피난민들은 한식날 동향별로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개사초를 한다. 군민회에서 조성한 공원묘원에는 피난 나왔다가 고향에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친을 자녀들이 찾는다. 피난민의 후손들은 북쪽 고향에 있는 조상들의 선산을 찾아볼 날을 기대하며 한식날을 맞이한다.

(7) 바람님날

음력 2월 초하루를 ‘영동날’ 또는 ‘바람님날’, ‘영등할머니날’이라고도 부른다. 어로작업은 비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 날에는 바람님을 잘 모신다고 한다. 대체로 70년대까지는 성의껏 잘 모셨다고 하는데 명태에 소금을 넣어 맑게 끓이고 메를 지어 식구수대로 수저를 꽂고 치성을 올린다. 음력 2월 15일 날 하늘로 올라가고 20일되면 수부신까지 모두 올라간다고 한다. 이 기간에는 색깔있는 옷을 입지 않고 상가집에 가지 않는다. 바람님의 노여움을 타면 무서운 ‘서마나을’바람이나 ‘원산내기’와 같은 매서운 바람이 불어 해난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8) 동짓날

동짓날이 되면 피난민들은 오구랑 넣은 팔죽을 해서 먹는다. 새알처럼 생긴 옹심이를 함경남도 방언으로 오구랑이라 한다. 오구랑팔죽의 오구랑은 수수로 작게 만들어 수 십 개를 넣어서 끓여 먹는다. 일부 집에서는 집안과 밖에 뿌려서 액을 막기도 한다.

다. 통과의례

통과의례는 한 개인이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평생동안 중요한 고비를 통과하여 넘길 때마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의례로 일생의례라고도 하며 관혼상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통과의례는 출생의례, 성년식, 혼인례, 환갑, 회갑례, 상장례, 제례 등이 있다. 민속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북쪽지방은 상례에 밝고 남쪽지방은 혼례에 밝다고 하는데 북한 피난민들이 사는 속초 지역의 경우는 대체로 함경도의 통과의례와 차이가 없다.

(1) 산육풍속

『태교신기』(1877)에 의하면 ‘스승 십 년이 어미 열 달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습속은 기자풍속(祈子俗), 산전풍속과 산후풍속, 육아풍속으로 나뉜다.

피난민들의 기자풍속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산에 가서 바위에 빌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리거나 성황님께 빈다. 집안에 산모가 있으면 아궁이를 수리하지 않고 문구명을 바르지 않으며 굴뚝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개나 닭, 돼지 같은 것을 살생하

지 않으며 상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태몽은 아들의 경우 흰구렁이, 붉은 고추, 고구마, 호랑이, 밤, 배 등이며, 딸은 파란 고추, 또아리, 호박, 꽃, 가위, 실 등이라고 한다.

주부들이 임신하면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며 출산 후 첫 칠일까지는 미역국과 밥만 먹는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며 제사에 참가하지 않고, 물동이를 이지 않고 절구질을 하지 않으며, 아기 눈에 삼이 선다고 못을 박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삼칠일까지 지킨다.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는 원새끼로 끈 금줄을 매는데 소아피(술가지)를 썬 찌질(대문간)에 건다. 아들은 숯과 고추, 술가지를 달고 딸은 숯과 술가지만 단다.

삼신은 아기 머리맡에 모시는데 세 분을 삼칠일 동안 모신다. 아기의 백일에는 밥과 국을 해서 동네사람과 나누어 먹으며 수수떡과 백설기를 하며 백설기는 백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좋다고 하며 수끼떡(수수떡)은 바람을 물리치라고 만든다. 첫 돌이 되면 돌상에 책, 연필, 돈, 쌀, 방망이, 실, 붓 등을 올려놓고 ‘돌잡힌다’며 아기가 잡는 것으로 미래를 점친다.

(2) 상제례풍속

상제례(喪祭禮) 풍속은 혼례와 달리 전통성이 강하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정착한 피난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격식을 중시하는 상제례를 통해 정신적으로 결속하기도 한다. 함경도 피난민의 경우 상례는 재산이 없는 사람은 3일장을 지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5일장이나 7일장을 지내기도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요즘에는 보통 3일만에 내간다고 한다.

상례는 크게 나누어 초종(初終), 염습(殮襲), 성복(成服), 문상

(問喪), 치장(治葬)으로 나뉘는데 초종 즉 입종 때는 고복(梟復)을 하는데 ‘혼부른다’고 한다. 남자의 경우 ‘아무개 생 아무개 복복복’ 이렇게 외치고, 여자의 경우는 아무개 부인이라고 말한다. 고복이 끝나면 ‘수세건음’을 한다. 망자의 손을 펴서 배 위에 올려놓고 발을 똑바로 세운 다음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다음에 한지를 세 번 두르거나 베로 손목과 발목, 허리를 묶는다.

이것이 끝나면 역복(易服)을 하는데 상주는 직령으로 갈아입고 남좌여우(男左女右)라하여 망자가 남자일 경우는 왼쪽 팔, 여자인 경우는 오른쪽 팔을 끼지 않고 통건을 쓴다. 호상(護喪)은 상주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일처리를 한다.

염습은 습과 소렴으로 구분되나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아주 묶어 입관하는 것이다. 수의는 ‘습의’라고도 하는데 생시에 마련해 둔 속옷, 중의, 바지, 속적삼, 적삼, 저고리, 덧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힌다. 이것이 끝나면 ‘반함’이라 하여 쌀을 불려 망자의 입에 떠 넣는다. 이것은 저승에 갈 때 사용하는 식량이라고 하는데 세 번하면서 ‘천석이요. 만석이요’라고 외치면서 동전을 넣어 저승 노자로 쓰라고 하고 ‘백냥이요. 만냥이요’라고 외친다.

다음은 교포를 쓰는데 시신을 묶은 다음 입관하고 천금을 덮는다. 그리고 관뚜껑을 덮은 다음 결관을 하고 관 위에는 명정을 써서 덮는다. 이렇게 염습이 끝나면 성복을 한다. 성복이 끝나면 혼백을 접고 궤연을 설치하여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한 후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는데 이 과정이 끝나는 3일장 후에 치장을 한

다. 장지가 결정되면 출상 당일 발인제를 지내는데 속초 피난민들은 각 지역 도민회에서 마련한 장지로 향한다.

제례는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 절사(節祀)라고 한다. 설과 정월 대보름날, 한식, 추석, 동지 등에는 차례를 올렸으나 피난민들은 설과 한식, 추석을 주요한 명절로 꼽는다. 대부분 이북식으로 제사를 지내므로 초저녁 제사는 없고 주로 새벽 자시(子時)경에 지낸다.

조상제례는 시제(時祭),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는데 북한 피난민들 가운데 청호동에 거주하는 함경도민 가옥은 대부분 백사장에 임시로 지어진 것이므로 특별히 옛날식 사당이 설치된 가옥을 볼 수 없고 집안에 위패를 모시는 정도다.

기제는 삼 년 이상 지난 망자에게 올리는 제사로 대부분 고조까지 지내고 그 위는 시제나 절사만 지낸다. 절사는 명절에 묘지에 가서 지내는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직계조상에 제를 올린다. 제사 음식은 일반적으로 ‘치’자 들어간 생선은 쓰지 않는데 도치를 싱어, 새치를 임연수라하여 제수로 사용한다.

제사 음식의 그릇수는 반드시 홀수로 장만하며 날회는 쓰지 않는다. 김치는 씻어서 담고, 닭은 대꼬치에 꽂아 구으며, 무숙채는 반드시 올린다. 떡은 편트에 고여 담는데, 제편, 약계, 중계, 인절미, 절편, 솔편 순서로 고인다. 떡은 차좁쌀로 만든 조찰떡을 비롯하여 시루편과 찰떡을 쳐서 밀대로 밀고 썰어 기름치고 벌철에서 구워내서 물엿을 바른 자바귀떡을 놓는다. 그 외에 제사에 쓰는 과줄은 찹쌀을 붙여 큼직하게 만들어 높게 고이며 하얗게 만든다.

라. 민속신앙

민속신앙은 민간신앙, 민속종교, 민중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대중에게 전승되는 자연적인 종교를 일컫는다. 민속신앙은 집안에서 신봉하는 집안신앙, 마을단위로 행해지는 마을신앙, 무속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무속신앙 그리고 점복신앙, 풍수신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민속신앙은 시대의 추세와 외래종교의 유입과 부흥에 따라 날로 쇠퇴되어 가는 실정이다.

속초 피난민들이 모여사는 청호동의 경우 개인적으로 성주제나 터고사를 지내고 선주들은 배성주제를 지내고 있으며,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성황제를 지낸다. 또한 무속신앙과 점복신앙도 숭봉하는데 3년 또는 5년마다 풍어굿을 하며 개인적으로 점을 치거나 풍흉어에 대한 예고를 믿고 출어나 조어에 따른 금기를 지키고 있다.

(1) 성황제

성황제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한국의 마을신앙으로 이를 통칭하여 동제 또는 동신제라고도 부른다. 이 외에도 마을 수호신으로 모셔지는 동신은 산신, 국수신, 장군신, 용신, 장승, 솟대 등이 있는데 신앙적 성격상 혼재되기도 한다. 성황신은 마을과 관련된 남녀 혹은 어느 한쪽의 성황신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데 성황당에는 이외에도 토지신, 여역신 등 세 신위를 함께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호동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성황제를 지내는데 어촌계에서 주관한다. 대략 40년 전에 선주들이 풍어와 안전을

위하여 고사를 지내던 야산 위에 당집을 지었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남녀성황신의 화상을 걸었으며 남성황신은 수염이 긴 노인의 모습이고 여성황신은 족두리를 쓴 여인이다.

성황제는 피난민을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믿는데 제물은 삼색실과와 어물, 소머리를 반드시 올린다고 한다. 마을 제사는 제관 중 고령자로 부정함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며 성황제 이외에도 정초에 첫 출어 할 때와 어로작업이 부진할 때는 여기에 와서 빈다. 또한 외지에서 동해안으로 고기 잡으러 온 어부들도 풍어를 위해 성황당에서 풍어를 빈다고 한다.

(2) 용왕제

어업에 많이 종사하는 피난민들은 바다신을 의지하는데 대표적인 신격이 용왕신이다. 그러므로 동해바다의 해신인 동해 용왕신에게 3년 또는 5년마다 ‘배신굿’이라하여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풍어제의 일종으로 첫째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의 성격, 둘째는 바다에 나가 사고 없이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의 성격을 갖는다.

용왕제 때 행해지는 곳은 풍어굿과 수살굿이 있는데 풍어굿은 부정굿, 성황굿, 성주굿, 조상굿, 심청굿, 군웅굿, 제면굿, 손님굿, 장군굿, 칠성굿, 세존굿, 별상굿등 모두 12거리굿을 하는데 대개 2~3일간 행한다. 용왕제는 어촌계에서 주관하며 동해안별신굿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무녀들을 불러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한다. 용왕제때 행해지는 풍어굿은 축원굿 계통이고 수살굿은 망자의 영혼을 건지는 오구굿 계통이다.

(3) 수살굿

수살굿은 어로 작업중 해난사고를 당한 망자를 위한 굿이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닿아 몸이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살아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혼백을 떨쳐 버리기 위해 무녀를 불러 굿을 하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수살굿의 절차는 먼저 ‘혼부름’을 한다. 무녀와 화랭이, 사공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육지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지고 간 산 닭다리에 끈을 묶어 바다에 던진다. 이때 그릇에 밥을 담아 끈으로 묶어서 같이 던진 다음 남자 무당인 화랭이가 혼을 끌어 올리는 대나무인 ‘인혼’에 망자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매달아 돌리면서 ‘금일 영가 아무개 영가’라고 세 번 부른다.

이것은 고복의례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배에 있는 상주가 대답을 한다. 화랭이는 ‘젖은 옷을 벗어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 입고 육지환생하옵소서.’라고 고축을 한다. 이 과정은 상례의 초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혼대를 몇 차례 더 혼든 다음 내려 놓고 닭과 밥그릇을 끌어 올린다. 올라온 닭이 죽기 않으면 혼백을 끌어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화랭이는 끈을 당기며 대다라니경을 외운다. 바다에서 건진 혼백을 담은 돛자리와 위패를 굿당으로 모신다.

두 번째는 ‘수살잡귀구축’으로 죽은 닭을 망자의 육신으로 상징하며 여기에 망자의 혼백이 실렸다고 여긴다. 물에 빠져 죽은 망자의 혼백이 미망인에게 덮히면 무녀는 복숭아나무로 돛자리를 때리며 ‘온다. 귀신아. 물에 수살귀신, 귀신들, 일척, 월척, 감척, 수구사자 귀신들, 한 많고 원많은 귀신들아, 잡귀잡신들 물러가

라.’고 외우며 수살잡귀를 쫓는다. 이렇게 해야 미망인이 제 정신이 들고 아픈 몸이 치유된다고 한다.

세 번째는 ‘길가름’으로 미망인 혼백을 길가름 하는데 이는 혼백의 극락왕생을 위한 절차다. 상주와 친척들이 상복을 입고 광목천 옆에 길게 서면 무녀는 돛자리와 혼백상자를 안고 춤을 추면서 광목천을 가르다. 무녀가 천을 가르며 혼백상자를 이끌고 나가면 상주들은 천위에 노자돈을 놓는다. 무녀는 천이 갈라져 두 갈래가 되면 이것을 잡고 극락춤을 춘다.

마지막은 ‘극락춤’으로 무녀가 선소리에 맞추어 출상소리를 하면 상주들이 뒷소리를 한다. 이 모습은 발인과정과 같은 것으로 무녀와 함께 극락에 도달한 혼백을 위해 빠른 장단으로 극락춤을 추고, 가정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한다. 극락춤은 상주뿐 아니라 평소에 망자와 친했던 주민들이 어울려 망자의 혼백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오구굿의 한 의식이다.

(4) 배성주제

배성주제는 배에 모신 성주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흔히 ‘뱃고사’라고 한다. 이것은 선주가 개인적으로 치성을 올리는 것인데 집안처럼 배를 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배성주신에게 제를 지내는 경우는 배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마을에서 성황제를 지낼 때, 첫 출어시, 첫 수획시, 흥어나 풍어시, 매년 정초무렵에 안전과 만선을 기원할 때 등 다양하다.

배성주는 배를 지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한지를 한쪽 변이 10cm쯤 되도록 모나게 여러 겹으로 접어서 돈과 청홍실을 넣어 어부들이 잠자는 ‘방장’이나 고기를 잡아 담아 두는 ‘큰대명’에 모

신다. 배성주신을 모실 때는 제물로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쓰지는 않는다.

절차는 개인 고사형태로 진행되며 보편적으로 무당을 청해서 고축을 하며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특별하고 엄격한 금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배성주의 신체는 한지와 실을 묶어서 걸어 두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길지형(吉紙形)이라 한다. 피난민들이 사는 청호동 어부들은 이북에서는 단지를 모시는 단지형이었는데 월남해서는 이곳 풍속에 따라 길지형이나 뱃기형으로 바뀌고 있다. 신체는 무신체형, 지방형, 뱃기형, 서낭단지형, 서낭함형 등으로 다양하다.

선주들이 처음에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 해 처음 잡은 생선과 메, 떡, 술 등을 차려놓고 축원을 한다. 다음에 배성주신을 상징하는 한지를 거는데 이미 달아놓은 한지는 불에 태운다. 배성주의 성별은 선주의 생기에 맞추어 무녀가 정한다. 남자성주신은 한지만 매달고 여성주는 삼색천을 거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여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마. 민속극과 놀이

(1) 북청사자놀이

민속극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으로 월남한 피난민들에 의해 1950년대부터 속초에서 연회되고 있다. 속초에 모여든 함경남도 사람들이 집단화되자 1957년 정월대보름날 처음 북청사자놀음이 공연되었으며 1959년 5월 2일 북청동향친목계가 구성되면서 북청사자놀음 공연이 결성되었다. 당시의 북청도청 계

원은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 36명이었다. 이들은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북청사자놀이 공연, 장의, 부조사업 등을 하였다.

1957년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 정월대보름날부터 10일 동안 사자놀음이 행해졌는데, 당시 속초에는 북청에서 13세부터 사자춤을 추고 19세 때에 애원성을 잘불렀던 죽평리 출신 김수석이 거주했으므로 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에 임시로 사자탈과 통소, 복식 등을 새로 만들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사자춤을 추었으며 1958년 김수석이 만든 사자탈이 현재 남아있다. 연희자는 김수석(사자앞채, 애원성), 오동술(사자뒷채), 이종욱(양반), 양계건(꼭쇠), 박씨(사당춤), 장남우(의원), 김봉수(승무), 김원사(총각), 마유득(곱추), 김효환(도깨비), 이종호(중국인), 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등 길잡이 놀이패 몇 명 등이었다.



< 1950년대 북청사자놀이 >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로부터 금호동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도청을 건립하였으며 1966년 10월 24일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김수석, 오동술, 이재섭 등이 참가하여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으면서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1970년 4월 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인가되고 김수석이 기능보유자 제84호로 인정받았다.

북청사자놀음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2~3일간 행해지거나 설악문화제 때 공연되는데 등장인물은 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춤 2명, 거사춤 2명, 사당춤 2명, 칼춤 2명, 무동춤 4명, 꼬새춤 2명 등이 참가한다. 악기는 통소 3~4개, 팽파리, 장고, 북, 징을 사용하며 연희소요시간은 40~50분 정도 걸린다. 이 가운데 사자춤은 5~10분 정도 행해지며 사악함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것이 목적이다.

연희내용은 아홉굿거리 열두마당이다. 아홉굿거리는 입장곡, 애우너성곡, 에구내딸봉섬이, 연풍대,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자유곡이며 열두마당은 양반 꼭쇠의 해학마당정리, 애원성노래, 사당춤, 무동춤, 꼬새춤,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승무, 풍자, 군무 등이었다.

북청사자놀음전수교본에 따르면 마당놀이마당으로 마당돌이과장, 애원성과장, 사당·거사춤과장, 무동춤과장, 넉두리춤과장, 꼬추춤과장, 칼춤과장이 있으며, 사자놀이마당에는 사자춤 초장, 사자춤 중장, 사자춤 말장, 마을돌이와 뒷풀이과장으로 되어 있다.

(2) 든대질 놀이

든대질은 새로 만든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이다.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리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로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한다. 이처럼 든대를 이용하여 물에 배를 띄우는 진수를 ‘설망’ 또는 ‘배 내린다’고 말한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개안과 항구가 없는 모래땅인 날바리 땅을 주축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 1950년대 속초 청호동과 장사동 일대는 날바리 땅이므로 여기에서는 폭풍이 치거나 해일이 일어나면 시간을 다투어 배를 끌어올려야 했다. 이때는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평상시는 여유있게 ‘허리도리’라는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뒷소리를 받으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 소리는 속초지역에 전승되는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상황에 따라 여러 내용이 삽입된다. 배를 처음 만들어 바다에 띄울 때는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먼저 지내는데 술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오색 만선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리고 빈다. 제물은 술, 과일, 포, 돼지머리, 시루떡 등을 쓴다.

기원제는 선주가 제사의 주인이 되면 도사공은 제관을 한다.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들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로 배가 물에 닿게 되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되고 ‘따리’를 잡은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이때 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조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돛을 올려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뱃전을 돌고 뒷고물에서 휘두른 다음 바다에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를 하는 것으로 삼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작업에 들어간다.

마. 구전민요

속초지역 구전민요는 토착민들과 북한 피난민들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요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뉘는데 노동요 가운데 해안 가에서 불리는 어업노동요가 피난민들에 의해 주로 불리고 있다. 속초의 어업노동요는 속초민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청호동, 장사동, 대포동, 조양동 지역에서 주로 불린다. 청호동의 김형준(작고), 장사동의 전봉준, 동명동의 신재덕 등이 잘 부르는데 청호동은 함경도 이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많고 일제시대 때 일본말로 부르던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

피난민들에 의해 불리는 속초 어업요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지어소리’, 그물 당기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털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르는 ‘베끼소리’, 고기를 퍼 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가 있으며 배를 바다로 이동시키는 ‘든대질소리’가 있다. 특히 ‘지어소리’는 ‘음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소리 끝에 ‘음음’이라는 후렴이 들어간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퍼내면서 부르는 소리는 ‘산자소리’라고도 하고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는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이들 소리는 대체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선입후제창의 형식을 지닌다. ‘든대질소리’는 일명 ‘배내리는 소리’라고도 하는데 배를 다 만들어 진수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일종이다.

이외에도 함경남도 피난민들이 부르는 민요로 돈돌날이가 있는데 아직도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돈돌날이는 회전을 의미하고 또한 동틀날인 여명을 상징하는데 북청 사람들이 일제의 외침과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항일민요로 부각된다. 돈돌날이는 함남 북청군을 비롯하여 홍원, 함흥, 이원, 단천, 풍산, 갑산, 함북 성진 등에 전승된 민요로 봄철나비, 해가 떨어진다. 거스러미노래, 미나리꽃, 전감섬타령, 삼천리노래, 양유나청산, 라리라 돈돌 리떠리 등과 함께 불린다. 돈돌날이 춤도 낙천적인 특색을 지닌다. 돈돌날이 민요는 속초에서 애원성 민요와 함께 들을 수 있다.

제6장

속초시의 발전

제6장 속초시의 발전

1. 속초시의 승격

속초가 시로 승격하기까지는 인구 및 가구수 증가에 의한 행정 구역의 확대와 당시 읍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당시 행정 구역은 면적 66km²로서 16개 리에 312개 마을로 구성되었고, 가구는 10,864 세대에 인구는 55,619명이었다.



< 속초시제 실시 경축 기념대회 시가행렬(1963년 1월 7일) >

읍민들의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은 ‘속초시제실시추진위원회’의 활동이다. 1961년 김치룡 읍장이 취임하면서 속초읍 번영회가 ‘속

속초의 근현대사

초시제 실시추진위원회'로 발전하여 시 승격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시제추진위는 그 해 8월 16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간격으로 강원도지사와 내무부 장관을 만나 속초시 승격을 당부하였다. 그 결과 1962년 11월 21일 '시 설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6호)'가 공포되고 이듬해인 1963년 속초는 시로 승격되었다.

속초시제 실시추진위원회 활동

날 짜	활 동 내 용
1962. 1. 4	이주일 부의장 속초 방문시 시승격 건의
1962. 7. 24	시제 실시 추진위 구성
1962. 7. 27	박성주 위원 협조를 얻기 위해 양양군수, 양양경찰서장 방문
1962. 8. 14	청원서 제작
1962. 8. 16	청원서 제출
1962. 8. 18	내무부 장관 방문하였으나 여건 미비로 난색 표명
1962. 8. 19	한태연 교수 방문 적극 협조 표명
1962. 9. 5	내무부 지방국 행정주무관과 강원도 지방관 김운기 방문
1962. 9. 24	박하영, 박성주 중앙인사 방문
1962. 10. 11	속초시 승격 차관회의에서 통과
1962. 11. 12	속초시 승격 각료회의 통과
1962. 11. 21	시설치에 관한 법령(법률 제1176호) 공포
1963. 1. 1	시승격

2. 행정

가. 행정구역의 변천 현황

속초시는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시제를 실시하게 된다. 속초시는 행정구역을 16개 리로 나누고²⁶⁾, 속초리를 다시 6개 구로, 부월리를 2개 구로 나누었으며 총 반수는 312반이었다.

1966년 1월 1일 속초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 95호) 공포로 리를 동으로 변경하여 동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16개 리를 12개 동으로 개편하여 구성되었다.

행정구역 개편 현황

시제 행정 구역(1963. 1. 1)		동제 행정 구역(1966. 1. 1)
속초리	1구, 2구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3구,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6구	청학동, 교동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노학동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조양동
부월리	1구	
	2구	청호동
외웅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대포동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		설악동

26) 속초리,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외웅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

속초의 근현대사

이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던 행정구역은 인구 증가와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1973년 7월 1일 이후부터 다소 편입 및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때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장사동으로 편입되었다. 그 이후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속초시로 편입되어 속초시의 형태가 이루어졌다.

시 승격 이후 속초시의 행정구역은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는 8개동 239통으로 정비되었다.

행정구역 편입(통합) 현황

날 짜	기존구역	편입 (통합)동	관계법령
1973. 1. 1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	장사동	대통령령 제 6542호
1983. 2. 15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	설악동	대통령령 제 11027호
1990. 4. 1	사진동, 장천동	장사동	시 조례 제 1657호
1998. 10. 17	영랑동, 장사동	영랑동	시 조례 제 1657호
	중앙동, 금호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일부	교동	
	교동 일부, 노학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대포동	

행정구역 변모 현황

년도별	행정구역		면적(단위:km ²)
	통(마을수)	반	
1963		312	66
1966	27개 마을	261	66
1970	27개 마을	556	66
1973	29개 마을	674	79.9
1975	123개 통	600	82.3
1980	123개 통	640	89.44
1983	132개 통	683	104.45
1985	132개 통	700	104.45
1990	146개 통	759	104.92
1993	167개 통	896	104.88
1998	226개 통	1151	
1999	226개 통	1150	104.95
2000	235개 통	1209	
2001	239개 통	1231	105.25
2002	239개 통	1231	105.25
2003	239개 통	1209	105.25

나. 주거지역 현황

현재 속초시의 위치는 동경 128° 28' 29", 북위 38. 12' 17"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강원도의 동북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동해와 서쪽으로는 설악산을 경계로 양양·고성·인제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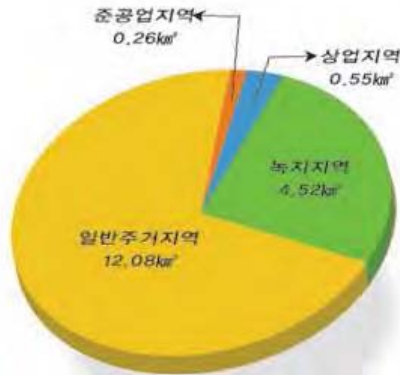
속초의 근·현대사

접하고 있다.

면적은 105.25km²로 강원도 전체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53.2%인 55.80km²는 국립공원 설악산이 차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녹지가 가장 많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순이다.

용도별 주거지역 현황

구 분	면 적(km ²)	구성비(%)
합 계	30.806	100
주거지역	5.028	16.3
상업지역	1.876	6.1
공업지역	0.660	2.2
녹지지역	17.709	57.5
미 지 정	5.533	17.9



다. 인구의 변동

(1) 시의 인구변화

속초가 시로 승격되기 전 해인 1962년 인구는 세대수 10,464에 50,073명이었는데, 1963년 시로 승격되면서 10,864세대 55,619명으로 약 10%정도 증가하였다. 그 후에도 꾸준히 늘어 1973년에 가장 많은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원인은 70년대 전국적으로 실시된 경제개발 정책과 풍부한 수산물에 의한 인구 유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973년을 기점으로 속초의 인구는 서서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던 지역경제가 해양오염과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어획고가 급격히 떨어졌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의한 이농현상이 겹쳐진 결과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까지 계속되어 약 6년 만에 10,000여명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시 차원에서 벌인 적극적인 인구유입 홍보와 관광 진흥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1980년을 기점으로 다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에 최초로 80,000명을 넘어서게 되고, 2000년에 90,543명으로 드디어 90,000명대를 넘어서게 된다.

한편 가구당 인원수는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듯이 해가 거듭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핵가족에 의한 소인 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의 기피로 신생아의 출생이 줄어들었으며, 관광지의 특성상 독신 가구가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인구현황

구분 연도별	세대 수	인구 수			증감 (%)	가구당 인원
		계	남	여		
1962	10,464	50,073	25,586	25,117	-	4.8
1963	10,864	55,619	28,149	27,470	9.7	5.1
1964	11,286	58,508	29,680	28,828	5.2	5.2
1965	11,354	60,316	30,357	29,959	3.1	5.3
1966	12,264	63,100	31,849	31,351	4.6	5.2
1967	12,785	67,079	33,704	33,375	6.3	5.2
1968	13,185	71,033	35,741	35,292	5.9	5.4
1969	13,895	73,023	36,911	36,112	2.8	5.3
1970	14,527	73,096	37,097	35,999	0.1	5.0
1971	14,304	72,694	36,845	35,849	▽0.5	5.1
1972	14,366	74,485	37,631	36,854	2.5	5.2
1973	14,620	75,968	38,450	37,518	2.0	5.2
1974	14,588	75,492	38,146	37,346	▽0.3	5.2
1975	14,653	71,475	36,489	34,986	▽5.3	4.9
1976	14,801	72,042	36,493	35,549	0.8	4.9
1977	14,819	72,771	36,628	36,143	1.0	4.9
1978	14,595	71,737	36,209	35,528	▽1.4	4.9
1979	14,786	71,940	36,117	35,823	0.3	4.9
1980	14,452	65,798	33,230	32,568	▽8.5	4.6
1981	14,839	68,523	34,597	33,926	4.1	4.6
1982	15,117	69,248	34,845	34,403	1.1	4.6

제6장 속초시의 발전

연도별	구분 세 대 수	인 구 수			증감 (%)	가구당 인 원
		계	남	여		
1983	16,287	72,324	36,279	36,045	4.4	4.4
1984	16,650	73,002	36,685	36,317	0.9	4.4
1985	17,486	69,595	34,737	34,858	▽4.7	4.0
1986	17,584	71,211	35,451	34,760	2.3	4.1
1987	17,888	71,913	35,537	36,376	1.0	4.0
1988	18,409	72,006	35,795	36,211	0.1	3.9
1989	19,355	73,424	36,612	36,812	2.0	3.8
1990	19,812	73,805	36,849	36,956	0.5	3.7
1991	20,587	72,208	35,889	36,319	1.5	3.5
1992	21,785	74,798	37,231	37,567	▽0.1	3.4
1993	23,133	76,646	38,140	38,506	2.5	3.3
1994	24,414	78,622	39,107	39,515	2.6	3.2
1995	25,792	80,709	40,076	40,633	2.7	3.1
1996	27,022	82,568	40,845	41,723	2.3	3.1
1997	28,575	85,427	42,338	43,089	3.4	3.0
1998	29,729	87,070	43,234	43,836	2.1	2.9
1999	30,891	88,914	44,160	44,754	2.0	2.9
2000	32,019	90,201	44,717	45,484	1.4	2.8
2001	32,782	90,543	44,786	45,757	0.3	2.7
2002	33,258	90,029	44,561	45,468	▽0.5	2.7
2003	33,848	89,047	44,040	45,007	▽1.1	2.7

(2) 동별 인구현황

1965년 동제를 실시하면서 당시 인구 60,316명 중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지역에 30,892명이 거주하여 5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상가가 이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였기 때문이다. 청호동 지역은 6,931명으로 실향민촌을 중심으로 어촌이 형성되어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있었다. 반면 노학동, 조양동, 도문동 지역은 전통적인 농촌 지역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3년 12월말 현재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동은 노학동이다. 노학동은 속초시 전체 인구의 약26%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1980년 동우대학이 설립되어 외지의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었고, 1998년 10월 17일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통합되면서 신시가지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학동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이는 동은 21,536명인 조양동이다. 조양동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택지개발에 의한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증가의 결과는 자연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랑동, 동명동, 청호동, 대포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들 지역으로 이주한 결과이다. 아파트촌으로의 이주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랑동 등 전통적인 마을 형성지역은 급속한 인구 유출로 동세(洞勢)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동별 세대 및 인구수 변화

구 분	1965년 12월 31일 현재				2002년 12월 31일 현재				세 대 당 인 구 (명)	비고
	세 대 수 (세대)	인 구 수 (명)			세 대 수 (세대)	인 구 수 (명)				
		계	남	여		계	남	여		
속초시	11,354	60,316	30,357	29,959	33,848	89,047	44,040	45,007	2.7	※1998.10.17 동 통합 0 영랑+장사 ⇒ 영랑동 0 중앙+금호 ⇒ 금호동 0 청학+교동 일부 ⇒ 교동 0 교동일부+ 노학 ⇒ 노학동 0 대포+도문 +설악 ⇒ 대포동
영랑동	1,029	5,463	2,745	2,718	2,662	6,819	3,429	3,390	2.7	
동명동	1,365	7,069	3,622	3,447	2,082	5,066	2,559	2,507	2.5	
중앙동	1,542	7,906	3,827	4,079						
금호동	1,497	7,709	3,807	3,895	3,305	8,195	4,059	4,136	2.6	
청학동	1,461	8,208	4,152	4,056						
교 동	1,286	6,757	3,467	3,281	5,436	14,443	7,071	7,372	2.7	
노학동	502	2,669	1,369	1,300	8,545	23,150	11,368	11,782	2.8	
조양동	519	2,823	1,424	1,399	7,856	21,536	10,572	10,954	2.8	
청호동	1,284	6,931	3,477	3,454	2,206	5,337	2,700	2,637	2.5	
대포동	502	2,610	1,359	1,251	1,756	4,511	2,282	2,229	2.7	
도문동	376	2,178	1,099	1,079						
설악동	-	-	-	-						
장사동	-	-	-	-						

라. 행정구조

시로 승격할 당시 행정조직은 1실 5과 2사무소 16리에 연합사무소는 11개를 두었다.²⁷⁾ 1966년도에는 16개리 11개 연합사무소

27) 1실(공보실), 5과(총무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2사무소(농촌지도소, 보건소), 16리(속초리 1구, 속초리 2구, 속초리 3구, 속초리 4구,

속초의 근현대사

를 12개 동으로 구역과 명칭을 개편되어 동제를 실시하였다.²⁸⁾ 이후 1969년도에는 부시장 직제가 신설(1969년 5월 25일)되고 감사실과 민원실이 신설되어 민원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 속초시 청사 >

1964년 7월 21일 착공하여 1966년 9월 28일 준공되었다.

1970년도에 들어오면서 근대화의 기수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73년 새마을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며, 녹지과와 민방위과가 신설되어 산림녹지 사업과 민방위업무를 시작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되었다. 그동안 속초는 시로 승격되었지만 사용할 만한 토지의 한계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

속초리 5구, 속초리 6구, 도리원·이목리·척산리, 청대·논산·운정·부월리, 부월리 2구, 외용치·대포·내물치리, 하도문·중도문·상도문·장항리)임.

28)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의 12개 동.

다. 장사동의 신설은 시가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수도 13개 동으로 조정하여 현재의 속초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과 1979년에 회계과, 도시과, 수도과를 신설하여 인구 증가 및 주거지역 확대에 대비를 하였다. 아울러 건설과에 관리계가 신설되어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관광과가 설치되어 관광도시로서의 속초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속초가 문화적인 도시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4년도에 공보실내 문화계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문화계의 신설로 문화 발전에 가속도가 가해지고, 1988년도에는 속초시 문화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문화 행사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공연은 물론 학교 축제 발전에 공헌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는 점이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에 의해 시의회 사무과가 신설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대표가 시정을 감시하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시민의 시정참여가 이루어졌고, 1995년 민선시장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완성하게 되었다.

1997년은 국제관광엑스포 기획단이 신설(1997. 12. 29)되어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관광엑스포 준비에 돌입하여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98년은 국가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 따라서 고등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다. 1998년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많은 과와 계가 폐지 통합되고 공무원 숫자도 628명에서 5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시청 내부

에서는 4개의 과와 1개의 계가 폐지되고,²⁹⁾ 동사무소도 13개동에서 8개동(중앙, 청학, 도문, 설악, 장사 폐지)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할 준비를 해야했다. 이에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 북방교류사업소가 신설되어 환동해권을 주도할 북방교역의 기틀을 다졌다.

2000년대는 1990년도 후반에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의 직제가 시세나 규모에 걸맞은 형태로 조정이 되고 안정된 틀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산의 확대에 의한 예산실의 독립 필요성으로 2000년에는 기획감사실을 기획 예산실로, 청소년 위주의 체육정책을 사회체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문화공보실 체육 청소년계를 체육진흥담당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산림과로, 북방향료교류사업소 시설담당을 통상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마. 재정규모

(1) 예산규모

시 승격 당시 속초시의 예산은 2천 4백만 원이었으나,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46억으로 원년에 비해 약 195배가 증가하였다. 예산이 처음 100억 대를 넘은 해는 1983년인데, 10년 후인 1993년에는 1,000억을 넘게 된다. 이후 10년 후인 2002년 현재 2,955억으로 약 3배의 증가를 보여 시세의 확장을 실감

29) 세무과 체납정리계, 가정복지과, 지적과, 녹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케 한다.

특별회계 면을 보면 시 승격 원년에 주택사업비, 대여양곡관리비, 상수도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965년에는 동개발비, 한전유치비, 1970년에는 택지 조성비가 신규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이는 시 승격 초기의 열악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본적인 시의 틀을 갖추는데 주력하였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의료보호 기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비,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비,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비 등이 편성되어 시민 복지 증진과 생활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1986년에는 하수도비가 신설되어 국가적인 시책인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며 1989년에 농공지구 조성비가 책정되어 본격적인 대포농공단지 조성에 돌입하며 특히 1990년 이후부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90년대에 들어와 책정되는 예산의 형태를 보면 1990년도에 경영개발비, 1991년에 공유임야 관리비, 1995년에는 주차장 설치비가 신설되어 공공시설 개발 및 관리에 힘쓰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예산이 개발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예산 운용 형태는 2000년도에도 시설관리 공단비를 책정하여 본격적인 공공시설 관리에 역점을 두어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도별예산현황

연도별 회계별	합계	증가율 (%)	일반 회계	특 별 회 계								
				소계	하수 도	주택 사업	의료 보호 기금	세마을 소득 특별 지원	세마을 소득 급고 운영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	농공 지구 조성	
1963	24,738	100.0	22,596	2,142		174						
1965	80,970	327.3	45,785	35,185		2,756						
1970	353,633	436.7	294,628	59,005		29,968						
1975	850,936	240.6	699,597	151,339		58,242			1,975			
1980	4,665,978	548.3	3,646,696	1,019,282		478,802	98,559		12,808			
1983	10,848,555	232.5	7,511,523	3,337,032		1,494,538	156,387		13,127	15,534		
1985	12,812,901	118.1	8,460,010	4,347,891		2,880,561	198,662	100,000	7,142	45,828		
1986	14,690,173	114.7	9,673,371	5,016,802	157,755	3,295,700	214,019	98,002	6,868	50,953		
1987	15,209,161	103.5	10,386,342	4,822,819	311,856	2,663,755	279,425	52,504	5,218	43,932		
1988	16,107,713	105.9	11,889,399	4,218,314	361,945	1,502,399	401,176	35,535	10,786	62,438		
1989	44,268,393	274.8	38,571,121	5,697,272	506,608	2,387,986	509,937	78,903	18,045	24,036	2,200	
1990	67,437,129	152.3	47,574,404	19,862,725	562,543	4,888,994	582,365	123,430	9,506	29,835	4,239,924	
1991	60,929,264	90.3	36,323,197	24,606,067	694,844	5,725,674	606,138	82,740	15,421	150,843	2,455,049	
1992	81,647,817	134.0	43,536,982	38,110,835	747,174	3,746,670	847,977	140,924	17,498	186,336	959,997	
1993	100,204,496	122.7	44,507,885	55,696,611	874,920	4,912,437	1,013,414	147,005	23,226	149,287	225,556	
1994	67,542,838	67.4	51,373,852	16,168,986	1,057,948	2,338,495	919,364	118,474		129,974	567,588	
1995	88,349,542	130.8	64,668,335	23,681,207	1,867,840	2,636,129	1,157,116	154,137		186,636	998,243	
1996	100,361,978	113.6	79,649,008	20,712,970	1,042,872	1,323,304	1,573,019			402,000	1,155,130	
1997	130,151,033	129.7	100,260,325	29,890,708	1,691,570	1,266,680	1,954,132			494,511	948,851	
1998	150,945,470	116.0	107,979,153	42,966,317	1,589,358	1,107,808	2,340,954			509,840	1,199,355	
1999	129,558,095	85.8	88,378,141	41,179,954	1,594,646	943,353	3,026,568			448,072	745,407	
2000	156,652,929	120.9	113,631,948	43,020,981	2,253,488	1,004,310	4,307,610			483,186	388,772	
2001	163,161,547	104.2	126,042,272	37,119,275	2,467,290	990,583	5,722,678			313,849	403,845	
2002	295,520,173	181.1	237,733,001	57,787,172	14,837,642	1,794,462	746,211				363,613	

(2) 재정 자립도

속초시의 재정자립도는 산업 기반의 열악함으로 인해 취약한 형편이다. 재정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이 이루어진 1963년에는 30.4%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한 채 1965년은 21.7%, 1970년 16.3%로 도리어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1977년에는 100억 달러, 1981년에는 20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1인당 GDP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전국적인 경제 규모의 확대는 속초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속초 및 인근에 대형 숙박 시설을 비롯한 관광 관련 시설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재정확충에도 영향을 주어 1980년대 초에는 40%대를 유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발전 국면에 접어들게 만들었다.

1989년 이후 90년대 초에는 경제회복과 관광진흥 정책에 기인한 결과로 70%대의 재정자립도 시대를 열게 되면서 한 단계 발전하였다. 하지만 시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90년대 중반 이후는 국고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대로 40%~50%대의 유지를 보이게 되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30%, 2002년도는 18%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 변화

연도	자립도(%)	연도	자립도(%)
63	30.4	91	65.1
65	21.7	92	70.9
70	16.3	93	63.9
75	29.4	94	56.6
80	47.6	95	46.3
83	37.7	96	42.7
85	42.1	97	45.1
86	29.7	98	37.3
87	38.8	99	39.3
88	36.7	00	29.2
89	79.6	01	26.9
90	71.9	02	18.0

3. 사회의 변화

가. 도시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

속초의 도시화는 타도시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가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실시되었고, 속초는 중소도시라고는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진학을 하기 위해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와 속초는 관광산업의 붐과 함께 도시적 요소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콘도와 같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이 발달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동우대학이 개교함에 따라 젊은이들이 유입되어 속초의 상주인구가 늘고 소비 형태를 바꿈으로 인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관광객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도시 자체가 소비도시로 변하여 생산시설보다 소비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변하였다.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은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한국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사라지고 핵가족 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핵가족에 의해 소인 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의 기피로 신생아의 출생이 줄어들었으며, 관광지의 특성상 독신가구가 증가하여 주거환경도 단독 주택보다 관리가 편한 소규모의 주거 공간을 원하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연립 주택, 원룸 등의 새로운 주거 형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기 고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이 성장하여 국가나 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비정부기구(NGO)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복지 시설의 확충

196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 이면에는 농촌의 피폐와 도시 빈민층의 형성,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가 주도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노약자, 빈곤층, 실업자, 노숙자 등의 소외 계층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아직도 절대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주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으며, 다양한 시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지 전 분야에서 매년 우수도시로 평가되어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상 등 표창을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는 노인건강관리센터(438평)와 노인요양시설(319평)을 신축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휴식 기반 시설도 확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건립(2,073평)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설립(8개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국제관광엑스포 부지사업과 더불어 청초호변과 영랑호에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다.

한편 영랑호, 청초호 정화사업과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으로 맑은 호수와 청정한 바다에 둘러싸인 관광지 도시환경 조

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해 청초호 유원지 내에 꽃동산과 설악해맞이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활동공간 부지와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전원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시설운영은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여 경영행정 도입을 통한 재정확충을 이루고 있다. 그에 따른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견인, 종합경기장 및 청소년수련관 대여 등인데 경영의 합리화와 더불어 투명경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4. 남북 통일과 북방교역

가. 남북관계의 진전

1990년 북한은 전격적으로 대한민국 측의 남북 교류 제의를 수용하였다. 1990년 9월부터 남북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급 인사들이 만난 것이다. 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햇볕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포용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정책의 채택으로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1999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분단 50년 동안 고향을 지척에 두고 방문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향민들에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가짐으로 인해 속초는 행사를 지원하는 배후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남북 평화통일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환동해권의 중심지

남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북방교역이 활성화되었고, 인접지역간에

경제협력과 경제교류가 진전되는 계기가 되어 속초가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북방교역의 시발점은 2000년 4월 28일 속초항에서 러시아(자르비노항)을 경유하여 중국(훈춘)으로 향해하는 카페리 직항로 개설이다. 이 해상항로가 개통됨에 따라 많은 소무역상들이 속초로 몰려 항로 개설에 의한 특수를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교역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속초—훈춘간의 운송화물은 북방항로가 개항된 이후 1회 출항 당 20톤 규모의 컨테이너(출항화물 4.3개, 입항화물은 3.8개)가 3~4개에 불과하며, 러시아지역으로의 운송화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방항로 개항 이래 90여 회의 운항중 소무역상은 약 13,000명이 이용하였다.

이제 속초는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환동해권 거점도시는 4개국 1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속초에서는 1997년과 2002년에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부터는 주훈춘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우리 시 상품의 전시홍보, 무역상담,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반 사업으로 속초항 관광선부두 완공과 관세법상 개항 지정으로 향후 속초항이 러시아·일본·중국을 연결하는 국제관광·교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 북방교역과 관광전진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교역선 모습(동춘호) >

5. 경제 및 산업

속초는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업, 수산업, 광공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1960년 후반부터는 1차 산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수산업 분야의 종사자가 증가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관광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해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임대 등 상업과 관광서비스산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8년 통계에 의하면 속초시의 사업체 수는 7,140여 개에 24,416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에 2,203개 업체에 6,030명으로 24.7%를 차지하였다. 또한 도소매업 및 수리업에 2,458개 업체에 5,409명이 종사하고 있어 산업별 인구 비율 22.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속초가 소비성 도시임을 나타내는 수치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의 변화가운데 1차 산업 종사자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속초시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 농업

속초시는 1949년 농지개혁법의 경자유전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60년대 들어와 산업발전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73년 주곡자급에 필요

한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업 인구가 10년 전보다 1,000명 정도 늘어나며, 경지면적도 89ha나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도시의 확대에 의한 주거환경의 개선, 도로의 개설 등 도시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농업 인구나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다. 이에 경지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1980년 이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허용(헌법개정)하거나, 2002년에는 농지취득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강화(농지법개정)하는 한편 농지전용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소유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농지면적의 감소는 농가수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농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62년도 10,464세대 중 1,167호로 11%, 1982년도에는 15,117세대 중 1,040호로 6%, 2002년도에는 33,258세대 중 744농가로 불과 2%에 해당할 정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도시화가 낳은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날로 악화되는 채산성으로 인해 농업보다 관광이나 서비스업 방향으로 직업을 바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가수의 감소는 농업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농업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1962년도 5,404명으로 인구의 10%였으나, 2002년도는 2,615명으로 인구의 2%만이 농업인구로 분류될 정도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농가수 및 경지면적

연도	구분 농가호수(호)	농가인구(명)	경 지 면 적(ha)			비 고
			계	답	전	
1962	1,167	5,404	1,061	775	286	
1972	1,086	6,389	1,150	672	478	
1982	1,040	5,590	1,160	696	464	
1992	992	4,308	754	472	282	
2002	744	2,615	820	565	255	

미곡생산은 1962년 929톤, 1972년도 1,401톤, 1982년도 2,084톤, 1992년도 2,583톤, 2001년도는 2,430톤으로 62년 대비 262%가 증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태풍피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농업기술의 발전과 우량종자의 보급 등 영농여건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맥류는 62년도 34톤, 72년도 73톤을 생산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맥류 재배면적이 전혀 없다. 그러나 2000년 들어 2ha, 2002년 3.7ha로 재배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웰빙문화의 형성으로 소비자가 증가한 결과이다.

두류는 62년도 133톤, 72년도 81톤, 82년도 105톤, 92년도 42톤, 2002년도 44톤이었다.

서류는 72년도 283톤, 82년도 410톤, 92년도 500톤, 2002년도 522톤으로 해마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식량생산 현황

연도 \ 구분	미 곡	맥 류	두 류	서 류	비 고
1962	929톤	34	133	-	
1972	1,401톤	73	81	238	
1982	2,084톤	-	105	410	
1992	2,583톤	-	42	500	
2002	1,594톤	7.4	44	522	

나. 어업

속초시의 산업별 인구현황은 1961년 농업의 비중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업이 11.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농지면적이 줄어들어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수산업 비중의 증가와 수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976년에는 속초시 인구가 72,0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수산업은 속초항이 개항된 이래 지역내 총생산의 44.8%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산업 활동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후 수산물 생산이 1982년 37,773톤에서 1992년 26,981톤으로 29% 감소하면서 어업종사자들의 이직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수산물의 어획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속초시가 지정항이 된 1962년 4월 27일 이후 30년이 지난 1992년과 비교해 보면, 어가는 52% 감소한 반면 수산물 생산은 92년에 26,981톤을 생산해 1962년 보다 5.9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선 보유 척수는 62년 811척에서 92년 623척으로 23% 감소했으나,

어선의 척당 평균 톤수는 0.97톤에서 40.1톤으로 41.3배, 마력수는 척당 9마력에서 174마력으로 33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어획을 위한 첨단기술장비, 고깃배 규모의 거대화 등에 의한 원양어업의 활성화로 수산물의 생산이 증대되었다.

시 승격 이전의 어업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어업이 이루어져 전 근대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6년에 어업근대화 계획에 의하여 5대양 6대주로 진출하는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연근해 어업도 대형동력어선, 합성수지어선을 도입하였다. 한편 어로장비를 개선하고 냉동, 가공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수산제품의 품질개선으로 어민소득증대는 물론 일본, 미국 등지에 수출하게 되었다.



< 1960년대 고기잡이 모습 >

속초의 근현대사

하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는 1970년대 초반의 호황을 고비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시승격 때보다 어가는 약 4배, 어민수는 약 2,700여명 감소한 상태이다.

속초시 수산세력 변천 현황

연도별	어가·어민수		수산물생산		어선보유		
	어가 (호)	어민 (명)	수량 (톤)	금액 (천원)	척수	톤수	마력수
1962	3,831	5,873	3,873	15,895	811(325)	784(0.97)	2.967
1972	6,179	32,224	29,479	1,456,413	851(426)	6,032(7.09)	13.950
1982	3,098	15,383	37,773	15,176,422	765(669)	10,884(14.22)	-
1992	1,854	7,369	269,814	37,037,232	623(561)	24,980(40.1)	98.144
2002	930	3,115	21,210	42,121,298	588(573)	10,613(18.0)	153.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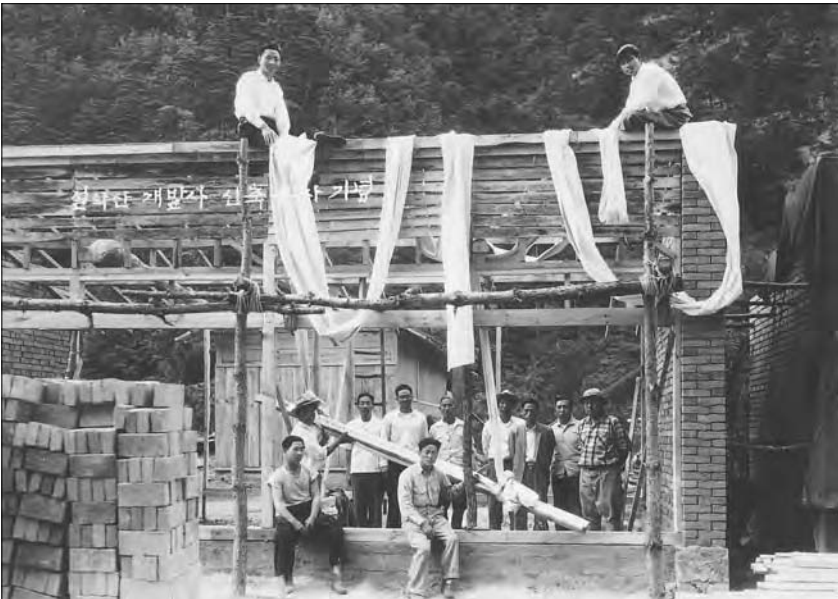
다. 관광

동해의 광활한 바다와 설악산, 척산온천, 호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속초의 발전은 항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상당수는 어업에 종사하였고, 어획고에 의해 지역경제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국민소득의 증가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속초는 점차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70년 3월 24일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설악동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관광산업이 주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스키장, 온천 같은 레저스포츠 시설,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현재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런 관광도시로 변모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과 투자가 있었다. 1960년 설악산관광호텔이 개관하여 1965년에 민영화됨으로써 고급 숙박 시설의 장을 열었다. 1969년에는 ‘설악관광주식회사’가 설립되어 1971년 설악산케이블카를 준공하였다.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76년부터 1978년까지 2년 간 설악산 구단지를 소공원으로 만들어 신단지 A, B, C 지구로 배치하여 신흥관광단지를 조성하였다. 그 후 1978년 뉴설악호텔, 1980년에 설악파크호텔이 개관되어 숙박시설을 확충하였다.



< 속초에 고급 숙박 시설의 장을 연 설악산관광호텔 상량식(1960) >

속초에서 처음 콘도미니움이 개관한 것은 1981년 한국콘미니움이며 이어 명성콘도(현 한화프라자), 현대훼미리타운, 코레스코, 동해콘도, 사조콘도, 영랑호리조트, 웰컴콘도, 금호콘도, 연호콘도, 설악파인 콘도 등이 개관하여 쾌적한 숙박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친 속초의 관광산업 형태는 지금까지 설악산과 동해바다 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숙박업소의 확충과 근접도로망의 개설 등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해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2002년 4월 양양국제공항 개항, 중앙고속도로 개통,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개설은 향후 관광사업의 청신호로 기대된다.

속초시의 관광이벤트 행사 중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엑스포)는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일원(124,000평)에서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Man, Nature and Life of the Future)'란 주제 아래 펼쳐진 행사로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와 국내 34개 지방자치단체, 80여 개 기업체가 참가한 대규모의 행사로서 속초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³⁰⁾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엑스포)를 위해 속초시는 미시로, 온천로 등 도로9.72km 개설, 도로구조 2개 노선 2.55km 개선, 도로시설 10개 노선 7.54km 정비, EXPO광장 (주제관, 상징탑, 부지 7,104 평)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30) 세계 60개국이 전시에 참가했고 24개국이 공연행사에 참가했으며 해외의 주요 인사들이 엑스포장을 방문하여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단위에서 광범위한 국제관광 협력의 장이 이루어졌다. 주제관에서는 대형 영상 영화를 하루 15회씩 상영해 약 36만 명의 관람실적을 올렸고, 높이 73.4m 규모의 상징탑은 약 1백 50만 명이 이용하였다.



<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엑스포) >

또한 이 행사를 계기로 시 역사상 초유로 관광객 1천만명 시대로 돌입하였고, 이후 주요도시 현지관광 홍보와 속초밀레니엄축제, 속초해맞이축제, 속초해양페스티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설악눈꽃축제 등의 행사를 통한 전천후 관광객 유치활동의 성과로 2002년도에 1,300만 명을 초과하는 등 관광객의 수를 꾸준히 늘려 왔다. 아울러 청초호유원지 조성, 속초 8경 정비, 영랑호화랑도체험장 준공, 석봉도자기미술관 개관, 대한민국음악축제 개최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의 확충으로 종합레저·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라. 서비스업

(1) 판매업

1987년도 판매업 업소수를 업종별로 보면 상업은 외지 관광객의 유입, 레저 관광시설의 점차적 증가로 활기를 찾게 되었으며, 1999년 현재 도소매업 2,458업체에 종업원수가 무려 5,409명에 이른다. 속초시의 총판매업 업소 974개중 식·음료품 판매업소가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농산물 판매업소로 17.9%, 의류 및 장식품 판매업소가 13.8%이다.

(2) 음식, 숙박업

음식, 숙박업소의 증가 추세를 보면 속초시가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자취들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도소매업에 못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8년 현재 2,203업체에 종사자수 6,030명에 이르고 있다.

6. 교육

속초의 초등교육은 1919년 설립된 대포공립보통학교가 개교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37년에는 영랑공립심상소학교가 개교하여 1950년 속초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속초국민학교는 전쟁 중 소실되어 1951년 10월 재건축되었다. 현재의 영랑초등학교의 전신인 영랑국민학교는 1955년 11월 개교하였다.

중등학교는 해방 후 북한정부에 의해 속초인민중학교가 청호동에 세워졌다가 전쟁 중에 소실되고, 우리 정부에 의해 1951년에 설립된 속초중학교가 최초이다. 속초중학교는 개교 당시 3학년 남녀공학으로 운영하였고, 1952년 첫 졸업생 34명을 배출하였다.

고등학교는 1952년 6월에 속초고등학교가 개교하여 62명(남 57명, 여 5명)이 처음으로 입학하게 된다.



< 속초고등학교 개교 당시 모습 >

한편, 속초에서의 최초 여성 교육기관은 1955년 5월 개교한 속초여자중학교로서 남녀공학이던 속초중학교에서 분리 설립되었고, 1963년 속초고등학교에서 여학교가 분리되어 속초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되었는데 3학급 규모로 속초여자중학교와 병설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1981년 3월 속초경상전문대학이 개교되었다. 속초경상전문대학은 영북지방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양교육을 비롯 사회교육에도 참여하고 있고, 1983년 9월 16일 동우전문대학으로, 1998년 5월 1일 동우대학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타 불우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로 명신고등공민학교, 대포재 건중학교 등이 있었으나 1981년 이후 모두 폐교되었다.

교육장학 기관인 속초교육청은 속초시청 교육과에서 1964년 교육자치제의 부활로 속초시교육청으로 발족되었으며, 1973년 양양군교육청이 속초시에 통합되어 현재까지 속초시와 양양군 교육행정을 관장해 오고 있다. 속초교육청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원도 속초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속초시 교육기관 현황

(2003년 현재)

구 분	학교명	설립인가일	졸업횟수	졸업생수(명)
초등학교	속초초	1951. 10. 8	52	18,554
	영랑초	1955. 11. 3	57	11,920
	중앙초	1962. 9. 5	40	11,346
	청호초	1957. 1. 13	45	5,937
	교동초	1968. 12. 4	34	7,824
	대포초	1919. 4. 1	77	3,704
	온정초	1965. 11. 15	49	3,041
	조양초	1970. 12. 31	32	3,654
	설악초	1974. 3. 1	49	2,133
	청대초	1997. 3. 1	6	811
	소야초	2002. 9. 1		
중학교	속초중	1951. 10. 16	52	17,597
	설악중	1966. 12. 23	34	11,053
	속초여중	1955. 3. 29	48	14,151
	설악여중	1971. 3. 1	30	9,371
고등학교	속초고	1952. 5. 25	49	13,355
	속초여고	1963. 2. 22	38	12,060
	속초상고	1969. 11. 22	31	10,129
대학	동우대	1980. 11. 3	20	26,924

7. 문화 예술

가. 문학

속초는 한국 전쟁 이후 전쟁 유민에 의해 재구성된 도시로 피난민들의 정착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실항의 아픔을 안고 아바이 마을이라는 새로운 정착촌을 형성하게 되고, 전쟁 직후의 황폐한 사회적 분위기와 어울려 수복지구 속초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은 문학적으로 매력 있는 소재가 되었고 몇몇 문인들이 여기에 주목하여 실항민의 애환, 처절한 삶의 현장, 분단의 아픔, 통일의 염원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특히 시인 이상국과 김춘만 극작가 이반은 속초 실항민의 삶과 의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속초를 대표하는 시인으로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한 황금찬이다. 그는 설악의 아침 등 고향을 그리는 시를 써 속초를 알리는데 공헌했으며, 현재도 왕성한 시작활동으로 시인들의 작품활동을 돕고 있다. 그 외 196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설악문우회가 발간하는 문학동인지인 ‘갈피’를 통해 배출된 많은 지역의 시인들이 등단하여 활발한 창작활동을 보이고 있다.

소설면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은자의 단편소설 「만선」이다. 이 작품은 조업부진이나 해난 사고로 인한 어민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상, 하역작업이나 할복작업과정을 통한 어판장 풍경, 청호동 아이들의 성장 과정, 월선 조업에 대한 불만, 실항민의 한 등이 그려져 있다.

문영남의 「분노의 왕국」은 제1회 MBC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60-70년대 청호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속초의 생활상을 소재로 한다. 강호삼의 「북녘나그네」는 속초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이고 이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임을 제시한다.

극작가 이반은 「그날 그날에」와 「아버지 바다」에서 실항민들의 삶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그려내고 있다.

나. 문화유적

시 승격 이후 속초시에 있는 문화유적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가지정 4곳, 도지정 9곳이다.

문 화 재 현 황

지정종목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지정 년월일
계			13종		
국가지정 (4)	보물	443호	항성사지3층석탑	설악동 산 24-2	66. 8.25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일원	65.11. 5
		351호	설악동 소나무	설악동 20-5	88. 4.30
	사적	376호	조양동 선사유적	조양동 1529	92.10. 6
도지정 (9)	도 유형문화재	14호	신흥사 극락보전	설악동 170	71.12.16
		15호	신흥사 경관	"	"
		85호	김종우 가옥	도문동 1190	85. 1.17
		104호	신흥사 보제루	설악동 170	85. 9.13
		143호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유물	설악동 170	03. 4.25
	도 문화재 자료	7호	신흥사	설악동 170	84. 6. 2
		64호	김근수 가옥	도문동 1504	85. 1.17
		115호	신흥사 부도군	설악동 산 26-11	91. 2.25
		127호	노학동 3층석탑	노학동 산 432	00. 1.22

다. 문화시설

속초의 문화시설 중 대표적인 것은 문화회관으로 1977년 제일교포 황칠복이 7천만 원을 희사하여 현재의 문화회관 위치에 432석 규모로 건축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1986년 12월 22일 총공사비 24억 7천만원으로 현대식 신축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90년 10월 10일에 준공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회관은 개관이후 문화의 불모지였던 지역의 문화계를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도 연극과 음악회, 영화상영 등 연평균 250일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문화시설로는 1963년 시 승격 당시 대형공연장으로 현대극장과 중앙극장, 제일극장 등 3개소가 운영되어 오다가 1966년 대원극장이 설립되어 4개 극장으로 늘어났다. 그 후 현대극장은 동보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극장 3곳은 모두 폐쇄되었고, 1992년 6월 서울예식장 자리에 중앙소극장이 개설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1962년 9월 10일 중앙동 425-1번지에 설립되었다가 폐쇄된 중앙극장 >

최근에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등이 호텔, 콘도 등 급증한 대형건물의 연회장을 활용 이용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문화회관, 한화콘도 야외공연장 등 2개소이다.

라. 문화예술 활동

(1)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제는 속초의 종합 향토 축제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산악제례의식에서 기원한다.³¹⁾

이는 강원도내에서 문헌상 드러난 가장 오래된 제례행사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집전했으며, 설악을 영동의 진산으로 평가했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고대의 제천행사에 뿌리를 두는 설악문화제의 처음 명칭은 설악제였다. 설악제는 1966년 사진작가 최구현(崔九鉉)에 의해 설악산악회가 주축이 되어 산신제와 등반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향토축제로 시작되었다.

1966년 10월 1일 개최한 제1회 설악제의 행사로는 전국등반대회를 선두로 사진 공모전, 미협 협회전, 음악의 밤, 무용의 밤 등의 행사를 열었다. 제 30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문화”를 삽입,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제 31회부터는 체육행사를 지양하고 순수한 전통 민속축제로서 면모

31)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 제일(雜誌 第一) 제사조(祭祀條)에 삼산(三山) 오악(五岳) 이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나누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지냈으며, 그 중 설악산이 소사(小祀)를 지낸 곳으로 되어 있다. “三山五岳已下名山川分爲大中小祀...小祀 霜岳(高城郡), 雪嶽(守城郡)…”

를 새롭게 갖추면서 지역축제 및 전국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행사의 추진위원회는 설악제례추진위원회, 통일염원제전위원회, 설악산악제전위원회, 설악예술축전위원회, 거리문화축전위원회, 향토민속축전위원회, 해양문화축전위원회, 놀이문화축전위원회가 있다.



< 설악문화제 행사 전경 >

(2) 설악눈꽃축제

199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2월 중에 개최된다. 지금까지 시내 및 설악산 일원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나, 2003년 8회를 기점으로 행사 전체를 설악산으로 옮겨 여행객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도 설경을 좀더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함께 참여하는 산악행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메인이벤트에는 토왕성 폭포에서 빙벽등반 유경험자에 한해 펼쳐지는 빙벽오르기와 하얀 산길 걷기대회가 있다.

마. 방언(方言)

속초방언은 전국 방언 중에서도 농업, 어업,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소도시 방언 구역으로서 세 직업 방언의 영향하에 있고 원래 고성, 양양 방언권으로 불리우던 전통적인 지역 방언구역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신흥도시로서 인구 이동의 유입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가치가 큰 방언의 하나이다.

더구나 청호동 지역(속칭, 아바이 마을)은 함경도 출신 1, 2세가 90%를 점하는 특수 지역으로 방언학상 강릉 방언과 같은 고립된 잔재 지역이다. 더구나 고도 방언 지역(孤島方言地域)이라 부를 수 있고, 함경 방언 연구를 위해서도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는 곳이다. 원래 북부 방언의 역양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속초, 양양 방언에 함경도 출신의 집단 주거와 이에 따른 지역 사회적 영향으로 방언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속초방언의 전반적 체계는 다른 영동 방언권과 비슷하여 예컨

데 음운 체계나 종결어미와 상대 존대법 체계가 비슷하고 그 보존형 어휘도 강릉, 삼척처럼 강하게 남아 있으며 많은 단어가 차이 없이 쓰인다. 그러나 반면 강릉, 삼척권보다도 ㅂ, ㅅ 보존형은 숫적으로도 적어 매우 약한 점, <-나?> 보다 <-니?>가 우세한 점, <-니다, -니까?>가 <-네다, -네까?>에 가깝게 발음되는 점, 단어나 문장의 고저 억양이 심한 점, 일부 단어 형태가 강릉, 삼척 방언권과 구별되는 점 등은 속초 방언이 강릉, 삼척 방언과 분명한 차이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속초방언의 이런 특성은 국어의 북부, 남부, 중부 방언이 삼면에서 만나 접촉되는 특이한 전이 지대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 이 점은 고성, 양양 방언도 마찬가지로 국어 방언학 상으로도 이 지역들이 전이 지대 방언 연구의 중요한 곳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어업, 상업이라는 이질적 산업 지역이 공존하는 소도시 지역 방언은 전국에서 흔하지 않은데 속초 방언 내에서도 함경 방언 지역인 청호동 일대는 전국에서도 희귀한 고도 방언(孤島方言) 지역인 바 역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흥미 있는 곳이라 하겠다.

(1) 속초 방언의 위상

속초 방언의 위상은 중부 방언의 성격과 동해안 방언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전이지역이다. 즉 영동 방언권인 속초의 언어는 함경 방언과 같은 북부 방언과 경상 방언인 동남 방언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면서, 영서로 연결되는 중부 방언의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방언의 삼각지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동 방언의 특성은 영동 방언만의 독특한 체

계로서 기술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속성 자체가 주변의 다른 방언과 항상 공통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적 성격으로 인하여 영동권인 속초 방언의 위상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방언 연구의 충분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동 방언권에 속하는 속초 방언은 같은 방언권이라 할 수 있는 강릉 지역이나 삼척 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 청호동의 언어 특징

청호동 주민은 함경도 주민이 주류를 이루고 약간의 평안도 주민이 혼재해 있으며, 함경도 가운데서도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주민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청호동의 언어는 속초 방언과 함께 평안도 함경도 방언이 섞여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북청군 주민이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도 북청 출신의 신향민 언어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청호동 방언 어휘의 특징은 함경남도 북청 언어의 어휘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이다. 청호동의 방언 어휘는 옛 고향의 언어를 잘 유지한 까닭으로 고어(古語)의 형태나 특수한 형태의 어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달(다리), 고굼(학질), 아시나조(초저녁), 열(쓸개), 우티(옷)’ 등의 고어형이나, ‘댕거지(고추), 노쟁이(여자), 노존(자리), 떨기(파도), 배재(올타리), 통골(소경), 훌기(그네)’ 등의 어원을 알 수 없는 어휘들이 많이 있다. 아울러 ‘누비(누에, 누이), 노블(노을)’ 등은 이들 어휘의 어원적 형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들이다.

어휘 의미에 있어서는 ‘그립다’가 ‘부족하여 아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나, 부엌 공간이 방과 함께 위치하는 북부 지역의 주거 특성상 ‘정지’가 ‘안방’의 의미로, ‘봉당’이 ‘부엌’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색다른 것이었다. 한편, 바람風을 뜻하는 고유 어휘인 ‘셋바람’이 ‘동풍東風’이 아닌 ‘북풍北風’을 뜻하고, ‘갈바람’이 ‘서풍西風’이 아닌 ‘남풍南風’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남도 방언(특히 북청 언어)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다. 이것은 청호동 지역에서 함경남도 피난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이곳의 문화나 언어에 동화되지 않고, 고향의 민속과 언어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호동 주민의 언어사용을 보면, 속초 방언이나 표준어 어휘를 고향의 언어와 함께 중복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청호동 주민들은 두 방언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二重言語, bilingualism)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한 언어에 대한 복수의 방언을 기준으로 이중언어를 논의한다면,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는 모든 화자(話者)가 이중언어 사용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초시 청호동 월남越南 주민들의 복수 방언 사용 실태는 집단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정도가 심한 복수 방언 사용자라 할 수 있다.

바. 음식 문화

(1) 전통음식

□ 도루묵(명태) 칼국수

칼국수에 생선을 넣어서 끓인 음식으로 냄비에 물을 붓고 적당량의 고추장과 된장을 풀고 호박, 감자를 넣어 끓이다가 생선을 넣어 끓인다. 생선이 다 익으면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칼국수를 넣고 끓이면서 다진 파, 다진 마늘, 후추, 깨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 회국수

국수는 끓는 물에 삶아 놓고 가자미는 뼈 채로 썰어서 양념장에 무쳐 놓는다. 양념장은 고추장에 고춧가루, 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어 만든다. 깻잎, 상추는 깨끗이 씻어 채 썰고 배도 채 썬다. 육수는 물에다 멸치, 다시마, 간장, 된장을 넣어 끓여 간을 맞추어 놓는다. 대접에 삶은 국수를 담고 양념한 가자미와 채소와 배를 얹어 비벼 먹는다. 회국수는 비빔국수로 소면을 적당히 삶아서 이용하고 육수를 만들어 곁들여 낸다.

□ 평양냉면

냉면 국물은 꿩을 삶은 육수가 으뜸이나 보통 사골이나 쇠고기 국물과 동치미 국물을 합하여 만든다. 국수 위에는 편육

과 동치미 무 썬 것, 오이생채와 배 채 썬 것, 삶은 계란을 얹는다.

□ 함흥냉면

함경도는 감자녹말 국수로 냉면을 만든다. 물냉면도 만들지만 함흥에서는 가자미 날 것을 회로 쳐서 매운 양념 고추장으로 무쳐서 국수에 얹어 먹었다고 한다. 지금은 홍어를 구하기 쉬워 식초에 재웠다가 맵게 무쳐서 얹는다.

□ 황태북어해장국

황태는 두들겨 살을 발라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송송 썰은 배추김치와 콩나물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이 때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한 후 끓으면 달걀을 푼다.

□ 순두부

대두는 삶고 좋은 것을 골라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물에 불렸다가 맷돌에 간다. 끓인 물에 같은 콩물을 넣고 끓인 후 가는 채에 부어서 거른다. 거른 콩물을 다시 끓이면서 간수를 넣고 주걱으로 저어 주어 약 10분간 놓아두면 두부가 영긴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참기름을 쳐서 먹는다.

□ 명태조림

약간 말린 명태를 5cm 크기로 토막을 내고 냄비에 무를 깔고 명태를 올려 간장 양념을 끼얹어 가며 조린다.

□ 송이버섯 박고지 볶음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썰어 놓고 박고지는 물에 불려 썰어 놓는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박고지, 송이버섯을 넣어 볶으면서 양념을 한다.

□ 가리비꼬지

가리비는 살짝 데쳐 살을 발라내고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 양념하여 볶는다. 피망과 붉은 고추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고 꼬지를 준비하여 여러 재료를 색을 맞춰 끼우고 끝에 호일로 마무리한다. 꼬지에 달걀 물을 적신 후 팬에 살짝 지져 낸다.

□ 미역 나물

생미역은 데쳐 놓고, 쇠고기는 양념하여 볶아 놓는다. 큰 그릇에 볶은 쇠고기, 생미역,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소금, 참기름, 식초를 넣어 무친다.

□ 쑤치된장구이

쑤치는 깨끗이 손질한 후 된장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쑤치 앞뒤에 바른단. 석쇠를 달군 후 식용유를 바르고 쑤치를 올려 노릇하게 구워 낸단.

□ 오징어 불고기

오징어는 내장을 빼고 배를 가르 후 오징어의 앞뒷면에 칼집을 사선으로 얇게 넣고 정종,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생강즙, 간장을 혼합하여 양념장을 만든단. 오징어는 물기를 닦아 낸 후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바른 뒤 석쇠에 구워 낸단.

□ 오징어순대

오징어는 배를 가르지 않고 내장과 다리를 떼어놓는다. 찹쌀밥과 각종 채소를 볶아 고추장과 양념을 넣어 섞어 놓는다. 오징어의 속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속을 채워 넣고 산적꼬지로 입구를 꿰맨단. 소를 넣은 오징어를 찜통에 찌서 식은 후 썰어 낸단.

□ 명란젓

생태의 알에 소금을 뿌려 보름쯤 절인 후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엿을 넣고 버무려 하루 정도 재운 후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 창란젓

명태의 창자를 소금에 절였다가 속을 훑어 깨끗이 씻어 소금을 뿌려 보름 정도 삭힌 후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엿 등을 섞어 골고루 버무려서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 오징어젓

오징어의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담아 소금에 절여 푹 삭힌 후 먹을 때 소금을 씻어 내고 껍질을 벗겨 채를 썬다. 무는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오징어와 마늘, 생강, 물엿,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린다.

□ 서거리젓

서거리는 명태의 아가미를 가리키는 말로 소금에 절인 후 간이 베이면 고춧가루로 버무린다. 무는 납작하게 썰어 고춧물을 들인 후 아가미와 섞어 가진 양념을 하여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 오징어식해

생 오징어는 굵게 채 썰고 무는 나박 썰기하고, 마늘, 파, 생강은 다진다. 오징어채와 준비한 양념을 넣어 버무리다가 찰밥을 넣고 2~3일간 삭혀서 먹는다.

□ 동치미

무는 작고 단단한 것을 택하여 깨끗이 씻어 소금에 굴러 향아리에 담고, 남은 소금은 위에 뿌려 하룻밤 재운다. 향아리 맨 밑에 양념 주머니를 넣고 절인 무를 한 켠 놓고 저민 생강, 마늘 주머니와 청각, 홍고추, 삭힌 고추를 얹고 다시 무 담기를 반복한다. 맨 위에 갓과 실과 묶음을 얹고 대나무 잎으로 덮어 떠오르지 않도록 돌로 눌러 준다. 향아리에 소금물을 만들어 가만히 부어 뚜껑을 덮는다.

□ 장떡

된장, 찹쌀가루,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등 모든 재료를 넣어 반죽한 뒤 동글동글하게 빚어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지져 낸다.

□ 호박범벅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속을 긁어 다듬은 후 도톰하게 썰어 놓는다. 냄비에 물을 붓고 호박과 설탕을 넣고 푹 삶아지면 건더기는 건져 놓는다. 삶은 팔과 고구마, 밤을 호박 삶은 물에 넣고 무르게 삶는다. 어느 정도 익으면 찹쌀가루 푼 물을 조금씩 따라 부으면서 주걱으로 눌지 않게 저어 준 후 호박 건더기를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 낸 후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다.

(2) 북한 음식

가) 황해도 음식

황해도는 북쪽 지방의 곡창 지대로 연백 평야와 재령 평야에서 쌀의 생산량이 많으며 잡곡의 질도 좋고 풍부하다. 특히 조는 구수하고 알이 좋아서 잡곡밥을 많이 해먹는다.

또한 곡식은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이 생산되어 가축들의 사료로 이용되는데 질 좋은 사료를 먹는 가축의 고기 맛은 유별하다고 한다. 각 가정마다 닭을 많이 기르며, 닭은 살찌고 맛이 좋아 여러 음식에 다양하게 쓰고 있다. 만두나 밀국수를 즐겨 먹으며, 만두소로 닭고기를 많이 쓴다. 음식은 구수하고 소박하며 음식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음식의 양이 풍부하고 큼직큼직하게 만든다. 간은 싱겁거나 짜지 않고 충청도 음식과 비슷하다고 한다. 김치는 국물을 충분히 만들어서 냉면 국수나 찬밥을 말아먹기도 한다.

□ 주식류

잡곡밥, 김치밥, 비지밥, 김치말이, 냉콩국, 수수죽, 밀범벅, 밀다갈버무리, 호박만두

□ 찬 류

김치국, 김치순두부찌개, 조기매운탕, 돼비치탕, 애호박찌개, 돼지족조림, 붕어조림, 행적, 대합전, 잡곡전, 개구리구이, 호박지, 순대, 묵장떼묵, 호박김치, 동치미

□ 병과류

꿀물경단, 증편, 오쟁이떡, 수리치인절미, 잔치메시루떡, 무설기, 좁쌀떡, 혼인인절미, 혼인절편, 큰송편, 무정과, 닥알떡, 닥알범벅

□ 음청류

연한 식혜

나) 평안도 음식

평안도는 기후가 춥고 산세가 험하다. 서쪽은 서해안과 접하고 있어 해산물이 많고, 동쪽은 산이 높고 험하지만 들판도 넓어 산채와 밭곡식이 풍부하다. 특히, 신의주 평야나 안주 평야 등에서 비교적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잡곡 중에서 보리보다는 조를 많이 생산한다. 평안도 사람의 성품은 진취적이고 대륙적이어서 음식도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푸짐하다. 메밀로 만든 냉면과 만두국 같이 가루로 만든 음식이 많으며 국수를 즐겨 먹는 편이다. 또한 콩과 녹두 음식이 많은 것도 큰 특징이다.

추운 지방이라 기름진 육류음식을 즐겨 먹으며, 간은 맵고 짜지 않고 싱거우며 음식은 모양보다는 소담스럽게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양의 음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평양냉면, 순대·쟁반·온반이 유명하다.

□ 주식류

평양냉면, 온면, 강랑국수, 평안 만두국, 온반, 김치말이, 닭죽, 어복쟁반, 생치냉면, 굴린만두

□ 찬 류

돼지순대, 녹두지짐, 콩비지, 꽃게찜, 고사리국, 내포증탕, 오이 토장국, 돼지고기구이, 무공더덕전, 도라지장아찌, 냉채, 가지김치, 영변김장김치

□ 병과류

노티, 조개송편, 송기떡, 무지개떡, 꿀미떡, 꼬장떡, 빵떡, 니도 래미, 찰부꾸미, 과줄, 건과류, 엿, 태식, 돌배

다) 함경도 음식

함경도는 우리 나라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기후가 가장 추운 지방이어서 벼농사보다 밭농사를 많이 하며 잡곡의 질도 우수하고 많은 양이 생산된다. 주식으로 기장밥과 조밥을 많이 해 먹고, 쌀, 기장, 조, 수수가 매우 차지고 구수하다. 감자, 고구마도 품질이 좋아 녹말을 만들어 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먹는다. 동해안은 리만 한류와 동해 난류가 교류하는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로 명태, 대구, 삼치, 정어리, 청어 등의 생선이 많이 잡힌다. 음식의 간은 짜지 않고 담백하나 마늘, 고추 등 양념은 강하게 쓴다. 함

속초의 근·현대사

홍냉면은 생선회를 맵게 비벼먹는 것으로 다대기라는 말도 이 지방에서 나온 말로 고춧가루 양념의 별칭이다. 음식의 모양은 먹음직스럽고 크게 만들고, 장식이나 기교를 부리거나 사치스럽지 않다.

주식류

닭비빔밥, 잡곡밥, 찰조밥, 옥수수죽, 얼린코죽, 감자국수, 감자 막가리만두, 회냉면, 물냉면

찬 류

가릿국, 다시마냉국, 세천어국(천엽국), 동태매운탕, 비웃구이, 영계찜, 닭섭산적, 가자미식해, 도토리묵식해, 고등어회, 콩나물김치, 원산잡채, 채칼김치, 함경도 대구 깍두기, 봄김치, 동태순대

병과류

오그랑떡, 함경도인절미, 달떡, 찹쌀구비, 괴명떡, 꼬장떡, 언감자떡, 산자, 강정, 과줄, 만두과, 약과, 들깨엿강정, 콩엿강정

음청류

식혜(단감주)

제7장
속초의 근·현대사
사료 연표

제7장 속초의 근·현대사 사료 연표

□□ 1914년

- 3. 1 부령 제111호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 도천면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로 구성하여 대포리에 면사무소 두었음

□□ 1919년

- 4. 4 3·1만세운동, 4월 5일 도천면의 군중 8백명이
- 9 대포리 경찰 주재소에서 시위
- 4. 1 1면 1교정책에 의해 대포공립학교 설립

□□ 1936년

- 4. 1 조선총독부 소학교 교육령에 의해 대포공립심상소 학교로 개칭

□□ 1937년

- 7. 1 도천면을 속초면으로 개칭하고 면사무소를 속초리로 이동

□□ 1941년

- 4. 1 대포공립심상소학교가 대포국민학교로 개칭

□□ 1942년

- 10. 1 속초읍으로 승격

□□ 1945년

- 8. 15 8·15해방. 남북한 38선으로 분단.
8월말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38선 형성.
속초면으로 북한에 편입

□□ 1946년

- 2. 19 속초애국동지회 사건. 10명 체포
- 7. 29 38이남 양양지역 반공청년 친목회 조직

□□ 1948년

- 8월 소련군, 38이북 양양군지역 주둔

□□ 1949년

- 6. 29 월남 반공청년들로 구성된 육군정보국 소속 호립 유격대 제5대대, 제6대대 120명 설악산 등 38이북 지역서 유격전 개시

□□ 1950년

- 6. 25 한국전쟁 발발. 북한군 5사단, 함북 나남을 기차로 출발하여 원산, 속초, 양양으로 이동, 동해안 국군 전선 돌파. 속초는 개전초기 북한군 제 5사단 진격코스로 후방보급루트 역할. 북한군 육전대(해병대)인 제549부대, 속초에 대기하고 있다가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와 명주군 정동진과 삼척군 임원진 상륙

- 9. 30 국방군 제1군단장,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명령 제109호 발동. 수도사단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대령) 38선 남쪽 2km지점 양양 서림리 진출
- 10. 1 국방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 양양지역 수복. 제3사단, 제23연대(연대장 김종순대령)를 선봉으로 제1군단 양양 38선 이북 진격
- 10. 3 제3사단 제26연대(연대장 이치업대령) 간성 탈환
- 12월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 후퇴. 홍남 철수. 미군 L.S.T로 많은 피난민들 부산에 상륙

□□ 1951년

- 1월초 국군과 유엔군 38선 이남으로 철수 시작
- 4. 4 38이남지역 재탈환
- 4월 영흥군민회 창립. 속초읍 속초리 3구 조명상회에서 군민 60여명 참석, 군민총회 개최. 초대회장 김치룡씨 선출. 51년 당시 군민수 400여세대
- 5월 제1군단 수도사단, 북한군 유격대와 설악산지구 전투
- 6월 양양군지역 재수복

속초의 근현대사

- 8. 18 군정 실시. 수복지구인 양양군, 유엔군사령부 관할 하에 통치. 국군 제1군단 사령관이 군정 집행. 각 읍면에 민정관(읍·면장) 선임. 군정사령부 속초에 설치.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
- 10. 8 속초초등학교 개교
- 10. 16 속초중학교, 논산리 빈집 이용 3학급 남녀공학으로 설립.

□□ 1952년

- 4. 1 속초리 5구와 3구를 잇는 나룻배 1척 건조 진수. 승선인원 50명
- 4. 15 동해일보사 창립
- 4. 17 동해일보 창간호 500부 발행. 등사판
- 4. 20 민간인 전용 승용차 운행시작
- 4. 23 군·관·민 친선체육대회 개최
 ~ 24
- 5. 28 정평(定平)향우회 발족
- 5. 18 양양고아원 개원식. 속초읍 상도문리에 전쟁고아 64명 수용
- 6. 1 38선 이남지역과 일반 우체물교환 취급업무 개시
- 6. 2 속초고등학교 개교
- 7. 15 제1군 제2주년 기념식. 이승만 대통령과 미8군사령관 밴프리트대장 등 참석

- 8. 8 군중대회(대포비행장에서 3만여명)
- 9. 1 교육 수복 1주년 기념행사. 미국공보원에서 교재 6상자 기증
- 9. 21 서울 소재 미국 공보원에서 라디오 기증
- 10. 22 북한 출신 청년 5용사 영랑호 부근서 공비들과 교전 중 전사. 5용사 : 김덕범(함경북도 출신), 지창하(함경북도출신), 이기구(함경남도출신), 김병선(평안북도출신), 김화수(평안남도출신)

□□ 1953년

- 4. 1 속초지구 단천군민회 창립
- 5. 29 이원군민회 창립
- 6. 28 반공포로 9명 귀향
- 7. 1 온정초등학교 개교(당시 설악국민학교).
65년 11월15일 온정국민학교로 교명 개명
- 7. 27 휴전협정 체결. 이날 밤 10시를 기해 155마일 휴전선에서 포성이 멎음
- 8. 16 수복지구 기자단 결성
- 8. 18 속초읍 청사 준공식
- 8. 26 국회 본회의, 38선 이북 미수복지구 행정권 이양 문제를 정부 및 UN당국과 교섭코저 12명으로된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채택
- 8. 30 속초 카톨릭 성당준공식

- 9. 6 밀림극장에서 제1차 권투시합
- 9. 17 속초구호병원 신축 기공식
- 9. 18 속초어업조합 신축
- 9. 25 속초유치원 개원식
- 10. 21 읍장선출. 민주선거 실시.
- 10. 28 속초체육회 결성
- 11. 3 양양군수 김주혁 임명(이때부터 민정관을 군수, 읍장, 면장으로 개칭)
- 11. 5 속초중앙시장 준공식. 총공사비 8백여만원. 점포 263개
- 11. 8 2만여명의 양양주민들, 대포리 비행장에서 수복지구 행정권 정부이양 촉구 민중대회 개최. 이승만 대통령, 손원일 국방장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 참석. 이승만대통령 “조속한 시일내 수복지구 행정을 정부가 이양받는데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연설. 이형근 국군 제1군단장, 최규각 강원도지사 등도 참석
- 11. 10 우체국 설치
- 12. 4 동해상사 강릉-속초간 민간인 버스 하루 2회씩 운행
- 12. 17 수복지후 최대 화재 발생. 속초읍 3구와 4구 전소. 피해액 약 560여만원. 김법린 문교부장관 등 문교관계자 수복지구 교육, 문화시찰차 래방

□□ 1954년

- 2. 1 주봉초등학교 승격(대포초등학교 부설)
- 3. 15 속초, 인제 등 수복지구 피난농민 복귀 시작
- 3월 영북지역 함경도민회 결성
- 5. 10 수복지기념탑 건립. 피난민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자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 건립. 이형찬 설계, 박철성 제작. 김근식 당시 속초읍장과 이형근 제1군 단장의 지원과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들 성금 모아 건립.
- 5. 15 고원군민회 창립
- 8. 12 유엔군 사령부, “38이북 수복지구의 행정권을 한국정부에 정식 이양할 용의 있다” 고 발표
- 8. 18 수복지구 행정권 한미협정 초안작성 착수
- 8. 28 정부,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에 대비, 수복지구 행정인수위원단 조직키로.
- 9. 4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문제 관련, 한미교섭 제2차 회담을 미8군사령부에서 개최. 행정권 이양에 관한 행정적인 세목에 완전 합의
- 9. 13 대홍수
- 9. 18 정부,□□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제정.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식 회부

속초의 근현대사

- 9. 29 국회 51차 본회의,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을 상정하고 전문11조의 정부원안을 전문9조로 수정 통과
- 10. 3 정부·유엔군사령부, 수복지구 행정권 인수협정에 서명
- 10. 21 정부,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 공포 시행
- 11. 14 수복지구 행정권 인수식 거행
- 11. 17 유엔군 사령부, 한국정부에 양양군 행정권 이양. 양양군수에 김주혁 임명
- 11. 27 속초의용소방대 발족

□□ 1955년

- 3월 동해일보, 공보처 발행허가 받지 못해 폐간
- 5. 24 최초의 여성전문교육기관 속초여자중학교 개교
- 7. 17 속초지구 문천군민회 창립
- 11. 6 속초지구 정평군민회 창립
- 12. 1 영랑초등학교 개교
속초 우체국 개국
- 12. 2 목호지방 해무청 속초출장소 개소

□□ 1956년

- 1. 25 대설
- 3. 1 대설

- 5월 속초지구 공성군민회 창립
- 5. 15 수복지구 최초 선거.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 양양군 지역 개표결과 이승만 33,876표, 조봉암 358표, 이승만 99%득표율 기록. 부통령선거 이기붕 29,935표, 장면 2,899표
- 6. 21 일본공산당원 19명 체포
- 7. 23 KBS속초방송국 시험전파 발사. 출력 0.3kw, 주파수1,000kc
- 8. 1 KBS속초이동방송국 개국
- 10월 통천군민회 영동지회 창립
- 12. 31 강원도립 속초병원 설립

□□ 1957년

- 2. 14 함남북청 출신들 정월대보름 맞아 북청사자놀이 속초서 첫 재연. 앞채사자 김수석, 통소 김하륜
- 6. 8 속초등대건립, 첫 점등

□□ 1958년

- 북청도청 건립. 전성우 속초읍장으로부터 금호동 소재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 동향친목계원 36명이 손수 건립
길주, 명천 친목회 결성
- 1. 19 폭풍우로 속초항에서 선박 38척 파손

속초의 근현대사

- 4. 13 청호초등학교 13학급으로 개교
- 5. 2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수복지구 속초 첫 국회의원 선거. 양양군, 자유당 이동근 당선(선거인수 38,153명 10,366표 득표율29.7% 경쟁률 9:1)
- 7. 5 영국 황실 아시아학회 관광단 방문 계기로 속초-신흥사길 도로 착공
- 7. 15 속초해상과 고성지구에서 무장간첩 8명 생포
- 10. 9 전국체육대회 속초중학교 배구 패권 장악
- 12. 30 폭풍우로 명태잡이 어선 40여척 조난

□□ 1959년

- 4. 10 영북지구 함경남도 도민회 창립
- 5. 2 북청동향친목계가 구성되어 북청사자놀이 공연
- 5. 20 속초지구 황해도민회 창립
- 5. 31 함남 원산시민회 창립
- 6월 영북지역 함북도민회 결성
- 7. 3 영북지역 최초 극장, 현대극장 개관
- 11. 13 속초항 소속 명태잡이 어선 용진호와 신영호 동해 휴전선 부근서 피랍
- 11. 14 홍신희 선원 6명이 북괴 무장선에 의해 강제 피랍
- 12. 22 해군에서 어로저지선을 북위 33°33분으로 변경

□□ 1960년

- 1. 1 설악산관광호텔 개관
- 1. 17 대설, 미시령 교통두절
- 2. 20 눈으로 선박 21척 침몰 또는 파손
- 3. 15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선거, 자유당 이승만, 이기붕 당선
- 5. 5 속초여자중학교 동맹휴학
- 7. 29 제5대 민의원 및 제1대 참의원 선거. 민의원에 함중빈, 참의원에 정순응, 김대식, 김병로, 김진구 당선
- 8. 5 정낙현 북한군 공군소위 MIG15 제트기 몰고 속초 비행장(육군 제5비행장. 당시 대포비행장)에 착륙 귀순
- 8. 27 속초어업조합 임시 통상의원 회의

□□ 1961년

- 2. 15 속초지서 형사대에서 간첩 1명 체포
- 4. 7 대진리 앞 해상에서 어선 6척 선원 43명 납북
- 8. 15 영랑호 순국5용사 추모비 건립(8. 26 묘비 제막식)
- 8. 24 이주민 학사평 도착
- 11. 8 강풍으로 가옥 4동 도괴, 11동 반파
- 11. 29 속초항 소속 제7만창호(선원15명) 피랍. 12월12일 귀환

- 12. 31 KBS속초이동방송국이 KBS속초방송국으로 승격

□□ 1962년

- 1월 신흥군민회 창립
- 1. 2 풍랑에 속초 선적 어선 5척 침몰. 선원 24명 사망
- 1. 4 이주일 부의장 속초방문, 시 승격 건의
- 1. 17 어부합동위령제
- 2. 10 강풍으로 선박 9척 침몰, 주택전파 57동
- 2. 19 풍랑사고로 어부 4명, 어선 43척 침몰 또는 파손
- 3. 2 강원일보 속초지사 설립
- 4. 1 속초어업협동조합 발족
- 4. 27 속초항이 지정항
- 6. 15 속초지구 평안도민회 창립
- 7. 24 속초시제 실시 추진위원회 구성
- 8. 16 속초시제 실시 추진위원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에게 시승격 청원
- 10. 11 속초시승격 차관회의서 통과
- 11. 21 정부, ‘시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제1176호’ 공포
- 12. 17 국민투표 실시

□□ 1963년

- 1. 1 법률 제1176호로 속초읍에서 시로 승격. 당시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에 22개 마을과 312개 반으로 구성. 인구는 10,864가구에 55,619명. 김치룡 시장서리 임명
- 1. 6 동해안에 해일이 엄습하여 선박 98척이 파손 또는 침몰되고 가옥도 상당수 파괴
- 1. 7 속초시 승격 기념대회 개최. 박경원 내무부장관 이용 도지사 참석. 시제 실시 경축 시가행진과 비행기 전단 살포
- 2. 1 국민은행 속초지점 개점
- 2. 12 큰화재 발생. 어판장 주유선 화재
- 2. 25 1대 이동보 초대시장 취임
- 3. 20 속초여자고등학교 3학급으로 속초고등학교서 분리 개교. 속초여중과 병설
- 4. 1 중앙초등학교 개교
- 5. 18 속초예술제 개최
- 5. 19 제3회 시,군대항 체육대회 개막
- 8. 9 태풍 베스호 동해안 강타
- 8. 11 어민 3백여명 「어업협동조합 통상위원(총대) 출신임 건의서」 농림장관 등에 제출

속초의 근현대사

- 8. 17 상이군경회 속초시지회 창립
- 8. 23 전물군경유족회 속초시지회 창립
- 9. 7 대포리-신홍사간 12km 관광로 포장공사 준공식
- 9. 16 비선교 개통식
- 10. 15 제5대 대통령 선거. 속초시 개표결과 박정희 7,620표, 윤보선 11,035표
- 10. 26 양양경찰서 속초시로 이전. 속초경찰서로 명칭 변경
- 11. 23 화재로 소실된 속초어업협동조합 어판장 낙성식 재향경우회 속초시지회 창립
- 11. 26 제6대 국회의원선거 민주공화당 김종호 당선

□□ 1964년

- 1. 11 해일, 폭설로 동해안 선박 50척 파괴
- 1월 강원도 영동분청 유치운동
- 1. 30 속초시개발위원회 발족(82. 1. 30 속초시변영회로 개칭)
- 2월 속초시내 7개국교 신입생 2,300명 달해 교실부족 사태
- 3. 28 속초고교생 5백여명 한일회담 반대 데모. 「평화선을 사수하라」는 플래카드 들고 시청앞 광장까지 거리행진
- 4. 20 학사평 저수지 개수식
- 5. 8 속초지구 한주군민회 창립

- 6. 6 속초시 1구 등대 뒷산에 충혼탑 건립 제막식
- 7. 16 전력유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석 시장·한국전력, 전기가설공사 계약 체결
- 8. 12 음협주관으로 학생음악 경연
- 8. 22 수복지구 숙원인 전기복구공사 기공식. 속초중학교 교정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을 비롯 박경원 강원도지사, 김종호 국회의원 등 참석. 총 공사비 1억5천4백만원 소요
- 11. 29 제7만창호 강제 납북
- 12. 23 영북지구 전기복구공사 준공식 거행. 강릉-속초간 72km 고압선 송전시설공사 완료. 시내에 네온사인 설치

□□ 1965년

- 1. 1 한국전력(주)강릉지점 속초출장소 신설
- 1. 9 폭설
- 1. 18 부두노조 조합원 4백여명 현대극장서 임시총회 열고 양양광산 광석 부두하역작업 기계화 반대 투쟁 결의
- 3. 1 예총 속초지부 창립
- 3월 신포읍민회, 명신중학교에서 창립총회
- 3. 22 속초문화원 설립

속초의 근현대사

- 4. 7 강릉-거진간 철도개통 위한 영북지구 철도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 4. 10 속초어업협동조합 신용업무 개시
- 5. 19 남북어선 사건
- 6. 9 속초1구-6구 가로등 가설
- 6. 26 설악산 구름다리 낙성
- 7. 11 속초고교생 2백여명 대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 학생회장등 11명 연행
- 8. 18 도립속초병원 신축 기공식
- 8. 22 무장괴한 5명이 외설악 중턱에서 숲구이 민간인 4명 살해
- 9. 2 속초고등학교 교사 신축 기공식. 속초시 6구 신축 부지내 2층 콘크리트 건물로 14개 교실 마련
- 9월 길주,명천 망향비 건립. 비문,□□來否來(올래야 올수 없고), 去否去(갈래야 갈 수 없고)
- 10. 9 무장괴한 3명 출현하여 국군 1명 피살, 1명 납치
- 10. 30 향군 주최,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제막식. 한국 전쟁당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영령 추모
- 11. 5 문공부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
- 11. 9 주봉국민학교가 외설악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11. 23 강원도 수산진흥 어민대회 속초서 개최.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라 대일청구권 자금의 중점투자 요구
- 12. 10 북청도청서 전국부두노조 속초시분회 임시총회 개최. 305명 회원 참석, 민수물자(철광석) 노임인상 요구 쟁의신고 결의, 월수입 1만5백24원선 주장. 국제은행(IBRD)조사단 일행 속초항 개발위한 현지조사차 속초항 방문
- 12. 11 외설악초등학교 설악분교장 개교
- 12. 30 동해안에 풍설 참극, 선원 43명 익사

□□ 1966년

- 1. 1 속초시 동제 실시. 속초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95조)공포로 리를 동으로 변경시행. 12개 동으로 구성
- 1. 26 속초고등학교 교사 준공식. 김동진 교육감, 박건주 속초시장, 이달영 속초고등학교 사친회장 등 참석
- 2. 24 납북어선 선장 첫 구속. 납북됐다 귀환한 행영호 선장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구속
- 7. 1 속초상공회의소 창립
- 7. 26 속초지구 이원군민회 창립
- 8. 25 설악산 비선대~금강굴간 유료 관광로 개통
- 9. 7 속초원자력연구소, 방사성고체 속초 동남방 10마일 수중에 투하 폐기

속초의 근현대사

- 3. 17 조양재건학교 개교식
속초어업협동조합에서 신용업무 취급 시작
- 5월 속초상공회의소 설립
- 6. 4 향성사지3층석탑이 보물 제433호로 지정
- 6. 17 육관 방첩대, 간첩 16명 검거
- 10. 1 제1회 설악제. 설악동에서 개최
- 10. 24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북청사자놀이 참가.
김수석 개인상 수상
- 11. 5 강릉측후소 속초출장소 발족
- 11. 17 속초항 수로확장공사 기공식. 폭 60m수로 80m로
늘려 3천톤급 선박출입항 가능

□□ 1967년

- 1. 19 해군함정 56함 피격 침몰
- 2. 26 남북어선 복성호(선원8명) 남북 89일만에 귀환
- 4. 6 영랑동 공동시장 개축 준공. 수복지구 특별재정보조금 700만원 소요.
- 4. 14 유자땅어선 전수식.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19척(20톤급) 건조
- 5. 3 제6대 대통령선거 실시 민주공화당 박정희 당선
- 5. 20 미스강원선발대회 개최
- 6. 2 문흥주 문교부장관 속초방문. 수복지구 노후교실 대책 언급

- 6. 3 남북 콩치잡이 어선 용진호(속초선적 20톤) 75일 만에 속초항 귀환. 선원 8명 구속
- 6. 5 설악중학교 개교
- 6. 8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공화당 김종호 당선
- 6.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개원·개청
- 8. 1 서울~속초 간 항공로 개통
- 9. 8 양양전매서 폐쇄, 속초전매서로 개칭
- 10. 8 제2회 설악제 개최
- 10. 9 박정희 대통령 가족 설악산 탐방
- 10. 31 동해어로지도본부 발족
- 11. 3 동해어로저지선 근해상에서 명태잡이 어선 10척, 어부 60명 납북
- 11. 11 휴전선 부근서 금성호(5.5톤 선원6명) 피랍

□□ 1968년

- 1. 6 속초선적 신광호 등 7척 피랍
- 1. 11 어선3척 선원20명 납북
- 1. 23 미해군 정보수집함 ‘프에블로호’ 북한해군에 나포. 장교 6명, 사병 75명, 민간인 2명 등 83명 승선
- 2. 10 속초지역 신년도 대학진학자 15명

속초의 근현대사

- 2. 27 1월초에 납북된 산양호 등 어선 5척과 선원 34명 귀환
- 3. 18 춘천지검 속초지청, “납북 귀환어부 수산업법 위반 취급하던 종래 방침 바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적용하겠다.” 발표
- 3. 21 금성호 등 납북어선 9척과 선원 51명 귀환
- 3. 27 춘천지방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납북 귀환어부 20명에게 실형 선고
- 4. 13 속초시 교육청사 신축 낙성식
- 6. 18 영랑동 봉직공장 기공식
- 7월 속초지구 북청군민회 창립
- 8. 2 독립속초병원 신축청사 낙성식
- 8. 6 속초선적 오징어잡이 어선 제2덕수호(99톤), 효중호(11톤)등 어선4척 피랍
- 8. 15 속초시민현장 제정 선포
- 9. 9 속초세무서 신설(9.13 개청)
- 10. 3 대한항공 속초, 서울간 하루 3회씩 취항
- 10. 9 제3회 설악제
- 10. 24 사상최대 해일 피해. 엄청난 폭풍과 해일이 동해안을 강타해 속초지역에서만 150여동의 가옥이 침수되어 5천 9백여명의 이재민 발생

- 11. 20 재해어선 복구 동력선 건조 기공식. 해일로 전과된 동력선 208척 건조작업 착수
- 12. 1 어로저지선 5마일 남하 항의, 어민들 중앙국교 운동장에서 성토대회
- 12. 22 속초방송국 신청사로 이전
- 12. 28 조양동에 재해주택 825동 복구 준공식

□□ 1969년

- 1. 21 설악산이 교통부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
- 2. 14 한국산악회 해외원정 훈련 등반대원 10명, 설악산서 눈사태로 조난
- 2. 17 폭설로 영북지역 초중고 각급학교 휴교령. 2월13일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 17일에 산간지방의 경우 최고 350cm의 적설량. 귀성객들 눈속에 고립
- 2. 25 육군보안사령부, 남북어부 간첩단 15명 검거
- 4. 12 호림유격대원 국립묘지 안장 결정
- 4. 15 속초수산센터(종합어시장) 개장식
- 4. 23 설악문우회 주최로 문학의 밤 행사 개최(가야다방)
- 5. 20 68해일 피해 복구 동력어선 208척 진수식. 조양동 청초호변에서 김재식 수산청장, 최양진 부지사 등 기관장과 어민 3천여명 참석
- 8월 통천군민회 창립

속초의 근현대사

- 8. 7 내무부, 속초항에 해양경찰기지대 설치.
- 8. 15 속초시민헌장 선포.
- 10. 1 아동 증가에 따라 속초초등학교생 1,036명 분리, 교동초등학교 개교
- 10. 3 제4회 설악제
- 10. 15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제막식
- 10. 17 속초시, 3선개헌 국민투표 찬성률 63.6%
- 10. 28 속초축후소 중앙동 시청 뒷산에 준공
- 11. 1 해양경찰대 속초기지대 발족
- 11. 15 청호동 청호시장 개장. 8평짜리 점포 75채
- 12. 13 속초시청 광장에서 강릉발 서울행 KAL여객기 남북 규탄 켈기대회
- 12. 15 설악관광주식회사 설립

□□ 1970년

- 3. 1 속초상업고등학교(당시 속초실업고등학교)개교. 9학급으로 설립
- 3. 24 설악산을 건설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
- 3. 27 김종호 국회의원, 영북지역에 TV송출계획 발표
- 5. 5 대한항공 서울~속초간 여객기 재 취항. 백선영 교통부장관, 이상희 국회교체위원장, 김종호 국회의원, 조중훈 사장등 참석. 여객기는 F27(50인승)로 하루 1회 운항

- 7. 3 폭우로 가옥, 농경지 등 침수. 6일동안 내린 폭우로 중앙시장 점포 120개 침수. 영랑동, 동명동 30세대 대피. 청호동, 조양동, 중앙동 등 일부 해안가 주택들 해일로 침수. 이재민들 속초중, 속초국교, 명신고등공민학교 등 분산 수용
- 7. 18 강릉측후소 속초출장소가 속초측후소 승격
- 10. 2 제5회 설악제
- 10. 9 설악산 권금성 축조연대 고증. 서울문리대 이승녕교수에 의해 권금성 축조연대가 고려 고종 41년(1253)으로 밝혀짐
- 12. 1 춘천지법 속초지원 및 춘천지검 청사 준공식

□□ 1971년

- 1. 23 속초발 서울행 KAL여객기 납북위기 모면.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해변에 불시착
- 2. 7 강풍으로 어선, 가옥 피해. 초속 20~30m의 강풍이 몰아쳐 속초항에 정박중이던 어선 15척 침몰, 11척 좌초, 8척 전파. 가옥도 137채가 파손돼 372명의 이재민 발생. 5명 실종
- 3. 1 설악여자중학교 개교
- 3. 2 조양초등학교 개교
- 3. 21 금강산호, 피랍 9개월만에 속초항 귀환
- 4. 27 제7대 대통령선거, 속초시 박정희 13,577표, 김대중 13,358표

속초의 근현대사

- 5. 31 남북 동해호 선원 6명, 7개월 20일만에 귀환
- 6. 3 창동호 납북. 72년 5월 9일 귀환
- 7. 1 설악산케이블카 개통
- 7. 5 단천군민회 망향비 영랑호에 건립
- 9월 흉어 계속. 속초 315가구 1,900여명 끼니 굶어
- 10. 8 제6회 설악제
- 10. 22 설악산에서 단풍제 개최
- 10. 25 제3명성호(선원20명) 납북
- 10. 27 춘천지검 속초지청 이갑열 검사, “동해안서 납북됐다 귀환한 선원 984명 일체 어선 승선 금지” 밝혀
- 11. 12 원산시민회, 속초시 교동 산250-1번지에 망향의 동산 ‘향원’ 조성
- 11. 16 북한탈출 귀순용사 김영남 상병, 속초서 아버지 김홍성(51. 중앙동)만나
- 12. 20 도 유형문화재 지정. 신흥사 극락보전과 경관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14호와 15호로 지정됨
- 12. 27 한계령 도로 개통. 양양-인제의 지름길로 육군 9598부대(부대장 박계주)가 66년 9월에 착공하여 6년만에 완공

□□ 1972년

- 2. 8 폭설로 속초항 3백여 어선 출어 못해. 동해안 어민구호 위해 강원도 긴급구조 양곡 32,000kg 배정
- 2. 28 영주철도국, 철도부지 사용가구 철거명령
- 3. 15 설악제 폐지 결정(단 행사를 축소하고 등산대회를 매년 개최 결정)
- 5. 6 속초지구 해양경찰대로 승격
- 5월 신라시대 보물 옥동절구 발견. 신흥사 전신인 향성사지의 보물 옥동절구가 핏골 마을에서 발견됨
- 6. 11 설악산 화재 발생
- 8. 18 군용헬기 케이블카선에 걸려 추락. 설악산 케이블카 헬기충돌로 운행 중단
- 9. 15 삼창호 등 4척과 어부 93명, 속초항 귀환
- 9. 17 원산시민회 망향탑 건립
- 9. 18 집중호우 동반한 해일로 청호동 가옥 200여세대 침수, 갯배줄 끊겨 운항 중단
- 10. 7 제7회 설악제(간소화) 등산대회
- 11. 18 제1회 설악문화상 시상식
- 11. 21 유신개헌안 국민투표 속초시 찬성률 91.5%
- 12. 15 제1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김원진, 박세각, 최준규, 이관희 당선

□□ 1973년

- 1. 1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가 장사동으로 편입
(대통령령 제 6542호)
- 2. 27 제9대 국회의원선거. 정일권, 김인기 당선
- 3. 1 KBS속초방송국이 한국방송공사 속초방송국으로
개편 발족
- 3. 9 속초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 3. 18 함주군민회 창립총회
- 4. 15 속초지구 흥남시민회 창립
- 6. 1 속초항 어민예비군 발대식. 어선 226척 승선인원
1400명
- 7. 1 고성군 장천리-사진리 속초시에 편입. 장사동 신
설, 13개동
- 7. 31 납북어부 80명, 어선 8척 속초항으로 귀환
- 10. 6 제8회 설악제
- 10. 20 속초종합예술제 개최
- 11. 7 전국 문화원장 회의 개최
- 11. 22 석유과동에 따른 대책으로 속초택시 6부제 운행

□□ 1974년

- 2. 17 서해어선 격침 북괴만행 규탄 쫓기대회
- 2. 27 설악산 관광호텔 준공

- 3. 1 설악분교가 설악국민학교로 승격
- 3. 8 속초여자종합고등학교가 도내 중·고 사격대회에서 우승
- 4. 22 속초지방, 초속 460m 강풍, 기상관측 사상 강원도내 최고기록
- 4. 30 수복기념탑 주변 소공원 조성
- 5월 실향민 도시 속초시, 고향심기운동 전개
- 5. 20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개인 대인50원, 군경, 중고생30원, 어린이20원)
- 6. 28 해경 경비정 제863호, 북한함정 공격받고 침몰
- 6. 29 반공연맹 속초, 양양, 고성, 강릉 4개 지부 공동주최로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해경 경비정 863호 격침시킨 북괴만행 규탄대회
- 7. 4 해경 제863호 승무원 영결식
- 7. 26 속초시, 무허가 건물 1,500여채 정식허가 결정
- 8. 28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북괴규탄 영북지구 총시민결기대회
- 10. 3 제9회 설악제
- 12. 14 청호마을금고 설립

□□ 1975년

- 2. 7 신흥사가 지방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

속초의 근현대사

- 2. 15 해군함정, 영해 침범한 북한 쾌속정 1척 격침
- 3. 9 제1회 연날리기 대회(속초문화원 주최)
- 4. 15 영동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설악동을 건설부에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 5월 함북 학생군·학남면 친목회 결성
- 5. 4 흥남시민회의 모체인 서호친목회, 명신고등공민학교 강당서 결성
- 6. 27 속초고등학교등 3개학교 학도호국단 발단식
- 7. 13 속초해수욕장 개장
- 9. 10 속초항 준설작업장에서 소련제 기뢰 3개 발견
- 9. 18 재속 함남 북청군 신포읍민회 망향동산 향원비 건립 제막식
- 10. 17 제10회 설악제
- 10. 19 영동고속도로 개통후 첫 휴일 관광객 몰려
- 10. 20 제1회 속초시 문화상 시상
- 11. 12 중앙새마을 금고 설립
- 11. 15 이북5도민회, 대원극장에서 이산가족 신년 성묘축구 속초시민 쫓기대회. ‘북송 일본인처 자유왕래 실천 본부장’ 인 이께다후미꼬 여사 격려사

□□ 1976년

- 2. 9 중학교 무시험 추천 실시

- 6. 20 고성군민회 1차 발족
- 7. 6 금호동 출신 김종학(21.충무무공훈장)일병, 중부전선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한 공훈으로 특별휴가 동보극장에서 환영식
- 8. 30 제3신진호 귀향중 표류하다 피랍
부녀마을금고설립(교동 새마을금고 전신)
- 9. 10 속초학생체육관 개관
- 9. 17 해경 쾌속 경비함 취역식
- 10. 1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공사 착공. 숙박지구, 공공시설, 주차장 등 조성
- 10. 8 제11회 설악제 개최
- 10. 14 제3신진호 속초항 귀환. 19일, 선원들 속초시청서 기자회견
- 10. 18 설악산에서 박격폭탄 76발 발견, 군경합동 탄약반 제거
- 10. 29 ~ 11. 5 국내 사상 최대 해상사고 발생. 울릉도 근해 대화퇴 어장으로 오징어잡이 나갔던 속초항 소속 금성호(20톤)등 어선 48척, 초속 14~16m의 강풍과 5~6m의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 침몰. 이 사고로 어민 408명이 참변을 당하고 유가족 2000여명 발생. 유가족들의 애절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적 구호운동

- 11. 19 제2회 속초시 문화상 시상

□□ 1977년

- 4. 1 속초어업협동조합이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4. 3 일북문화관 준공식
- 4. 10 갑산군민회 창립
- 4. 23 흥남시민회, 망향탑 제막식 겸 시민회 총회
- 5. 8 재속 함남 서호진 실향민친목회 망향비 제막식
- 7. 5 영랑새마을금고 설립
- 7. 10 함흥시민회 창립총회 개최
- 8. 1 서울-속초간 고속버스 개통. 동부고속(8대), 중앙고속(4대)이 하루 6회씩 운행
- 10. 1 제12회 설악제
- 11. 25 척산온천 시추성공. 지하 300m에서 40°C 물줄기 솟음
- 12. 1 오징어잡이 어선 제11강원호 울릉도 근해서 침몰. 선원31명 중 26명은 실종되고 5명은 한겨울에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다 66시간만에 극적 구조
- 12. 28 속초소방서 개서. 물탱크차 5대, 펌프차 2대, 장비차 1대 보유

□□ 1978년

- 2. 17 동해안 일대 폭풍. 어선 7척 침몰, 선원 29명 실종

- 3. 17 설향호텔(설악파크호텔) 기공식
- 3. 18 설악산 현장 제정식
- 4. 9 뉴설악관광호텔 개관
- 4. 10 동해북부선 12개 역사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속초 역사, 37년 애환 간직한 채 철거
- 5. 6 목우재 도로 개통
- 5. 12 (주)동방원양개발공사의 자회사 동방호산 개발 발족으로 영랑호 개발
- 5. 18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유성국, 이광춘, 서동석, 박상희 당선
- 5. 27 흥원향우회와 삼호친목회를 통합하여 흥원군민회 창립
- 7. 24 설악국민학교 신축교사 준공
- 10. 14 제13회 설악제
- 10. 28 설악동 신단지 조성공사 완공기념 제4회 국립공원대회
- 11. 29 동해안 일대 해일피해. 68년 이후 최대규모 해일로 선박 424척 피해
- 12. 9 속초시 상수도 확장공사 통수식. 설악산 쌍천을 취수원으로 1일 1만 5천톤 생산. 상수도 신설허가 신청 무제한 접수 가능해져

속초의 근현대사

- 12. 11 설악산 전적비 제막식. 설악산 소공원내 120톤의 화강암으로 약진국군 동상 조각
- 12. 12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정일권, 함종빈 당선

□□ 1979년

- 2. 25 금호새마을금고 설립
- 4. 9 장사동 해송새마을금고 설립
- 6. 20 동명새마을금고 설립
- 7. 28 박정희 대통령 설악산 방문. 설악동 일대 개발사업 현지시찰
- 8. 23 속초-고성 대진리간 국도 포장공사 착공
- 8. 27 청학새마을금고 설립
- 9. 1 외설악국민학교와 설악국민학교 통합. 교명 설악국민학교로
- 9. 28 한국전쟁 당시 설악산 격전지에서 전사한 무명용사유골찾기 운동 발기

□□ 1980년

- 2. 6 속초항 결빙. 1월말부터 한파가 계속되자 속초항의 2/3정도가 결빙돼 어선들 얼음에 갇혀 꼼짝 못함
- 3. 27 호텔 설악파크 준공
- 4. 19 속초지역, 최대풍속 46.0m의 강풍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 6월 영북지역 3개월째 가뭄 극심. 가뭄극복 총 비상령
- 7. 19 속초공설운동장에서 2만 5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간첩선신고 유공자 환영 및 비상시국에 대한 속초 시민 반공단합대회
- 9. 8 제2남진호 북한 경비정에 피랍
- 10. 3 제15회 설악제
- 10. 22 국민투표 실시
- 11월 함경남도 도민회 장학금 첫 전달. 이사회 구성, 장학생 5명 선발
- 12. 16 장사동 산268-2에서 나기봉이 석검 등 유물 10점 발견
- 12. 26 속초수협, 속초항 개항 45년 이래 사상최대 위판고 130억원 올려 대통령상 수상

□□ 1981년

- 3. 25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정재철, 허경구 당선
- 3. 28 속초경상전문대학(현 동우대학) 개교식. 학교법인 동성학원(이사장 전재욱)에 의해 설립. 경영학과 등 8개과 1,150명 입학
- 4. 8 한국콘도미니움 개관
- 5월 양화면민회 창립
- 5. 20 제2남진호 선원 19명, 납북 255일만에 귀환

속초의 근현대사

- 5. 23 명성관광 휴양시설 기공식. 장사동 50만평 부지에 대형 콘도미니엄 및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 6. 14 속초시, 살기좋은 도시 3위 선정
- 7. 23 속초항 선적 영기호 울릉도 동북방에서 영해침범 이유로 소련에 피랍
- 9. 28 제1회 통일염원 도지사기 쟁탈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대회가 강릉~속초간 왕복으로 열림
- 10. 10 제16회 설악제
- 12. 24 설악 유스호스텔 준공
- 12. 29 명성관광 휴양시설 1차분인 콘도미니엄 200실 완공

□□ 1982년

- 1. 1 속초전화국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강원지사 속초사업소가 속초우체국에서 분리 독립
- 1. 6 야간 통행금지 해제
- 1. 30 속초시 번영회 발기총회
- 2. 11 명성콘도미니엄 설립
- 4. 10 한국콘도미니엄 개관
- 7. 2 제2협동호 화재 발생, 선원 27명 구명보트로 142 시간동안 표류하다 전원구조

- 7. 13 제5마산호, 울릉도 동북방 해상에서 북한 초계정에 피랍. 어부 35명 승선. 수산청, 대화퇴어장 모든 선박 귀항령
- 7. 19 제5마산호 송환축구 동해안 어민 썰기대회. 어선 60여척 속초항서 해상 규탄시위
- 7. 20 동방원양 영랑호 레저타운 고급 방갈로 기공식
- 8. 24 청동좌불상 발견. 신흥사 앞 세심천 계곡에서 청동 좌불상이 발견
- 10. 8 제17회 설악제
- 10. 25 속초공설운동장에서 반공연맹 강원도지부 주최로 강원도 어민 어선납북 만행 규탄 썰기대회
- 10. 28 제5마산호 귀환
- 10. 30 속초지구 해양경찰대는 태백호, 설악호 취역식 가짐

□□ 1983년

- 1. 1 속초전신전화국 개국
- 2. 15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 설악동에 편입
- 5. 19 전국요트대회 개최
- 7. 1 강원도립 속초병원이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으로 변경
- 7. 13 속초시 이산가족찾기 접수창구 개설
- 8. 6 설악산에 한국콘도미니엄 준공

속초의 근현대사

- 9. 16 속초경상전문대학이 동우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 9. 30 제18회 설악제
- 10. 14 공설운동장에서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 만행 속초시민 규탄대회
- 11. 17 3,500만원의 시민 성금으로 수복기념탑 복원 제막식

□□ 1984년

- 3. 20 명성 설악레저타운 공사 재개
- 5. 5 명성 스타월드 개장
- 7. 27 속초향군회관, 동명동 수복기념탑 맞은편에 건립 준공
- 8. 7 속초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9. 2 사상최대 폭우. 이틀동안 635.9mm의 강우량 기록. 사망17명, 부상14명, 재산피해 23억원 발생
- 10. 2 제19회 설악제
- 12. 24 미시령도로 2차선 확장
- 12. 28 수해복구 외옹치마을 집단이주사업. 번영로, 청학가로 준공식

□□ 1985년

- 1. 17 도문동 하도문리 김근수 가옥과 중도문리 김종우 가옥이 강원도 문화재자료 64호와 강원도유형문화재 85호로 지정

- 1. 22 제15홍양호 영해 침범혐의로 일본 억류
- 2.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정재철, 허경구 당선
- 4. 1 KAL 속초-부산간 항로 개설
- 4. 14 민족화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2회 전국새마을 사이클 대행진 대회. 속초 공설운동장-설악산 소공원 구간
- 4. 25 속초여고 신축교사 준공식. 교동 802-1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 6. 13 제3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 8. 1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속초지점으로 개칭
- 9. 13 신홍사 보제루 강원도 지방 유형문화재 104호로 지정
- 10. 1 제20회 설악제
- 10. 25 KAL 속초-일본 나고야간 부정기 항로 개설. 첫 비행기 도착
- 12. 22 도문교 준공식

□□ 1986년

- 5. 17 속초시 공공도서관 개관식
- 9. 13 제21회 설악제
- 11. 24 속초 중앙시장에서 불이나 속초약국 등 4개 점포 불타

속초의 근현대사

- 11. 25 천양호, 파도에 휩쓸려 침몰. 4명 사망 21명 실종
- 12. 22 속초문화회관 신축건물 신축

□□ 1987년

- 2. 3 개통발어선 장영호, 제2한일호 실종
- 5. 26 해양경찰대 충혼탑 제막식
- 8. 1 속초의료원 신축청사 준공
- 8. 5 설악산 관리사무소 개소
- 10. 1 제22회 설악제 개최
- 12. 2 이북 5도민 영북지구 연합회 주최 반공대회 및 결의대회. 북한서 탈출한 김만철 연사로 강연
- 12. 4 속초도서관 개관식. 구 속초여고 교사 보수 및 증축후 개관
- 12. 14 속초시보건소 준공식
- 12. 15 충혼탑, 도문동에 건립 제막식

□□ 1988년

- 1. 22 학생체육관에서 북한의 KAL여객기 폭파 만행 규탄 시민대회
- 2. 26 동남증권 속초지점 개설
- 3. 17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번영회 합동으로 설악산 전철유치 추진위원회 결성
- 3. 30 중앙시장 현대화 신축 기공식

- 4. 26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통일민주당 최정식 당선
- 4. 30 설악동 소나무가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지정
- 7. 3 강릉MBC속초사무소 개소
- 10. 2 제23회 설악제 전국등산대회 개최
- 10. 7 속초~서울 간 항공기 1일 2회 운항하기로 결정
- 11. 18 제33삼영호, 대화퇴 어장서 실종
- 12. 20 근로자 복지회관 준공

□□ 1989년

- 3. 27 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용문(속초고 동창회장)
- 4. 1 한국담배인삼공사 속초지점
- 4. 12 동우전문대생 300여명, 동우학원 민주실천위 발대식 갖고 시위
- 4. 14 속초시 의료보험조합 설립
- 4. 28 자유민주체제수호 속초시민 결의대회
- 5. 27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창립
- 6. 17 미시령도로 포장 완공 개통. 속초-인제간 총연장 23km. 서울방면 교통시간 30분이상 단축
- 8. 5 북청민속예술보존회, 수북담에서 북청사자놀이 재연. 이날 공연에는 김수석옹도 양반역으로 출연
- 10. 10 제24회 설악제 개최

- 10. 13 제1회 속초시민문화상 시상식. 문화예술부문 장규호(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사회봉사부문 천병순(새마을부녀지도사), 학술부문 임덕수(동우전문대학교수), 체육부문 김기용(축구협회)

□□ 1990년

- 1. 15 속초전신전화국이 속초전화국으로 명칭 변경
- 1. 30 속초지역, 폭설로 외부로 통하는 모든 교통 두절. 대청봉 적설량 260cm기록
- 3. 1 동지나해에서 복어잡이하던 하나호 침몰. 유정충 선장만 실종되고 선원 21명은 그 다음날 구조
- 3. 9 고 유정충 하나호선장, 전국어민장
- 3. 31 영북신문(주간) 창간
- 4. 1 사진동, 장천동이 장사동 통합(시 조례 제1657호)
- 5. 3 고 유정충 선장이 5·16민족상 사회부문상 수상
- 5. 28 속초신문(주간) 창간
- 7. 31 대포동에 설악동해콘도 준공
- 8. 4 방북신청 접수창구 인파 몰려. 첫날 최초 등록된 김학림(67세 금호동) 등 56명 접수
- 10. 10 속초시 문화회관 개관. 객석 750석의 대공연장을 비롯 부속건물에 소강당, 전시실마련
- 10. 11 제2회 속초시민문화상 시상식. 문화예술 박명자, 사회봉사 권병락, 학술 주상훈, 체육 김봉만

- 10. 30 노학동에 설악리조트 레저타운 준공

□□ 1991년

- 1. 1 중앙시장 전기누전으로 화재. 중앙시장은 53년에 건립되어 63년과 73년, 86년, 89년등 이번까지 5차례나 화재
- 1. 9 하나호선장 유정충 동상 제막식
- 3. 26 속초시 최초 기초의원 선거
- 4. 15 속초시의회 개원. 속초시정 사상 처음으로 시의회 구성. 초대 시의원 13명은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위해 출선 봉사 다짐. 제1회 임시회에서 초대의장으로 박용권의원 선출
- 6. 20 도의원 선거 실시. 이관희, 윤중국, 전상기 당선
- 8. 1 속초해양경찰서로 개칭
- 9월 청초호종합개발사업 착공. 물량장 조성, 호면 매립, 신수로 개설 공사 등
- 9. 18 속초시 도문동 마을운동장에서 한민족체육대회에 참가한 5백70여명 해외동포 환영행사
- 11. 3 유엔 가입 경축 및 민족통일추진 범시민 걷기대회 개최. 민족통일 속초시협의회(회장 김섭홍) 주관으로 속초초등학교-영랑초등학교 구간서 실시
- 11. 6 속초시지 발간 기념회

□□ 1992년

- 3월 조양동에서 선사시대 유품 출토. 조양동 청동기 유적지는 10월 6일 사적 제376호로 지정
- 4. 7 무공수훈자회 속초지회 창립
- 4. 16 남북한 장애인 걷기 대행진
- 8. 8 강릉MBC속초지사로 승격
- 8. 15 고 박상희 속초 초대읍장 송덕비 제막식
- 10. 1 제4회 속초시민문화상 시상. 문화예술 김광수, 지역개발 최구현, 사회봉사 김달공, 학술 장정룡, 체육 김정문
- 10. 11 모스크바를 비롯 동구권서 망명한 북한 대학생 김운학, 김창화, 김남준, 동영준 강연회
- 11. 1 한국전쟁 설악산지구 전투 무명용사 추념식
- 11. 2 속초신문, 설악신문으로 제호 변경
- 11. 20 설악-금강산 연계개발 구상과 통일시대 대비 지역 학술 세미나 개최
- 12. 15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개설

□□ 1993년

- 6. 4 속초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 8. 7 '93범민족대회 강원도 추진본부 자전거 순례단 속초 도착
- 8. 20 KBS속초방송국 사옥 준공식

- 9. 4 속초평통대표, 국경서 북한대표 2명과 회담
- 9. 23 북한에 사랑의 쌀 보내기 대회, 공설운동장서 개최. KAL폭파범 김현희 강연
- 10. 1 제28회 설악제
- 12. 30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 착공. 매립면적 20만 8백㎡.

□□ 1994년

- 3.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지청 합의부 승격
- 3. 14 조양·대포동주민 하수종말처리장 반대시위
- 5. 3 속초시, 양양군 통합 무산. 주민투표결과 속초시민 95.7% 찬성, 양양군민 84.1% 반대
- 5. 23 영랑호 한일레저에 임대 만료
- 6. 1 양양철광 폐광
- 6. 6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 일행 속초방문, 관내 중국 교민들과 대화
- 6. 13 속초시민현장탐 제막식
- 6. 16 속초시 승격 최초로 제29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 7. 2 속초-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정부, 동서고속전철 민자유치 추진 발표
- 8. 1 평통자문회 속초시협의회(회장 윤중국), 남북한주민 접촉 신청업무 이관따라 시청사서 현판식 갖고 북한주민 접촉신청서 접수 시작

속초의 근현대사

- 8. 9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 통해 속초출신 납북억류자 20명 발표.
청호동주민, 함남 새마을협의회 자매결연식
- 8. 31 설악권 관광특구 지정. 24시간 영업가능
- 10. 6 재속 이북5도민회 총연합회 창립
- 10. 12 태풍 ‘세스’호 피해. 문창호 울릉도 근해서 조난
- 10. 26 속초시·일본 요나고시, 교류협력 추진 기본합의서 교환
- 12. 24 속초지구 이북 5도민회, 청호초등학교서 함경남도 청진군 수성천 모래 전달식. 이날 실향민들에게 전달된 청진 모래는 (주)서평건설이 분단후 최초로 반입

□□ 1995년

- 1. 23 예총 연극협회 속초지부, 북한 원산국립극단과 교환 공연 위해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 신청서 제출
- 1. 29 속초시 설날연휴 최악 식수난
- 3. 21 속초·양양 통합 재추진 무산. 주민의견조사서 발표 결과 속초시 94.1% 찬성, 양양군 79.5% 반대
- 6. 27 초대 민선 속초시장에 동문성 당선
- 7. 1 동문성 속초시장 취임
- 10월 동해안 해난어민 위령탑,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준공

□□ 1996년

- 1. 30 제1회 설악눈꽃제
- 3. 27 속초시 국제화 교류추진위원회 구성. 해외 자치단체와 교류나서
- 4. 6 속초경찰서 동명동서 노학동 신청사로 이전
- 6. 9 제1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개최
- 8. 15 민예총강원도지부 제1회 통일문학제 청호동 백사장서 개최
- 10. 7 제77회 전국체전 개막

□□ 1997년

- 3. 1 청대초등학교 개교
- 5. 3 통일시민대회 수복탑광장서 개최. 북한흙 나누기, 북한동포돕기, 통일나무 식수, 옥수수죽 먹어보기
- 5. 21 북한동포돕기 영북시민운동본부 발족
- 5. 31 설악신문사, 북한동포돕기 하덕규 초청공연
- 5. 27 속초예총 연극협회, 북한어린이 돕기 사랑의 공연
- 6. 14 북한동포돕기 영북시민운동본부 가두모금
- 10. 9 4개국 10개도시가 참가한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속초 개최
- 10. 27 국제관광엑스포 기획단 신설
- 11. 3 속초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개관식

□□ 1998년

- 1. 14 설악산 토왕성 폭포서 경북대 산악부대원 등 8명 눈사태로 매몰
- 2. 26 속초서 남북한 첫 여객 배길 열려. (주)대아고속해운 대원카타마란호 경수로 사업 기술진 태우고 속초항 출발, 북한 신포 양화항 도착
- 4. 6 대포 소공원 조각공원 전시
- 5. 1 동우전문대학이 동우대학으로 개명
- 6월 갯배 목선서 FRP선으로 교체
- 6. 4 동문성 민선 2대 속초시장 당선
- 6. 29 속초 학생체육관 준공식
- 6. 22 북한 잠수정, 속초선적 풍치잡이 어선 동일호에 걸려 군당국 예인
- 7. 2 금강산 유람선 속초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7. 7 속초지구 이북5도민회 금강산 유람선 속초유치 위해 현대그룹 본사 방문
- 7. 9 금강산 유람선 속초항 유치 범시민 쉼기대회
- 7. 23 청초호 신수로 공사 착공. 청초호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청호동 2, 3, 4통 일대에 1백m 길이의 수로 건설.
- 9. 21 속초시 8개 통합 동명칭 확정

□□ 1999년

- 2. 23 속초 8경 선정
- 9. 11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속초시 청초호 매립지에서 50일간의 일정으로 개막
- 9. 21 제11회 속초시문화상. 문화예술 김영복, 지역개발 김태영, 교육학술 김택인, 체육 조정식
- 12. 23 '99속초밀레니엄 평화축제
- 12. 29 새천년맞이 통일등불축제

□□ 2000년

- 1. 28 대형채낚기어선, 정부매입 착수. 속초선적 29척 감척
- 4. 7 속초항 신수로 교량 1차 공사 착수. 길이 520m, 아치형 구조. 2002년 9월 27일 완공 예정
- 4. 28 동춘항운 속초-러시아 자루비노 백두산 항로 첫 취항
- 5. 19 강원도, 10월 중 총연장 3.9km 미시령 터널 착공 발표
- 6. 3 속초지역 시민단체 속초-춘천 철도 조기 착공 건의
- 6. 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후 청호동에서 이산가족 상봉 기원제 개최
- 6. 19 현대, 고성군 간성읍-온정리 신금강산철도 건설계획 발표

속초의 근현대사

- 6. 26 속초시, 남북교류확대 대비 남북교류확대 시책추진단 구성, 운영키로. 남북교류협력지원, 이산가족지원, 남북연계교통, 남북연계관광개발 등 5개 분야별
- 7. 27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 최종보고서 주민설명회
- 7. 28 북한영화 ‘불가사리’ 속초 상영
- 8. 9 영북지역 통일대축전 개최
- 8. 10 8·15 이산가족방문 신청 탈락 청호동주민 위문공연. 청호동사무소와 서울예술전문학교 공동 주관
- 8. 30 (주) 현대상선, 속초-장전항간 금강산 관광선 9월 20일부터 취항 발표
- 9. 30 이북 5도민회, 제35회 설악문화제 통일염원제전 주관
- 10. 1 민예총 속초지부 영화위원회, 다큐멘터리 ‘갯배’ 시사회
- 10. 2 속초시, 금강산패속선 속초항 조기 취항 건의

□□ 2001년

- 1. 6 금강산관광선 취항
- 1. 30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발간
- 3. 31 미시령터널공사 착공
- 5. 8 잠수함 트리토네호 취항
- 6. 27 금강호 마지막 출항

- 6. 27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길을 처음 열었던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관광객 감소 등을 이유로 봉래호, 풍악호에 이어 2년 7개월만에 마지막 출항
- 7. 6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
- 7. 23 속초해양페스티벌 개최

□□ 2002년

- 2. 26 제22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3. 22 석봉도자기미술관 개관
- 4. 2 양양국제공항 역사적 개항
- 4. 13 속초항 ‘개항’ 지정
- 5. 25 속초고등학교 개교 50주년 행사
- 6. 2 속초항 신수로 교량 아치 거치식
- 6. 13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 7. 2 민선3기 속초시장 취임
- 7. 22 속초해양페스티벌 개최
- 8. 31 태풍 ‘루사’사상 최악의 피해.
이재민은 871세대에 2,663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1,838억원으로 집계.
- 10. 4 소야초등학교 개교
- 11. 2 속초사랑 상생천년 행사 개최
-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 편집후기 -

속초는 조선시대까지 양양도호부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고 속초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속초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근래에 와서는 나름대로 성과물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속초문화원에서는 매년 적은 예산이나마 편성하여 속초의 역사와 뿌리에 관련된 연구물을 발행하고 있는데 근래에 출간된 것은 1999년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2000년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1년 『옛 문헌 속의 속초』, 2002년 『속초의 옛 땅이름』 등이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 『속초의 근현대사』를 집필한다는 테마 아래 집필진이 지난 5년 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족하나마 작은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 출간물은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낮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 모여 많은 토의와 연구를 거듭하여 힘겹게 만들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역사가 바르게 정립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견지할 때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과 같이 각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기 지방의 뿌리를 찾아 정리하여 알리는 것이 지방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특히 속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북방항로가 개척된 지금 속초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초 자료로 필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초 역사의 정리는 전국적인 관광객 홍보 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그 결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각종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바다 자원의 고갈로 어업이 사양화되고 그 외에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속초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관광사업을 시 발전의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시점에서 속초의 역사 연구는 다양한 관광문화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산 배정이 부족하여 충분한 연구의 걸림돌이 되고 연구물을 많이 출판하여 다양한 곳에 배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내용의 충실성 못지 않게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홍보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익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연구의 소기 목적이 좀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집필에 열중한 집필진에게 감사하며 좀 더 깊은 연구가 못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속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기를 바라며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채찍질하여 주기를 바란다.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속초의 근·현대사

펴낸이 / 최용문

엮은이 / 한정규

펴낸곳 / 속초문화원

집필인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정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독립기념관 자료수집위원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 자문위원
고성고등학교 교사

박명선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과정 졸업
동광농공고등학교 교사

손병섭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속초중학교 교사

한정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정종천 속초시 문화재전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편집 및 찍은 곳 / 열린마당(033. 636-3636)

인쇄 / 2004년 12월 27일

발행 / 2004년 12월 29일

주소 / 우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

전화 / 033) 632-1231, 639-2439(행2439)

전송 / 033) 632-1241

홈페이지 / 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 sc2439@sokcho.org

이 책은 보조금 및 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